

무능과 결함, 지체가 아닌 유능과 강점, 장점에 근거한

장애인 문화의 이해

허 일 (한국재활복지대학)

I. 서론	2
II. 본론	5
1. 자신들과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다수 주류 구성원들(비장애인, 정상인, 청인)의 두려움	5
2.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무지와 오해	7
3. 장애인 문화의 주체	8
4. 장애인들이 원하는 대안 사회와 대안 문화: ‘남과 똑같이’가 아닌 ‘남과 다르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사회와 문화 · 9	
5. 장애인 문화 관련 이론	13
6. 장애인 Focus Group 면담 결과	20
1) 시각장애인 면접 결과	20
2) 청각장애인 면접 결과	34
[20대 남학생 그룹]	34
[20대 여학생 그룹]	58
[30-50대 청장년 그룹]	83
[60대 이상 그룹]	93
3) 지체장애인(뇌병변) 면접 결과	101
4) 지적장애인 면접 결과	112
III. 결론	123
1. 한국 장애인 문화의 과제와 전망	123
2. 장애인용 문화 or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가능한 문화	125

1. 서론

2006년 12월 13일 유엔 총회에서 선택의정서와 함께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한국은 2008년 12월 2일 비준, 2009년 1월 10일 발효)에는 장애인 문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문 (i)] 더 나아가서 장애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전문 (n)] 스스로의 선택을 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있어 개인의 자율과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제2조 정의] ‘언어’(language)는 구어(口語), 수화, 기타 형태의 시각언어를 포함한다.

[제3조 일반적 원칙]

(a) 사람들의 본래부터의 존엄, 스스로의 선택을 할 자유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율, 자립 등에 대한 존중

(d) 인간의 다양성·속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다름에 대한 존중과 수용

[제19조 독립적으로 생활함과 지역사회에 통합됨]

현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 기회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며, 다음을 보장함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이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거주지 및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 거주 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되지 않음

(b)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이나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personal assistance)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광범위한 재가·주거 서비스와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들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음

(c)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시설이 대등하게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함

[제21조 표현·의견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접근]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그리고 현 협약의 제2조에 정의된 것과 같이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형태를 통하여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고 주고받을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표현·의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b) 공식적인 상호교류에서 수화, 점자, 보완·대체하는 의사소통, 장애인이 선택하는 기타의 모든 접근 가능한 의사소통 방법·형태·형식들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촉진함

(e) 수화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촉진함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한다. 차별 없이 그리고 동등한 기회를 기초로 하여 이 권리를 실현할 목적으로 당사국은 다음을 지향하는 모든 단계에서의 통합 교육 시스템 및 평생 학습을 보장해야 한다.
2. 이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 (a) 장애인이 장애를 근거로 일반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으며, 장애 아동이 장애를 근거로 무상·의무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음
 - (c)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됨
 - (d)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교육 시스템 내에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음
3. 당사국은 교육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생활 기술과 사회성 개발 기술을 장애인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b) 수화의 습득 및 청각장애 사회의 언어 주체성의 증진을 촉진함
 - (c) 시각장애, 청각장애, 또는 시청각장애를 가진 사람, 특히 그러한 아동의 교육이 그 개인을 위해 가장 적절한 언어와 의사소통 형태·방법으로 그리고 학문적·사회적 개발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함
4. 이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수화와 점자 또는 어느 한쪽에 자격이 있는, 장애인 교사를 포함한 교사를 고용할 적절한 조치 그리고 모든 교육 단계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직원을 훈련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장애 인식 그리고 장애인을 지원하는 적절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형태·방법·형식, 교육 기술, 자료 등의 사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스포츠 등에 참여]

4.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장애인은 수화와 농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 특유의 문화적·언어적 주체성을 인정·지원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

최근 청각장애인들, 특히 농인들은 청각장애의 조기 발견, 통합교육의 확대, 듣고 말하는 접근(auditory/oral approach)의 강조, 보조청취 및 정보접근 공학 기기 및 서비스의 비약적인 발전, 경도 청력손실의 출현률 증가, 새로운 이슈의 대두(산업 현장과 학교에서의 청취 환경 개선, 폐쇄 자막 방송의 시작, 영상전화기 및 문자 전화기의 보급, 농인과 청인의 원거리 의사소통을 위한 전화중계서비스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존의 의료 재활 및 교육, 정보접근 서비스에 대한 비용-효과 검증 요구의 증대 등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직면해 있다.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보청기 공학과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청력선별 검사의 확산과 이에 따른 증폭장치의 조기 착용과 인공와우 조기 시술, 청력 검사의 전문성 증대 등으로 인해 잔존청력 활용의 극대화화 교정 청력의 향상을 통한 청각장애의 보상과 극복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심지어 일부 의사와 청력검사 전문가들은 청각장애인들 중에는 이제 더 이상은 농인(deaf)은 없으며, 모두 난청인(hard of hearing)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추세라면 청각장애인들은 공학 기술 및 의료 기술의 발전 덕분에 2-3년 동안의 단기 집중 듣기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만으로 취학전 교육부터 청인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특별한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의 수정이나 첨가 없이도 교육 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자유롭게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그러나 과거의 특수교육이나 장애인 복지가 손쉬운 해결 방법(easy solution)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장밋빛 미래(false hope)를 꿈꾸어 왔다는 비판과, 보다 나은 장애인의 삶,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이라는 효과(effect) 보다는 최소 비용과 노력이라는 효율(efficacy)에 눈을 먼저 두고 만족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교차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보면, 농인(deaf person)을 청인(hearing person)처럼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접근은 실제 얻어진 열매나 앞으로 맺게 될 열매에 비해 과대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다. 더욱이 이와 같은 접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인들 스스로 제안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대안적인 접근이 존재하고 있는 현 시점이기도 하다.

이 대안적인 접근은 과거 개인 심리학(individual psychology) 전통과 심리학적 연구 방법론에 입각하여 자신이 배운 것에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감으로써, 지식과 인지 기술을 터득해 하는 개별 학습자와 지인(知人, knower)에 초점을 맞춘 입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접근이다. 즉, 청각장애 아동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한 개인의 앎의 증대와 능력 향상을 통해, 혹은 무능력의 완화 혹은 제거를 통해 해결하려는 접근(청각장애인은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므로 들을 수 있게 되면 그들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에서 벗어난 접근이다. 이 대안적인 접근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의 장애는 신체 기관의 손상과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에 가해지고 있는 억압과 차별(social participation restriction)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그 비중이 훨씬 높다고 본다(WHO, 2001). 즉, 청각장애인들은 정보를 청각화 했을 때보다 시각화 했을 때 더 잘 의사소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청인들이 흔히 사용하고, 이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하고 공부하여 사회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황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대안적인 접근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의 무능력이 아니라 유능함에 근거해서,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의 노력만큼이나 주변 의사소통 파트너, 부모, 교사, 이 사회 구성원들도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기존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사회 복지 정책을 재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자신을 듣지 못하는 사람(deaf person)이 아니라 보는 사람(Seeing person)으로 자각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위한 교육 및 사회 정책, 사회 참여 방식이 자신의 무능에 초점을 맞추고,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능함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I. 본론

1. 자신들과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다수 주류 구성원들(비장애인, 정상인, 청인)의 두려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한다. 친구와 약속을 정할 때, 공부를 할 때, 학원을 등록할 때,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책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선택을 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경험과 세계관에 따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꿈꾸는 미래의 모습, 지금의 삶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한다.

농인들을 포함한 장애인들도 공부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죽음에 직면하여 다양한 선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선택이 같은 땅에서 살고 있고, 같은 핏줄,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에 비장애인들과 유사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성 언어와 정보의 청각화에 익숙한 비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낮은 선택들을 장애인들은 하곤 한다.

청인들, 특히 청각장애 관련 전문가들(의사,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등)을 당혹스럽게 하는 선택들 중 하나가 미국의 농인들을 대상으로 태어나는 자녀의 청력 상태가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미국 농인 부모 10 쌍 중 9쌍이 자신의 자녀가 농인이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한 조사 결과이다. 요 근래 한국에서도 농인 배우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심지어 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농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경향 또한 청각장애 전문가들이 당혹스러워 하는 농인들의 선택이다.

이러한 당혹감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그의 어머니도 청각장애인이었고, 농인을 위한 재활과 교육에 헌신했던 알렉산더 그레함 벨의 다음과 같은 걱정이 청인 전문가들의 당혹감이 어디에 연유한 것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Reagan, 1989).

만약 우리가 청각장애를 가진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 내기를 희망하고,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과 결혼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완전히 다른 동기에서, 더욱이 아주 고상한 동기에서 비롯된)을 지속시키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Bell이 지적한 현재의 상황이란 19세기 청각장애인을 기숙제 학교에서 교육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 대한 격리, 분리, 차별이 더욱 조장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수화의 사용을 목인한 채, 어린 청각장애 학생들을 기숙제 학교에서 양육하고, 청각장애인들에게 헌신적인 모임에서 청각장애인들끼리의 사회적 교제를 인정하고 오히려 조장하며, 청각장애인들끼리의 결혼(벨은 intermarriage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결혼이라는 뜻 외에도 근친결혼, 혈족결혼, 근친상간이라는 뜻이 있다)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Bell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주류 쪽인 건청인들을 의식할 수 있게 가르쳐져야만 하고 다른 청각장애인들과는 가능한 한 최소로 만나야 한다고 믿었다. 이 믿음은 특히 교실에서 지켜지기를 바랐는데, Bell은 건청인 교사만을 교실에서 보기를 원했다.

청각장애를 가진 새로운 인종의 출현에 대한 Bell의 공포는 그의 생각들 중 작은 부분이 아니었다. 그 예겐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 이는 그의 청각장애에 관한 개념과 미국사회가 어떻게 청각장애인들을 대해야 하는가에 관한 관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Bell은 가능하기만 했다면 청각장애인들끼리의 결혼을 금지하는 억압적인 수단을 입법화했을 것이다. 예를 들면, 1883년에 Bell은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악을 억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무지막지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실지로는 그러한 생각을 포기했다(인도주의적인 이유나 도덕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신 Bell은 청각장애인과 건청인 간의 결혼을 격려하려는 노력을 지지했다. Bell이 청각장애인끼리 모이는 것을 허락하고 격려함으로써 청각장애인끼리의 결혼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현실을 비난한 결과로 나타난 결과들 중 하나는 미국의 많은 주의 인종개량법에서 법률화된 내용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인즉슨,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그들이 청각장애를 다음 세대에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도록 불임(단종)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Reagan, 1989).

청각장애라는 새로운 인종의 출현에 관한 Bell의 연구논문이 쓰여졌던 그 당시 Baltimore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교회의 목사에 의하면 청각장애인들의 부모들 사이에서 그들의 가족 주치의들이 그들에게 몰상식하고 잔인한 수술(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불임시키는 수술)을 권한다는 소식이 마치 들불처럼 퍼져나갔다고 한다.

그러한 불임수술들이 많이 행해졌으며, 많은 청각장애를 가진 성인들의 삶이 결과적으로 가혹하게 상처를 입었다. 청각장애인들만이 그런 취급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사람들(socially inadequate classes)이 그런 식으로 취급되었다.

Bell은 청각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장애를 부정(denial)을 통해 극복하도록 격려하는데 그의 삶을 바쳤던 모습으로 남아 있다. 그는 수화를 부정했고, 건청인들과 청각장애인들 사이의 중대한 문화적 차이를 부정했으며 청각장애인들끼리의 결혼을 부정했다. 그리고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교육할 때 청각장애를 가진 교사들을 채용하는 것의 가치를 부정했다. 또 기숙제 학교에 학생들을 배치하는 것을 부정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적어도 청각장애인들이 보기에는 그가 청각장애인을 그 자체로서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마지막 평가는 Bell의 부인인 Mabel이 내린 것이다. 그녀는 "Bell, 당신이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관련 사업은 당신에게 인간에 관한 사업이 아닙니다. 당신은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아주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당신의 관심은 그들의 청각장애에 있지, 인간인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Bell에게 있어서 청각장애인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듣고 말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살도록 그들을 그 세계에 맞추는 것이었다. 그는 그이외의 어떤 목적도 사실상 생각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이 Bell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청각장애인들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건청인 세계로 흡수시키는 것이었다. Bell은 수화(sign language)가 구어(spoken language) 발달에 방해가 된다고 믿었고 따라서 청각장애인교육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화의 지속적인 사용은 영어라는 언어를 마스터하는데 방해가 되며,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책을 이해하지 못하며 읽을 수 없다는 사

실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Bell에게는 수화 사용을 지지하는 주장들이 모두 오히려 수화의 사용을 반대하는 증거들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들 속에는 영어가 '외국어'가 되고,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미국에서 이방인(외국인)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2.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무지와 오해

너무나 많은 청인들이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청각장애인' 혹은 '농인'이라는 말을 보거나 들었을 때, 얼어 버리고 만다. 전에 이런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꿈속에서라도 만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얼 할지 전혀 모른다.

많은 농인들은 무엇 때문에 청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되는지에 대해 정말 궁금해 한다. 이는 청인들은 '농 혹은 청각장애'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청각장애(deafness)에 관한 정보를 좀 알게 된 후에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많은 농인들이 느끼는 바이지만, 청각장애에 대해 건청인에게 교육하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일군의 사람을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물론 농인들은 그들의 청각장애 혹은 소리를 들을 수 없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농인들 중에는 자신이 농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느 정도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할 정도다. 즉 병리학적인 입장에서 농인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많은 농인들은 자신이 무능하거나(능력에 한계가 있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많은 농인들은 처음부터 듣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청력 상실을 그리워하는 일 따위는 없다. 장애라는 느낌이 없다. 본인들이 무능하며,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건청인 세계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청인들과 농인들 간의 인식 차이는 무엇에 연유한 것일까?

미국의 농인 작가인 벤 바한은 농인들을 장애인으로 몰고, 못박기 위해 건청인 세계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는 청각장애 혹은 농(농 수준의 청력 손실)이라는 단어의 사용이라고 주장한다. 사전에는 농(deafness)의 뜻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웹스터 사전: 농, 1. 청지각의 부족이나 결손, 2. 듣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음

랜덤 하우스 사전: 농, 1. 부분적으로 듣거나 완전히 듣지 못함, 2. 듣기를 거부함

사전에는 분명히 두 가지 정의가 담겨 있다. 하나는 들을 수 없음, 다른 하나는 듣기를 거부함. 두 정의 모두 부정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농인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사실 그대로의 정의가 말해 주는 것은 나는 들을 수 없는 사람(농인)이라는 것이다.

농인들은 수년 동안 '농'이라는 단어에 성가시게 덧붙여진 또 다른 뜻(우둔하고 말을 못함)을 없애려

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 농인들은 일반 대중들이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변화를 보였다는 것을 경험해 왔다.

또한 농인들은 자랑스러운 ‘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사회에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확보하고자 싸워 왔다. 미국 농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정체감은 청인들에게 질병을 생각하며 사용하던 ‘deaf’를 대신해서 대문자를 사용해서 자랑스러운 자신들의 모습을 ‘Deaf’로 나타내게끔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일부 농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첫째, 농(Deaf)이란 어느 정도의 청력 손실이 있고, 수화를 자신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택했고, 시각적인 방법(정보의 시각화)으로 의사소통하기를 선택한 사람들로서, 이 사회의 하위 문화집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사전에 뜻을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둘째, 농인들에게 맞는, 질병에 걸린 사람(병리학적 관점)이나 불쌍하고 저렇게 어떻게 살아 식의 부정적인 뜻이 담기지 않은 새로운 명칭을 찾아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문자를 사용했던 안 했던 ‘deaf’라는 단어는 농인들이 할 수 없는 것(영어에서 disable은 할 수 있다는 뜻의 able의 반대말이다. disable의 명사형인 disability를 사용해서 장애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에, 들을 수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인들은 과거에 들은 적이 없고, 처음에는 듣다가 못 듣게 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듣는 것을 그리워하거나 갈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농인들을 구분 지을 때, 듣지 못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아무도 백인을 ‘피부가 검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백인들은 피부가 검었던 적도 없고, 피부가 검기를 갈망하지도 않는다.)

이런 기준으로 농인을 확인하고, 농인을 농인답게 만든다면 옳지 못하며,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로 ‘deaf’라는 단어를 이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농인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장애인 문화의 주체

벤 바한(1989)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그나마 가장 마음에 드는 말로 ‘보는 사람’ 혹은 ‘볼 수 있는 사람’(seeing person)이라는 호칭을 제안하고 있다(‘건청인’ 혹은 ‘청인’이라는 말은 원래 ‘hearing person’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 명칭은 농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근거해서 정의하고 있다. 무능력이 아니라 능력에 초점을 맞추도록 관점을 바꾸어 놓고 있다.

농인들을 ‘보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면, 지금까지 농인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생활방식, 문제해결 방식, 사고방식 등 주위의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된다. TTY(문자 전화기), 자막 방송 수신기, 방문 알림용 깜박이, 시각 언어의 등장, 수화 등. 수화는 농인들이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능하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등장한 언어이다.

만약 일반 대중들이 수화와 농 문화를 귀중하게 여기는 일군의 사람들을 농인(deaf person)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 혹은 볼 수 있는 사람들(seeing person)이라고 그 정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벤 바한은 자신이 치과에서 경험한 일을 통해 자신의 원하는 변화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벤이 치과에 들어가, 접수를 맡아보는 예쁜 아가씨에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 보았다고 한다.
“저는 농인입니다(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벤은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수잔이에요. 뭘 도와 드릴까요?”

그녀가 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벤은 다시 자신의 귀를 가리키며, 손을 저었다.

“아니오”

수잔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벤은 “우우(위협하는 소리)”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일었지만, 심장마비를 일으킬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럴 수 없었다. 벤은 내일 아침 신문 1면에 “농인에게 놀라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다”라는 기사가 실리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벤은 생각했다. 다시 그 치과를 찾아가 수잔에게 “나는 보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다면, 그녀는 즉시 종이를 내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고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라고.

4. 장애인들이 원하는 대안 사회와 대안 문화: ‘남과 똑같이’가 아닌 ‘남과 다르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는 사회와 문화

다음은 자신들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쟁취해 나간 중요한 사건을 소개한 내용이다. 1988년 Gallaudet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관한 글로서, 자신들의 무능력이 아니라 유능함에 근거해서, 청인들과 농인들이 존중 속에 공존하며, 청인들과 동일한 목표를 향해 삶을 스스로 일구어 나가고 있지만, 청인에게 익숙한 A 방법이 아니라 B 방법으로 더 잘 의사소통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농인 혹은 보는 사람들임을 보여준 사례이다(Heward, 1996, pp.346-348).

Gallaudet 대학교는 Washington, DC 에 있는 세계 유일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학교이다.

1864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교한 이후 청각장애인이 이 학교 총장으로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1988년 이 대학교에 총장 자리가 비게 되었을 때 많은 학생들과 직원들, 동문들은 이제는 청각장애인이 총장으로 선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건청인 교육자가 총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이후 일주일 동안 ‘Deaf President Now’를 외치며 격렬한 항의시위가 일어났다.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끈 이 시위에 대해 이 시위를 주도했던 Bridgetta Bourne와 Jerry Covell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고자 한다.

[Bridgetta Bourne] 저는 제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가 흑인이 자신을 흑인이라고 알았을 때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떤 도전(challenge)에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들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그에 해당됩니다. 청각장애인으로서 저는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포함된 모임에서도 내가 참 무력하구나(disabled)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화통역자 없이는 그들과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백악관에서 의회까지 미국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지지하는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 행진에는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었지만, 저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느낌이 여전히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수화 통역자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억압(oppression)이라는 개념은 ‘힘 있는 자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억압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have no voice).

억압은 위협합니다. 그리고 널리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학교인 갈로데 대학교에서도 이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Deaf President Now’ 시위가 일어난 이유이고 성공한 이유입니다. 여러 해동안 싸워야 했고 그 동안 계속 청각장애인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말을 들어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억압에 화를 내든가, 수많은 청각장애인들이 그래왔듯이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Jerry Covell] 갈로데 대학교는 지금까지 모두 6명의 총장이 있었는데 모두 건청인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대학을 설립하고,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을 늘리고 새로운 교육분야들을 창설하고, 대학교로 승격시키는 등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6번째 총장이 사직하자 대학 이사회는 새 총장을 물색하였고, 우리들은 모두 이제는 청각장애인 총장이 취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갈로데 대학교는 청각장애인 교육에 있어서의 지도력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로데 대학교와 청각장애인 공동체를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는 건청인들에게 대학 총장으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 많은 경험을 한 청각장애인들도 많았습니다. 대학 이사회의 구성원 21명 중 4 명만이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훌륭한 사업체를 꾸려 가고 있기도 하고, 많은 기금을 냈으며, 공적 관계도 훌륭해서 모두들 갈로데 대학교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청각장애와 청각장애인의 문화에 대해 이해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다는 것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출마자들이나 상원의원 같은, 많은 저명 인물들로부터 우리를 지지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여론도 높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느꼈고, 특히 총장 후보로 선정된 세 사람들이 두 명의 청각장애인 남성과 한 명의 건청인 여성이란 것을 알고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통해 마침내 발표된 내용은 “갈로데 대학교는 최초로 여성 총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고 극도로 화가 났습니다. 제발 명심해 주세요. 우리는 이 문제를 성별의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건청인과 청각장애인 간의 문제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여성 총장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Brdgetta] 우리는 이사회 의장이 머물고 있는 호텔이 있는 중심가로 행진해왔습니다. 우리는 왜 이사회가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건청인을 뽑았는지 개인적인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호텔 안에서는 새 총장을 위한 리셉션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의 데모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화가 나 있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호텔 앞에서 항의데모를 하게 된 것은 모두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위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그저 행진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우리를 막고 서서 확성기로 우리에게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앞에선 수화를 하고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어떤 청각장애인 부부가 한 마리의 개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개에게는 ‘나는 갈로데 대학교의 신임 총장보다 수화를 더 잘 이해한다’라고 적혀있던 것이 기억납니다.

[Jerry] 우리가 슬로건을 외치며 호텔에 도착한 것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모든 호텔 방들의 불들이 켜졌고 사람들은 창문을 열고 무슨 일인가하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마침내 이사회 의장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수화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갈로데 대학교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둘러서서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청각장애인이 갈로데 대학교의 총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거죠?”, “이사회는 언제 이것을 허락할건가요?” 마침내 의장이 대답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건청인 세계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 맙소사! 모든 사람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심지어 수화통역자조차도.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명높은 이 말이 우리를 단결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녀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갈로데 대학교를 폐쇄하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우리는 대학교 정문에 자전거 등으로 장벽을 만들고, 그 앞에 차를 세워 놓았습니다. 학생들은 모든 사람들에게(행정책임자들, 교직원들, 심지어 이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오늘은 들어 올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 가십시오. 캠퍼스는 폐쇄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를 점거함으로써 이사회 의장의 발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언론매체에서 찾아왔고 그들로부터 우호적인 지지를 얻어 냈습니다.

[Bridgetta] Jerry가 말한 것처럼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푹푹 멍쳐 있었습니다. 이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는 갈로데에 여러 집단의 청각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문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나 정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합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화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Deaf President Now’를 외칠 때 우리 모두 같은 편이었고 우리는 정말 푹푹 멍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Jerry] 수화와 말로 외친 우리의 슬로건은 ‘Deaf President Now’ 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의 슬로건 중 하나는 ‘Four! Four! Four!’였습니다. 우리는 네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건청인 총장이 청각장애인 총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사회 의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었고, 셋째는 대부분의 이사회 구성원이 청각장애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넷째는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에게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 신입 총장으로 선출된 건청인 여성이 물러났습니다(그녀는 자신이 양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총장이 선임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슬로건을 'Three and a half! Three and a half!'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Deaf and Proud!', 'Deaf Power!'라고도 외쳤습니다. 마지막 구호의 경우 흑인 인권 운동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손을 높이 들고 주먹을 움켜 쥐고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언론에서는 우리의 시위를 'the deaf civil rights movement'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전세계로부터 지지방문을 왔습니다. 거의 7000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의회가 우리의 운동을 인정하도록 의회까지 행진해갔습니다. 우리는 행진을 하면서 "We are-standing tall! United, strong, and walking proud to be deaf! shouting to the world-time is now!"라고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그 이후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청각장애인 I. King Jordan 박사가 갈로데 대학교 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청각장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요구사항이 만족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회가 5년 내로 청각장애인이 다수를 이루도록 구성될 것이라는 약속과 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학을 다시 개방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슬로건을 "Deaf President Now"에서 "Deaf President Forever!"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Jordan 박사가 처음으로 거대한 군중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King! King! King!"이라고 외쳤습니다. King Jordan 박사가 "Deaf people can do anything - except hear"라고 말했다 때 우리는 감동의 물결에 힘싸여 있었습니다.

[Bridgetta] 갈로데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이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도 청각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가 한걸음 한걸음 다가올 것입니다.

농인들의 의사소통 장애와 정보 접근 장애가 농인들이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농인들이 더 잘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나와 다른 존재가 된다는 이유로 그 사용을 거부하는,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억압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농인들이 원하는 대안 사회/대안 문화(농 문화)는 낯설음과 두려움, 금기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 농인과 청인의 평등한 공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인들에게 있어 차별은 '남과 다르게'가 아니라 '남과 똑같이' 농인을 대하고, 남과 똑같이 의사소통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았다. 농인은 지난 몇 백 년 동안 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 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청인들도 농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선호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함께 공부

하고, 함께 일해야 하지 않을까?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농인 피터 폴 교수의 수업에서는 교수는 청인 학생에게 음성 언어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교수에게 질문할 때 수화를 사용한다고 한다.

농인들은 정보의 시각화에 근거해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야 보다 많은 농인들과 청인들과 함께 더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 문화에 대한 논의가 대안 문화 차원에서, 그들의 유능함(Deaf Power)에 근거하고, 농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대한 통제 권한을 돌려주는(Deaf Empowerment) 방향으로 방향매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농인의 무능력(disability)이 아니라 그들의 유능함(ability),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바램(want)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또한 농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한 개인 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한 개인의 노력과 능력 향상만으론 해결될 수 없으며, 이 사회, 특히 청인들과 농인들이 생활방식, 문제해결방식, 공존방식에 대한 협상과 농인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가로 막고 있는 청인 중심의 정보접근 방식, 생활방식, 업무 처리 방식만을 고집하는 경직성과 하나만 아는 무능력,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아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장애인 문화 관련 이론

1) 병리학적 모델과 문화적 모델

최근 농인들은 청각장애의 조기 발견, 통합교육의 확대, 듣고 말하는 접근(auditory/oral approach)의 강조, 보조청취 및 정보접근 공학 기기 및 서비스의 비약적인 발전, 경도 청력손실의 출현률 증가, 새로운 이슈의 대두(산업 현장과 학교에서의 청취 환경 개선, 폐쇄 자막 방송의 시작, 영상전화기 및 문자전화기의 보급, 농인과 청인의 원거리 의사소통을 위한 전화중계서비스 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존의 의료 재활 및 교육, 정보접근 서비스에 대한 비용-효과 검증 요구의 증대 등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직면해 있다.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보청기 공학과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유아청력선별 검사의 확산과 이에 따른 증폭장치의 조기 착용과 인공와우 조기 시술, 청력 검사의 전문성 증대 등으로 인해 잔존청력 활용의 극대화과 교정 청력의 향상을 통한 청각장애의 보상과 극복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심지어 일부 의사와 청력검사 전문가들은 청각장애인들 중에는 이제 더 이상은 농인(deaf)은 없으며, 모두 난청인(hard of hearing)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추세라면 청각장애인들은 공학 기술 및 의료 기술의 발전 덕분에 2-3년 동안의 단기 집중 듣기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만으로 취학전 교육부터 청인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특별한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의 수정이나 첨가 없이도 교육 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자유롭게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그러나 과거의 특수교육이나 장애인 복지가 손쉬운 해결 방법(easy solution)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장밋빛 미래(false hope)를 꿈꾸어 왔다는 비판과, 보다 나은 장애인의 삶,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이라는 효과(effect) 보다는 최소 비용과 노력이라는 효율(efficacy)에 눈을 먼저 두고 만족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교차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보면, 농인을 청인처럼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접근은 실제 얻어진 열매나 앞으로 맺게 될 열매에 비해 과대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다. 더욱이 이와 같은 접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인들 스스로 제안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대안적인 접근이 존재하고 있는 현 시점이기도 하다.

이 대안적인 접근은 과거 개인 심리학(individual psychology) 전통과 심리학적 연구 방법론에 입각하여 자신이 배운 것에 조금씩 삶을 붙여 나감으로써, 지식과 인지 기술을 터득해 하는 개별 학습자와 지인(知人, knower)에 초점을 맞춘 입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접근이다. 즉, 청각장애 아동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한 개인의 삶의 증대와 능력 향상을 통해, 혹은 무능력의 완화 혹은 제거를 통해 해결하려는 접근(청각장애인은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므로 들을 수 있게 되면 그들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에서 벗어난 접근이다. 이 대안적인 접근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의 장애는 신체 기관의 손상과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에 가해지고 있는 억압과 차별(social participation restriction)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그 비중이 훨씬 높다고 본다(WHO, 2001). 즉, 청각장애인들은 정보를 청각화 했을 때보다 시각화 했을 때 더 잘 의사소통하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청인들이 흔히 사용하고, 이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하고 공부하여 사회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황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대안적인 접근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의 무능력이 아니라 유능함에 근거해서,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의 노력만큼이나 주변 의사소통 파트너, 부모, 교사, 이 사회 구성원들도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기존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사회 복지 정책을 재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자신을 듣지 못하는 사람(deaf person)이 아니라 보는 사람(Seeing person)으로 자각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위한 교육 및 사회 정책, 사회 참여 방식이 자신의 무능에 초점을 맞추고,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능함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의학적/병리학적 모델

청각장애(deafness)에 관한 통상의 의학적 관점은 많은 농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농인들은 청각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들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귀지 문제, 감염, 귀앓이, 중양, 인공와우 수술 등). 농인들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특수교육 포함) 및 직업 재활, 장애인 복지 서비스 및 보조청취기기 및 정보 접근 서비스,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 받기 위해 어느 시점에선가 청력 진단 검사를 병원에서 받게 된다.

의사들과 청력검사 전문가들은 청력 손실(hearing loss)을 장애(disability) 혹은 병리상태로 보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적절한 수술과 증폭장치 착용을 통한 재활(rehabilitation)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병리학적 모델에서는 시각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보다 소리(청각채널)를 통해 의사소통하도록 강제한다. 의사들과 청력검사 전문가들은 의학적/병리학적 관점이 문제가 있다거나 한계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들은 청각장애가 의학적 처치와 관리를 요구하는 많은 의학적 문제(혈관, 신장, 심장 문제, 신경 및 면역 장애, 전정기관기능이상, 매독, 중양, 와우 내 균상종,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 내이 신경 독성 등)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신체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이 모델을 광범위하게 적용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청각장애가 다른 의학적 문제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농인들은 청력 손실이 있음에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미국에서는 점차 더 많은 농 성인들이 3세에서 21세 사이의 아동들을 위한 개별화 교육 계획(IEP)이나 0-2세 아동들을 위한 개별화가족계획(IFSP)을 계획하는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텍사스와 메릴랜드 주의 주립 기숙제 농학교에서는 부모를 상담하고 수화를 가르치고, 역할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농 성인을 고용하고 있기도 하다.

많은 농인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접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청각장애아동의 건청부모들에게 수화와 농 문화(Deaf culture)의 이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의사들이나 병리학적 모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농인을 청각 재활 계획의 최종 산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접근에서는 수화의 사용이나 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시각 전략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오늘날 수화 사용이 말 발달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많은 경험 자료가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Wilbur, 2000).

의학적/병리학적 모델을 지지하는 전문가들 중에는 청각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주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건청 학생들과 함께 공립학교에 다닐 것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청학생들이 청각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마이크, 증폭기, 전화기를 사용하듯이, 청각장애학생들은 청각 및 시각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수화통역 서비스, 자막방송, 전화중계센터, 보청기 등이 필요함에도(정보의 청각화 뿐만 아니라 정보의 시각화가 필요함에도), 청각장애학생들이 수화통역사나 속기사가 제공하는 정보접근 서비스를 통해 공부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 없이는 건청인 세계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즉 장애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바라보곤 한다. 농인들이 수화통역사나 속기사의 존재를 자신들이 건청인 세계에서 보다 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존재라고 생각은 이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수화통역사나 속기사가 있다면, 농인 변호사는 의뢰인 관련 재판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농인 철학 박사는 언어학 관련 학회나 학자 양성 등에 보다 더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또한 농인들은 수화통역사나 속기사를 통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더 많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친구나 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게 되는데도 말이다. 이와 같이 농인들의 청각장애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의학적/병리학적 모델이 전반적인 건강에 관심을 가질 때는 중요한 관점이나, 이 관점에서는 주로 의학적/청각학적 중재에 초점을 맞춘다. 많은 농인들 입장에서 이 관점은 자신들의 초기 인지적/언어적 요구와 사회적 이슈를 적절하게 담당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농인들은 의사들, 청각사들, 언어치료사들이 자신들의 농 문화에 대해 배우기를 바라고, 이러한 정보를 부모나 다른 전문가들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Andrew, Leigh, & Weiner, 2004, pp.20-22).

(2) 문화적 모델

많은 농인들에게, 청각장애 발생원인, 청력 손실 정도, 발생 연령은 농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농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 그 자체(whole person)로서의 자아 정체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언어, 문화, 태도, 서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Padden, 1998).

수화(Sign Language)는 농인에게 커다란 가치를 가지지만,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농인(oral-deaf people)을 포함해서 다양한 농인들이 서로를 같은 범주 및 공동체에 속하는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은 농인으로서 건청인 주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경험의 공통분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 문화는 주로 수화 사용자들의 의해 전수된다. 많은 농인들은 수화만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농인이나 청인들과 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음성언어, 한글식 수화, 영어식 수화 등)을 사용한다. 농인들은 가능하다면 건청인 친구들이나 동료, 가족과 음성으로 대화한다. 결과적으로, 농인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중언어 사용자인 경우가 많다.

문화적 모델에서는, 수화를 주류사회의 음성 언어와 동일한 수준의 자연 언어(natural language)로 본다. 다른 농인들과의 만남을 통한 사회화 과정은 권장되고 지지 받는다. 농 성인들은 바람직한 역할 모델로 간주된다(Andrew, Leigh, & Weiner, 2004, p.22).

2) 농 문화

1965년 윌리엄 스토키 등이 미국수화사전(Dictionary of American Sign Language)을 출판할 당시만 해도 미국 농인들(Deaf people¹⁾)에게도 자신들이 ‘문화 집단(cultural group)’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은 아주 생소한 관점이었다. 그런데 이 수화사전은 최소한 2 가지 이유로 당시에는 아주 특이한 책이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언어학적인 원리에 기초를 두고 수화를 새롭게 설명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수화(ASL, American Sign Language)를 사용하는 농인들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묘사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이었다(Padden, 1989).

지금도 (의학 등의) 자연과학과 청각장애인 교육 및 복지 전문가들은 농인들이 병리학적인 상태인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력 손실의 원인, 유형, 정도에 관한 통계 수치들을 나열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으며, 이러한 신체 결함이 농인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문가들은 (청력 손실이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에게는 ‘결함 혹은 결손’이 없다고 생각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공동체 내에서 다른 문화 집단 내에서처럼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와 필요들이 만족되고 충족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농인들은 자신들의 모임이 건청인 집단과는 다르다고 오랜 동안 인식해 왔다. “농 세계(Deaf world)”에서는 어떤 행동들은 용인되지만, 어떤 행동들은 용인되지 않는다. 미국수화사전에 실린 농인들의 ‘언어 공동체’에 관한 논의는 농인들을 병리적 상태로 보려는(병리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전통적인 관점을 단호히 거부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사전은 농인들의 삶, 즉 문화의 보다 심층적인 측면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1) 미국에서는 대문자로 시작되는 ‘Deaf’는 ‘농인들의 문화(Culture of Deaf people)’에서처럼 문화적인 측면을 언급하고자 할 때, 소문자로 시작되는 ‘deaf’는 ‘농 수준의 청력 손실 정도를 나타내는 청각학적 조건’처럼 병리학적 상태를 언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Deaf’는 ‘농’으로, ‘deaf’는 ‘농 수준의 청력 손실’ 혹은 ‘청각장애’ 등으로 번역하여, deaf person은 청각장애인, Deaf person은 농인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 농인은 문화적 측면뿐만 아니라 난청인보다 청력이 나쁜 청각장애인 범주를 지칭하는 경우도 많아 영어에서처럼 분명하게 뜻을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3) 공동체

농인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 특성들을 갖고 어떤 사건들에 집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전국 단위의 농인들의 모임이 존재한다. 이러한 큰 규모의 모임 외에도 소규모 청각장애인들의 모임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청각장애인들에게, 특히 농인들에게 공동체(deaf community)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이며, 이 공동체를 다른 모임과 구분 짓는 특성은 무엇인가?

공동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동체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각 공동체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목표를 갖고 있다. 목표의 예로는 고용 평등, 더 나은 정치 참여, 더 나은 공동체 서비스 등이 있을 수 있다.
- 공동체는 특정 지리적 위치를 점유한다(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공동체의 지리적 위치는 공동체가 활동하거나 기능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삶과 책임을 조직해 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는다. 교도소나 정신 병원과 같은 기관들은 일군의 사람들을 특정 장소에 묶어 놓을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매일 매일의 삶과 일과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모임을 공동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공동체는 마을이나 부족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작고 폐쇄적인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산업화된 사회처럼 복잡하고, 여러 작은 모임들이 합해진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협력할지라도 공동체 내의 다양한 집단 간에 갈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공동체 내의 어떤 모임에서의 지위가 낮거나 소수 집단이어서 힘이 없는 경우 더 커질 공산이 크다. 대표적인 경우가 뉴욕에 살고 있는 흑인, 푸에르토리코인, 유대인, 신교도들 사이의 반목이다. 이들은 주거 문제와 같은 이슈에 함께 대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집단에는 이익이 되지만, 다른 집단에는 그렇지 못한 문제에는 갈등을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와 문화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문화는 자신들만의 언어, 가치, 행동 규칙, 전통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서 배운 행동들의 집합을 말한다. 한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자란다는 것은 해당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따르며, 한 개인의 성격과 행동은 해당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어떤 문화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나중에 다른 문화의 언어와, 가치, 삶을 배운다면 새로운 문화에 문화 적응(enculturation)한다고 말한다.

이에 비해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고,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어떤 책임을 느끼고 이를 생활 속에 반영하는 일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조그만 뉴잉글랜드라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문화는 이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보다 큰 사회의 문화와 동일하다. 그리고 뉴욕이라는 큰 도시의 경우도 서로 다른 문화 집단을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 집단의 신념과 행동 방식을 따르지만, 이들은 자신이 일하는 보다 큰 공동체의 일원일 수 있고,

푸에르토리코인이 아닌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회 생활을 해나가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한 개인의 신념과 행위는 주로 자신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만, 직업 생활과 많은 사회 활동들은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용어 사용에 비추어 보건대, “농 공동체(deaf community)”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Wilcox, 1989). 지금까지 ‘청각장애 혹은 농’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되어 왔다. 하나는 청력검사 결과, 농 수준의 청력 손실을 보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다른 하나는 농 문화(Deaf culture)의 한 구성 요소로서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농인들은, 농인이 아니지만 농인들과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면서, 농인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 공동체(deaf community)는 특정 지역에서 살면서, 모든 구성원이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농 공동체(deaf community)는 농인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청각장애 공동체의 목적을 지지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농인(Deaf people)과 함께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구성원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농인들의 문화는 농인처럼 행동하고, 농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농인들의 신념을 자신의 신념을 삼으며, 농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를 분명히 나타낸다.

4) 농 문화의 특징

먼저 농 문화의 몇 가지 확인 가능한 특징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농(deaf)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농인(deaf person)은 누구인가?

농인은 농 부모 가정의 자녀들처럼 태어나서부터 농 문화 속에서 자랄 수도 있다. 이들은 태어난 이후부터 부모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부모의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획득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속한 문화 집단의 신념과 행동을 배운다. 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농 부모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많은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문화적/언어적 모델이 되어 주고, 나중에 농 문화의 일원이 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농인이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청력 손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력 손실 정도에 어떠한 하냐는 농인의 기준이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기준은 다른 농인과 같은가, 다른 농인처럼 행동하는 가이다. 농인들은 흔히 자신의 농인 친구의 청력 손실에 대해 세세하게 알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친구가 전화를 사용할 정도로 청력이 좋다는 것을 알고 놀라기도 한다.

그러나 농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농인들의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s)이다. 이 가치가 농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가치롭다고 생각할지를 결정한다.

농인들이 가치를 두는 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농 문화에서 분명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는 수화(Sign Language)이다. 모든 농인들이 수화를 모국어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모든 농인들이 수화를 1차 언어로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은 아니다. 주류사회의 언어(건청인의 언어)를 1차 언어로 사용하면서 농인으로 문화 적응한 경우도 많다. 모든 농인들이 수화에 모두 동일하게 능숙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농인들이 수화를 소중히 여기

고, 수용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농인들이 수화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수화 사용을 선호하는 농인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특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수화의 사용으로 인해 농인들이 주류 사회의 언어로 말하는 주류 문화로부터 소외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농인들과 어울리고, 정상 언어 사용자라는 능력감을 심어주기도 한다.

수화는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을 의사소통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신성할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한다. 손은 일상의 수작업과 몸짓, 수화에 사용되며 수화가 아닌 다른 의사소통 형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농인들은 손짓이 일종의 시각적 의미를 전달하여야 하며, 발화 암시법(Cued Speech)과 같은 손의 ‘어리석은(nonsense)’ 사용은 강력하게 반대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농인들은 흔히 수화를 자신들이 묘사하고 있는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수화의 실제 어원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으며,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수화를 그렇게 하는 데는 나름대로 까닭이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농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말(주류사회의 음성 언어)과 거리를 둔다. 일부 농인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파티나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농인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에서 말하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농 문화 측면에서는 말하기는 적절한 행동이 아니다. 농 문화 속에서 자란 아동들은 수화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입 움직임 정도로만 입을 움직인다. 과장된 말하기 행동은 품위 없는 행동이며, 다른 농인을 놀리려고 할 때 하는 행동으로 해석한다.

종합적 의사소통(Total communication)과 동시적 의사소통(Simultaneous communication)이 대두되면서 많은 농인들은 입을 다물고 수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농인들도 있지만, 수화를 하면서 과장되게 입을 움직이는 것을 농인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고 입을 움직인다는 것은 농인들에게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한다. 말은 전통적으로 농인들에게 자신들의 언어를 대신해서 사용하도록 강요되어 왔기 때문에, 농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자신들의 언어로 다른 사람과 심도 있고, 편안한 의사소통을 하려는 욕구를 부인하고 별하려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말하기에 대해 농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며, 농인의 관점에서, 보다 정확하게 말할 줄 아는 건청인들과 완전히 똑같은 수는 없다고 본다.

모든 소수 집단들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동일한 문화 혹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유대와 가족 간의 유대를 강조한다. 농인들이 다른 농인들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농인들이 예배가 행사가 끝나고 오랜 동안 삼삼오오 모여 늦게까지 이야기하거나 식당에 사람들이 텅텅 빌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농인들이 마음이 맞는 다른 농인들과의 만남을 즐기기 때문일 수 있다. 이들은 동일한 문화적 신념과 태도를 공유한 다른 농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지와 신뢰로운 만남이 가능하다고 느낀다.

게다가 어떤 경우는 다른 문화 구성원들과 만난다는 것이 예배나 체육행사 등에서만 가능하다. 농인 동료가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농인들의 경우가 이렇다. 이렇게 농인들이 편안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사회적 만남을 십분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5) 농인과 소수언어 사용집단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농 문화에서 지지하는 이중언어 접근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소수언어 사용자 집단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이들 집단 구성원들이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한 채 주류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많이 언급한다.

소수언어 사용자 집단과 농인 집단 사이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두 집단 모두 차이(difference) 때문에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고, 개인적으로 모욕적인 호칭으로 불린 경험이나 괴롭힘을 받았거나 왕따(social exclusion)를 당한 경험이 있다. 집단 차원에서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험을 했다. 주류 사회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인종 차별과 유사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환경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농 아동의 경우 1차 언어가 유창하게 발달하는 경우가 적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이 자신감을 갖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산출할 수 있는 언어에 접하게 된다. 유창하게 발달한 1차 언어를 소유한 소수언어 사용자 집단과는 분명하게 다른 점이다.

이들은 자신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의 지원, 의사소통의 용이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주류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감내해야 하는 자기들만의 공동체 결성, 가입 및 유지라는 선택과, 주류 사회로의 통합이 용이하지만, 차별과 편견 속에 생활할 가능성이 크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주류 사회 속의 생활이라는 선택을 놓고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Tony, 1997).

6. 장애인 Focus Group 면담 결과

1) 시각장애인 면접 결과

면담자 : 오늘 모이자고 한거는 저희가 올해 뭘 하고 있냐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정안인과 달리 다른 형태의 문화를 즐기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즐기는 문화가 뭔가, 장애인들이 올해 어떤 법률이,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장애인이 어떤 문화며 일상생활에서 차별하면 안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2006년에 유엔에서 만들어진 권리협약, 유엔에서 인권에 관련된 국제문서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2006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이 있어요. 그 협약에서 보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차별하면 안된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문화권. 장애인은 별도의 문화. 정안인이나 비장애인이 갖지 못하는 별도의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그 중에는 청각장애인의 수화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별도의 문화가 있는데 이를 존중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게 뭐냐면 학문만이 아니고 지금 유엔에 가입된 모든 나라에서 장애인들의 별도의 문화, 장애인들만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에서 그런 문구를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궁금했어요.

장애인들만의 문화가 있을까. 그런 유엔에서 결의됐다고 그러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나라상황은 다른 나라는 농문화는 있더라구요. 청각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많이 갖고 있는 농문화는 있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문화는 별도로 정리해둔 건 없더라구요. 저희가 장애별로 그룹별로 인터뷰를 하면서 장애인들만의 문화가 있을까 이런 걸 알아보려고 사실 오늘 왔어요. 부담갖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 드릴텐데 평소에 생각했던 걸 말씀해 주시면 되요. 참, 성함 제가 몰라서 말씀해주세요. 먼저

김○○ : 저는 김○○입니다.

면담자 : 아, 예 고맙습니다.

이○○ : 이○○이요.

박○○ : 저는 박○○이요..

송○○ : 송○○.

정○○ : 정○○이요.

면담자 : 여쭙볼게요. 평소에 살아오면서 정안인들하고 다른 생활습관 아니면 정안인들하고 다른 생각 일상생활하면서 아, 난 이건 정안인과 좀 다른 생각이다. 그런 게 있었나요?

김○○ : 생활전반적인건가요?

면담자 : 그렇죠. 예예. 불현듯이 물어봐서 죄송한데.

김○○ : 저 같은 경우는요. 정안인분들 같은 경우는 보이시니까 물건을 아무데나 놔두셔도 보이니까 찾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꼭 어떤 물건을 어느 지점에 딱 나누는 그런 습관이 있지요. 왜냐면 금방 찾기 위해서.. 리모컨이나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 : 가끔 부모님들이 오시면 전쟁터죠.

면담자 : 근데 정기적으로 정안인들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바꾸잖아요. 인테리어도 바꾸고,

김○○ : 웬만해선 저희는 안 바꿉니다.

이○○ : 이사가지 않는 한은.

면담자 : 시각장애인들은 바꾸는 게 취약이겠네요.

김○○ : 누가 임의대로 시각장애인 동의 없이 바꿔놓으면 짜증나요.

면담자 :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풀려고 바꾸거든요. 새로운 거 사다가 걸어놓고

이○○ : 물건도 혼자 옮기고..

면담자 : 진짜 다른 시점이네요. 뭐. 살아가면서 습관이라든가 관습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정안인들은 잘 모르는 관습이라든가.. 이런거..

김○○ : 관습.. 습관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시각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눈을 찌르는 습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 지금도 있어요.

면담자 : 자기가 자기 눈을 찌르는..

김○○ : 그러죠 뭐 이런식으로.. 저도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 : 저도 그런 사람들만 보면 그 손 똑똑 쳐 주는데...

면담자 : 아--하 그래서 저 분 그러셨군아.. 저는 그냥 무심히 봤는데..

김○○ : 그런 습관이 특히 약시자들 말고 하나도 안보이는 사람들인 경우 그런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 눈이 가끔 빠곤하고 간질간질 할 때 눌러주면 시원하고 좋더라구요.

박○○ : 병원에서 그러는데 그것은 아파서 그런 것이지. 시원한 것은 아니래요.

면담자 : 그럼 눈에 불편함 때문에 그런거예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박○○ : 아 그것은 습관이 아니래요.

김○○ : 처음에는 불편해서 그랬겠지만 나중에 습관화 된거죠

송○○ : 그런것도 있지만 사람들 만날 때는 눈을 만져보게 되더라구요. 안보이니까 뭐 묻었을까봐 만져보게 되더라구요.

이○○ : 의안 같은거 하면 눈꼽이 많이 끼니까

김○○ : 그리고 눈꼽은 정말 많이 낄까?

면담자 : 그럴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자기 눈은 자기가 못 보잖아요. 정안인들도 자기 눈은 자기가 못 보기 때문에 정안인들이 사람 만날 때 거울을 한번 보는 거와 똑같네요.

송○○ : 가끔 지적을 당하니까요. 어떤 때는 이제

정○○ : 의안 빼놓아졌다가..

김○○ : 의안도 의안이지만 말씀대로 거울을 보듯이 편한 사람 만날 때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약속이 있다든가 그러면 옷도 한번 만져보고 뭐 묻었나?

박○○ : 다른 분들하고 식사할 때 반찬에 손이 못가고.. 가까운데만 가고 안 보이는 사람들끼리 식사하면 흘리는 거 상관없이 편한데 멀리 있는 곳까지 못가요

송○○ : 그래도 저희는 제일 좋은 게 비벼먹든지 말아먹든지

정○○ : 비빔밥 아니면 국수 이런 걸로 한 그릇으로 해결할 수 있는걸 좋아해요.

면담자 : 제가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아무개씨 누님 동생이 결혼을 했거든요 비싼 뷔페집에서 갈비탕이 나오더라구요 원래 뷔페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시각장애인이 많이 오신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많이 오시니까 우리 같은 정안인은 뷔페를 좋아해요 골라먹거든요. 먹고 싶은 것은 많이 가져오고 먹기 싫은 것은 치워버리는 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구요. 맞아 시각장애인은 말아먹는거

송○○ : 잘 말아먹어요. 원래

면담자 : 맞습니다. 제가 여의도로 이사 왔는데 이사오기 전에 가끔 식당에 가보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말아서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아서먹으면 소화가 잘 안된다고 하잖아요.

이○○ : 예 위에는 안 좋아요.

김○○ : 우선 편하니까

정○○ : 또 그런 분들이 빨리 드셔요

면담자 : 그러니까 말면 빨리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속병이 많지 않을까요?

이○○ : 많아요

박○○ : 그래도 말지는 않더라도 밥하고 국하고 따로 먹으면 옆에서 흘리고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다른 반찬을 뭐 먹어야 하나 것갈로 먹으면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이○○ : 특히 깻잎 같은 것은 한 장씩 떼먹어야 하니까 아주 싫어요.

송○○ : 제일 가기 싫은 곳이 한식집 같은 데죠.

김○○ : 제일 좋은 곳이 중국집 뷔페 코스요리예요 개인접시가 나오니까

이○○ : 개인접시에 돌아다니면서 다 덜어 주잖아

면담자 : 정안인들과 다른 일상생활이 그러니.. 혹시 육아라든가 애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그..

정○○ : 여기 애 키우는 사람이 없어요.

면담자 : 아 죄송합니다. 결혼을 다 하셔서

김○○ : 들은 얘기는 할 수 있지 않나 부부라든가

면담자 : 청각장애인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듣지 못하니까 밤에 경기를 해도 못 들으니까 애손하고
엄마 손하고 묶고 자요. 바둥거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계가 발달해서 소리가
나면 진동으로 바꾸어 주는 기계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기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애가
자다 경기를 하면 집에 듣는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손을 묶고
잡았어요. 시각장애인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육아라든가 일상생활이 있을
거라고 봐요.

김○○ : 먼저 카드를 내밀면 계세요 우리도 시각장애인인데..

면담자 : 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송○○ : 조카 어릴 때 보고 못 봐가지고

김○○ : 시각장애인이라고 특별히 놓아처럼 줄을 묶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시각에 문제가 있어
아이를 키우려 하면 혼자 키우는 경우는 별로 없고 이모나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에게 맡겨
키운다든가 요즘에는 활동보조인하고 같이 키우거나 가정에서 부모님하고같이 키운다든지.
저희들이 예전에는 안마사 생활들을 많이 했잖아요. 안마사 생활들이 한 업소에 들어가면
100일을 일을 하고 나와야 하니까 스스로 키우는 것 보다는맡기는 문화가 많았죠.

면담자 : 안마사 생활하게 되면 출퇴근이 아니고.

이○○ : 예 양육비를 지불하면서 맡기는 거죠 부모님께 드린다든지..

김○○ : 그게 더 특색 있는 문화라 할 수 있겠죠.

이○○ : 양육비하고 생활비를 같이 드리는거죠.

송○○ : 그런 것은 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키우다보니까 엄마 아빠가 가도 할머니만
쫄쫄따라다니고

정○○ : 애가 자란 후에도 엄마아빠는 돈 버는 기계로 알고 정이 덜하죠

김○○ :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대부분 맡기고 부부가 양쪽 시력이 없으면 대부분 맡기고
한쪽이나마 시력이 있으면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키우는 거죠.

면담자 :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만 활동보조인하고 갈등은 없어요?

이○○ : 있죠.. 많아요. 활동보조인 몇 번 바꾸셨죠?

정○○ : 저희는 많이 바꿨어요

면담자 : 왜 바꾸셨어요?

정○○ : 교육 받았을 때는 그야말로 어디 움직일 때 하는데 현장에 와서는 그게 아니거든요.가사도 도와주어야 하고 외출할 때 도와주어야 되는데 저희는 청소를 잘 해달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거예요.

김○○ : 시간만 채우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심지어 국가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내가 얼마를 줄테니까 한 걸로 하자. 자기가 100시간 하면 60만원이니까 20만원 줄테니 시간은 한 걸로 하자 이런 분들도 계시다 하더라구요.

면담자 : 시작초기인데 그러면 안되는데..

송○○ : 동굴이란 것이 생겼어요.

면담자 : 동굴이요?

송○○ : 동굴이라고 휴대폰에 찍는 게 있어요. 카드하고 이게 출근하면서 찍고 퇴근하면서 찍어야지 체크가 된대요

면담자 : 그 프로그램이 동굴이예요?

김○○ : 1월달부터 시작되었는데 위치 추적이 안되니까 사실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찍으면...

정○○ : 그런 게 있어서 구청에서 공문이 왔더라구요. 장애인들이 찍으라고

면담자 : 시행초기라.. 시간도 많이 늘어나야 되겠네요.

송○○ : 시간도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고

김○○ : 시간적으로 좀.. 질문내용이요 시간을 배당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나오더라구요. 보건소에서 나오는데 정말 이걸로 어떻게 배당을 할까? 예를 들면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 시각장애인에 필요한 질문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신지체 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용변 못 가리는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질문을 물어보세요.

김○○ :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다 할 수 있다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하의 시간만 받는 거죠. 시간을 쓸 수 없는거죠

송○○ : 그러니까 쓸 때는 다 못한다고 체크를 하는 거죠.

김○○ : 그게 전혀 필요가 없는 질문이예요

박○○ :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써야 하는데..

면담자 : 예 맞습니다. 아직 활동보조가 사실은 이동 장애 휠체어 장애인들 중심으로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다보니 체크에 대한 질문도 그렇고 활용에 대한 정책이 안되서 그런것 같아요.

김○○ : 맞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쓰는 거죠.

면담자 : 재미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시각장애인들 모인 곳에 가보니까 젓가락으로 고스톱을 치더라구요. 정안인들이 즐기는 문화이지만 시각장애인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사용하더라구요. 이런 게 어떤 게 있나요?

이○○ : 스포츠 같은 경우 많잖아요.

김○○ : 우선 젓가락이라구요. 저희들 윗놀이 있잖아요.

이○○ : 윗판을 다 외워요.

김○○ : 윗판이 이름이 있다 하더라구요. 자리마다 젓가락은 1부터 0까지 있는데 그것을 뽑아서 1이면 도, 2이면 개 합쳐서 끝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말판을 다 외워서 윗놀이를 말로 하는 거죠.

면담자 :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외우셔야겠다. 고스톱은 어떻게 치나요?

김○○ : 고스톱은 화투에 점자를 찍어서 해요

송○○ : 그거하고 오델로하고 이런것...

김○○ : 냉장고 위에 있잖아.

김○○ : 지금 녹음은 되고 있는거죠? 다시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는거죠

면담자 : 믿어야죠. 나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기억을 끄집어내어야죠.

김○○ : 이게 오델로라는 것인데요.

면담자 : 저희가 사진 하나 찍어 놓을게요.

이○○ : 자석이예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여기 붙어요. 흰 것은 맨질맨질하고 검은 것은 거칠거칠해요. 이걸 만져가면서 해요.

면담자 : 그럼 이게 장기판?

이○○ : 아뇨 장기판은 따로 있어요. 저희는 없는데..

면담자 :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김○○ : 게임을 하는데요. 이게 기본자리거든요.

이○○ : 둘이서 하는데 너는 무슨 색 할거니? 나는 흰색 까만색 정해서 그 숫자만큼 가운데로 끼는 거예요.

면담자 : 아- 오목이랑 비슷하네요.

김○○ : 요거 5개를 모아야 하잖아요.

이○○ : 여기까지 다 놓았으면 남는 개수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흰색이 많으면 흰색이 이기는 거고 검정색이 많으면 검정색이 이기는 거예요.

면담자 : 오목하고 바둑하고 짬뽕된 거 같네요. 아 재미있겠다. 그럴군요.

송○○ : 오목을 알면 저것은 쉽다고 하던데요.

면담자 : 원리가 오목이랑 비슷해요.

김○○ : 대각선도 되고 직선도 되고 하니까

송○○ : 이 놀이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면담자 : 요거는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것인가 봐요

김○○ : 보는 분들도 할 수는 있죠. 같이. 어쨌든 흰 것과 우선 이걸 만져서 해야 하니까

이○○ : 보는 사람보다 시간이 더 걸리죠. 다 만져보고 해야 하니까

면담자 : 그러면 체육이나 스포츠는 어떻게 해요.

이○○ : 체육은 축구가 있고, 농구, 야구, 배구도 있고 올림픽 종목 중에는 골볼이 있고

면담자 : 얼마 전에 히딩크 감독이 청주에 축구장 만들었잖아요. 보니까 공에 소리가 나던데요

이○○ : 골볼이라는 것도 소리 나게 해서 넘어지면서 상대방에서 굴리는 공을 잡는 거예요. 배구

같은 경우는 네트 밑으로 공을 주고 받는거구요.

송○○ : 야구도 있고요

김○○ : 야구는 핸드볼 공으로 밑으로 굴립니다. 그래서 베트로는 치는데 그것은 전제조건이
약시자는 6명 전맹자는 4명이라는 비율이 있어요.

이○○ : 투수하고 포수하고 주고받는 신호도 있고

박○○ : 전맹자는 눈에다 안대라는 것을 끼고 해요

면담자 : 그러면 신호는 약시자들이 하나요?

김○○ : 투수는 반드시 안 보이는 사람이 던져야 하거든요

이○○ : 치는 사람도 안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공이 올지 모르니까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거예요

송○○ : 박수를 계속 치는 거예요.

김○○ : 투수가 '던진다라고 자--하면 포수가 어-이 하면서 박수를 4번 쳐요.

이쪽방향이다 이쪽으로 던져라 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 하는 의미로 박수를 4번
치는 거예요.

면담자 : 우리 정안인들은 손가락으로 수화처럼 다리 밑으로 손을 움직여요. 서로가 싸인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약시자들이 신호를
보내나 생각했어요.

김○○ : 아뇨 그건 아니예요. 투수는 반드시 전맹자만 되기 때문에

이○○ : 투수가 자--하고 던진다하면 포수가 어-이 하면서 박수를 3번 치면서 만약에
자기네들끼리 정해 놓고 볼로 던져라 스트라이크로 던져라 이러면 박수를 치기 전에 미리
말을 하면서 박수를 쳐요

김○○ : 그건 뭐 싸인인거고

송○○ :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도루가 없어요

면담자 : 맞아 도루라는 것은 공이 가운데 떠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안보이니깐 맞아요

박○○ : 저는 도루하면 다 돌아라고 하는 것인지 알았어요

면담자 : 하하하 그러겠네요.. 도루하면 잘못하다 아웃되겠네요

박○○ : 진짜 아웃시키기가 불가능하니까요 이쪽 신경써야지 저쪽 신경써야지

면담자 : 맞아요 맞아요

송○○ : 자원봉사자에게 박수를 쳤잖아요

김○○ : 런너 코치가 있습니다.

이○○ : 농구도 농구 골대 밑에다 방울 소리나는 것을 달아놓고 백코드 맞추면 1점 골대 맞추면
2점 집어넣으면 3점 이런 식이죠.

김○○ : 농구는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구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각장애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배구, 골볼은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송○○ : 그런 문제에서 잡고 하는 격투기 유도 이런 것은 해요.

면담자 : 아--격투기도 해요?

김○○ : 예 우리 시각장애인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신 분도 계십니다. 종목이 있어요. 유도하고 역기 이런 것들은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습니다.

면담자 : 그런 것의 규칙은 소리나게 정안인과 다른 규칙은 아니죠?

김○○ : 예 유도는 몸으로 하고 역도는 서서하는 것도 있지만 벤치프레스라고 누워서 드는 것 있잖아요. 그런 종목까지 있죠

송○○ : 탁구도 해요.

김○○ : 탁구는 올림픽 종목은 아니구요.

면담자 : 탁구 같은 경우는 공의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김○○ : 공에서 소리가 나요. 그런데 룰이 많이 틀립니다. 밑으로 굴려서 하는 거예요.

박○○ : 우리 초등학교때는 큰 공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일본경기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면담자 : 아- 그러니까 가능하죠

김○○ : 저희 학교에서는 탁구공에 구멍을 뚫어 그곳에 군번줄을 하나씩하나씩 딸아가지고 세네개 넣어 흔들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걸로 보는 사람들처럼 감각 좋은 사람들끼리 한 적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이지 규격화가 된 것은 아니예요

이○○ : 규격화는 네트 밑으로 하는 거지

송○○ : 정안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볼링 정도인데 볼링도 잡아줘야 하는 것이니까 잘안 되더라구요.

이○○ :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해요

면담자 : 볼링 해 보셨어요?

송○○ : 예 볼링은 하되 잘 안 되더라구요.

김○○ : 볼링 같은 경우는 옆에 난간이 있어서 그걸 하면 오히려 한손으로만 던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딸려요.

면담자 : 원래 볼링은 스텝이 중요하잖아요. 양손의 움직임과 스텝 하하하

김○○ :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점수가 덜 나오더라구요.

박○○ : 그 자리에서 하니까 점수가 덜 나와요.

면담자 : 그렇죠. 볼링은 손 움직임과 발 움직임으로 힘을 받는데..

김○○ : 요즈음은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볼특수라고 있습니다. 볼링은 잘 안쳐요

박○○ : 볼링은 또랑에 잘 빠지더라고요.

면담자 : 그렇죠. 볼링은 또랑사이에 높이가 너무 낮아서 잘못 던지면 잘 빠져요.

김○○ : 볼링은 스텝은 너무 많이 밟아서 미끄러운데까지 간적도 있어요. 너무 성큼성큼 가다가 난 거기에 기름이 쳐져 있는 줄 몰랐어요. 미끄러져 넘어져 완전 뺏었어요.

이○○ : 난 스키타다 구조되어서 왔잖아

면담자 : 스키 타보셨어요?

김○○ : 수상스키요

이○○ : 남들은 다 그냥 오는데 난 실력이 없어서

김○○ : 스키 타다 물 두세 번 먹으니까 힘이 쭉 빠지더라구요.

면담자 : 이런 생활하면서 비장애인들이 동일하건 다른 형태로 하시잖아요?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떠세요? 이런 게 필요해서 개발되긴 하지만 나름대로 유용하잖아요. 어떠세요? 유용한 거예요? 개선이 되어야 하나요?

김○○ : 개선보다는 오펜로라든지 장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오펜로 같은 경우는 복지관 같은 곳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저희가 사고 싶어도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하면서 물품들이 바로바로 제공되지 않아요. 고스톱을 친다면 화투를 사서 우리가 점자로 일일이 찍거나 비싼 돈을 들여서 찍혀있는 것을 사거나 해야 하는데 기구를 접하기가 어렵죠.

정○○ : 화투를 전자렌지에 돌려서 찍으면 잘 찍어진대요.

이○○ : 녹여서 따듯할 때 부들부들할 때 얼른 찍는 거예요.

박○○ : 많이해보셨구나. 전자렌지에 돌리면 완전 녹는 거 아니예요?

김○○ : 5초만 돌리라고 해요.

면담자 : 아 5초만 아- 시간이 있군. 아 맞아요. 오래 돌리면 플라스틱이라

송○○ : 작년엔 커피포트에 녹여서 했더니 물기가 많아서 안 찍히더라구요.

김○○ : 그럴 수도 있겠네요.

면담자 : 아주 재미있네요.

박○○ : 비비빅 아스크림이 윗가락 만들기 좋지

송○○ : 없으니까요.

면담자 : 어 진짜 그거는 어떻게 해요

김○○ : 그거는 주로 파는 분들이 계셔서 판매합니다. 나무나 쇠 예전에는 쇠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만원씩 팝니다.

면담자 :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정안인들과 다른 형태로 문화나 체육을 즐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다른 문화 우리 시각장애인들만의 문화가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김○○ : 특별히 정안인들과 다르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재미있어서 즐긴다는 거죠

송○○ : 옛날엔 녹음을 해가지고 정안인들이.. 책을 읽어줬거든요.

면담자 : 맞아 녹음테이프

김○○ : 요즘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하면서 스크린리더 화면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곳에서도 게임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스톱을 하면 자기 패를 읽어주면서 바닥에 깔린 패가 무엇인지 숫자로 읽어주면서 하는 거죠.

면담자 : 컴퓨터에 있는 게임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김○○ : 그렇죠. 예전에는 단순히 손으로 한다거나 직접 하였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하는 거죠

면담자 : 지금 사실은 방송과 통신 융합을 한다고 하고 2012년에 디지털 전화를 하잖아요.

2012년 이후엔 지금 이 TV가 삼성 거 아닐로그죠.

이○○ : 얼마전에 그거 하고 갔는데.

면담자 : 아마 컴퓨터 지원을 받아야 할 거예요. 지원을 받거나 깨끗한 화질은 필요가 없으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정안인들 같으면 깨끗한 화질을 원하면 이 TV 버려야 하거든요.
2012년이면 아날로그가 종료가 돼요 2013년이면 디지털로 바뀌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이
되요. 사실 방송과 통신이 융합이 되고 디지털화 되는 것은 깨끗한 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방송 신호를 디지털로 전환을 시키면 신호가 남는데요. 예를 들어한 주파수를
지금은 틀고 있지만 지금은 아날로그라서 그런데 디지털로 전환을 시키면 남는 주파수로
아까 말했던 게임이라든가 정보검색, 온라인 banking에 남는 주파수를 이용을 하거든요.
방송과 통신 융합프로그램에서 아이팟TV가 그런 거예요. 그럼 불편해질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들이...

김○○ : 시각장애인들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면담자 : 우리 건청인들은 좋아요 정안인들은 TV보다가 아 텔런트 옷 멋있네 그러면 리모컨으로 옷
구매 누르면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통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게임애기해서 그래요

김○○ : 맞습니다.

면담자 : 그래서 그런 생각을 여쭙보고 싶어요.

박○○ :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라디오채널 찾기도 불편하더라고요.

면담자 : 그렇죠. FM으로 전환되면서 주파수 많아지고 그렇죠.

김○○ :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하면 대부분 텍스트로 되어 있나요? 그런
인터넷상으로 그런 사이트만 스크린리더가 읽어주는데 요즘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면
그림도 있고 그래픽도 있고 그러다 보면 컴퓨터가 다운됩니다.

면담자 : 아-스크린 리더가 다운돼요?

김○○ : 인식을 못하니까 글자가 아니니까 요즘에는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면담자 :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것 때문에 6개월 동안 1인
시위하면서 방송환경에서 장애인들의 접근 특히 시각장애인들 접근을 위해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화면해설 TV에서 화면해설 있는 것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선을 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 만나고 있는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어떤
내용을 하고 담고 있냐면 영화에서 화면해설 특히 외화는 정말 어렵잖아요. 청각장애인은
한국영화가 취약이고 시각장애인은 외화가 취약이잖아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이 융합되면서 부가서비스가 많이 늘어날수록 장애인들에게는 취약한데 이걸
장애인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문제 세 번째는 저작권 우리나라에 매년 5만종에
가까운 책이 출간되는데 저희는 통계밖에 모르는데 통계에 보면 그중에 2%만이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게 녹음이라든가 점역으로 바뀐다든가 보통 책이 출간되고 6개월
이후가 되어야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라든가 녹음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김○○ : 맞아요 맞아요

면담자 : 그래서 법을 바꾸는 게 뭐냐면 출판사는 책을 납본과 동시에 텍스트 파일까지 동시에
납본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법을 바꾸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들도 문화 시설

연극을 본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야구장에 간다든가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게 좋을지..

김○○ : 야구장은 예전에 라디오 중계는 없더라도 잠실에서는 자체 중계를 했어요.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라디오 채널이 요즘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라디오 중계는 아니더라도 엘지면 엘지. 두산이면 두산 자체방송을 했어요. 그윽면 2004년도까지는 했는데 2005년부터 안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대충 감은 알죠. 우리가 응원하는 팀 인지 저쪽 응원하는 팀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는데 그래도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죠.

면담자 : 야구장만이 아닌 다른 경기장에도 마찬가지로겠네요.

김○○ : 그렇죠. 아쉬운 것은 했다가 안하니까

면담자 : 맞아요. 예전에 저도 예전에 방송 들었어요.

박○○ :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뭐든 지 생활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4호선이 방송 끝지예요. 잘 안 들려요. 이상하게

김○○ : 4호선도 그렇고 5호선도 터널 지나 역과 역사이 소음이 너무 커요.

면담자 : 5호선이 커요.

박○○ : 4호선도 바뀌었는데 너무 커요.

면담자 : 5호선 소음 많이 줄었는데 처음에는 웅웅.. 지금도 너무 커요.

김○○ : 강서쪽으로 갈수록 심한 거 같아요.

박○○ : 위로 가면 종로 쪽으로 갈수록 시끄러워져요

김○○ : 구간마다 열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유독 강서 쪽은 그래도 시끄럽죠.

박○○ : 저희는 동대문운동장에서 갈아타는데 종로3가 을지로3가부터 쪽 시끄러워요.

면담자 : 아 시각장애인은 좀 예민하겠다. 소리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장애인 문화나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영화는 자주 보러가세요?

송○○ : 영화는 가끔 가는 데요, 한국영화만 골라 보는 거죠.

면담자 : 한국영화는 대사밖에 안 들리잖아요?

이○○ : 보이는 사람을 데려가야죠.

김○○ : 제가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가 있었냐면 96년도에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가 있거든요 8월의 크리스마스가 1시간 10분정도 한석규하고 이야기하다가 후반부 30분 정도는 대사가 없어요. 저는 스피커 고장난 줄 알았어요.

면담자 : 저는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두세번 봤어요. 그 분위기 심은하하고 한석규씨 표정들이 너무 좋았어요.

김○○ : 더구나 같이 갔던 분들도 너무 열심히 보시고 처음에 울고 그러는데 그런 분한테 지금 어떻게 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박○○ : 영화라는데 그럴더라고요. 조금 몇 차례 물어보면 신경질 내고 그러더라고요.

이○○ : 우리는 그게 목빠지거든.

송○○ : 영화 보러 가서 옆에 사람이 잘 설명해주면 좋는데 대사만 듣고 앉아있으면

면담자 : 저도 사실은 해설 봉사 해봤는데 전문 봉사자가 아니면 영화에 빠져 버리면 잊어버려요.

박○○ : 어떤 때는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요

면담자 :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2000년도에 장애인 영화제를 제가 만들었어요. 장애인 영화제 그것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들 정안인들이 불만이 많아서 별도의 시스템 FM시스템을 통역기로 쓰면 문제가 없어요.

김○○ : 그렇죠.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개봉을 했을 때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면담자 : 그러니까 그래서 장애인차별법을 바꾸고 있어요. 국회를 처음엔 안 들어먹혀 설득하고 있는데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어요. 개봉과 동시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전 영화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영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국회가 약간은 들어먹히고 있거든요.

김○○ : 그와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텔레비전 재방송을 통해서 화면해설을 보고 있거든요.

면담자 : TV같은 경우 재방송이면 다시 편집본이기 때문에 잘리고 오디오도 상태도 안 좋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박○○ : 많이 불편합니다.

이○○ : 불편해도 할 수 없어요.

송○○ : 저는 텔레비전 잘 안 봐요. 예전에는 드라마 좀 봤는데

면담자 : 다른 분들 보면 텔레비전 보는 게 낙이라고 하시는데..

김○○ : TV보는 것은 낙이 아니예요. 저는 음악 듣는 게 낙이예요.

면담자 : 그럼 라디오 방송 들으시나요?

박○○ : 아니예요. 시디나 음악 모아서 들어요.

김○○ : 저는 tv는 열심히 보는데 늘 아쉽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영어로 뉴스나 할 때 외국인 나왔을 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은데..

면담자 : 라디오에서 해주잖아요.

박○○ : 옛날에는 한때 9시 뉴스를 한번은 영어 나오고 한번은 우리말 나오고 해줬던 것 같은데

면담자 : 아 예 가끔 해요.

김○○ : 근데 9시 30분 넘으면 라디오는 끊습니다. 그 이후에는 못 들어요.

송○○ : 또 예전에 지방에 살다보면 지방뉴스를 하기 때문에 톱뉴스를 지나고 지방에서 딱 잘라버려서 듣고 싶은 뉴스도 못 들어요.

이○○ : 그것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정안인들도 마찬가지로이니까 지역뉴스로 바뀌니까

면담자 :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9시에 자막방송을 하는데 지방뉴스만 자막이 푹 끊겨요.

청각장애인들 열받죠. 지방뉴스 돌아가면 자막이 끊겨서 맞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인터뷰할 때 예전에 한국말로도 해줬어요. 근데 점점 영어화 바람이 부는지 점점 자꾸만 자막으로 처리하고 말더라고요.

김○○ : 자막처리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박○○ : 가끔 이제 kbs1 같은 경우 아침 연속극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속극 한 다음에 주말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오늘은 뭐에워하고 하면 시간은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면담자 : 아--하 맞아맞아

박○○ : 예를 들어 전국노래자랑을 몇 시에 뭐하고 하면 이것은 글씨로 나오더라고요.

김○○ : 그것도 그렇고 스포츠도 어떤 구장소식 대표적인 구장 소식해준다음에 나머지는 자막으로 나오죠. 나머지 3구장은 모르죠.

면담자 : 아, 그렇구나. 이걸 조금만 신경써주면 될텐데

박○○ : 그것을 시각장애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자막으로 획 날려버리더라고요.

김○○ : 정말 점수만 알려줘도

면담자 : 인식의 문제거든요 사실 정안인들은 말보다 그래픽을 처리하는게 멋있게 보이거든요

박○○ : SK와 두산 애네들이 1, 2위면 나머지는 그 팬들은 뭐하라고 몇 대 몇 말 안하고 승부가 어떻게 됐다 이것만 말하고 점수는 말 안하고..

김○○ : 어떤 경우는 한 구장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면담자 : 음 아주 사소한 건데

김○○ : 그렇죠 정말 해결하기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도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면담자 : 인식의 문제죠 방송의 인식의 문제죠 알았습니다. 저희도 힘닿는 데까지 지금은 문화적 방송이며 영화며 접근하는데 장애인들의 벽을 없애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저희도 세세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 : 이제 세세한 부분으로 넘어가요? 하하

면담자 : 아노 저희 운동 단체 활동할 때요. 지금은 국회 설득하고 정부설득하고 법 바꾸는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김○○ : 아 예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면담자 : 당사자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장애인차별법은 만들어졌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못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개정을 할려고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 어떠세요?

김○○ : 저는 한 번은 제목을 보고 95년부터 98년까지 하이텔에 그쪽에 여자들이 많다고 해서 연극동아리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단체로 보러도 가고 관심도 갖게 돼서 제 친구랑 한번 대학로를 갔어요. 할일이 없어서 그런데 제목이 오늘은 웬지..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봤더니 판토마임이더라고요. 그래서 병 깨고 신문지 찢고 이런 소리만 듣고 왔어요. 그런데 연극을 보러 가도 어떤 해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해서 불편했어요.

면담자 : 그러면 영화나 연기나 텔레비전이라든지 시각장애인들도 참여할 욕구는 있어요?

김○○ : 그렇죠.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뮤지컬, 음악이 있어서 뮤지컬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자세한 설명들이 중간 중간에 설명이 안 되니까 좋아하면서도 어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면담자 : 참 할일이 많네요.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면 벽들을 깨나가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보세상 문화세상이잖아요.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정보 몰라도 되지만 지금은 저도 사실 인터넷이 안되면 놀아야 돼요. PC안되면 놀아야 돼요.

김○○ : 정말 작은 것에서 왜냐면 예전에 신촌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곳에는 천여명

오시는데 저도 점자 찬송가를 들고 갔는데 후보가 있잖아요. 후보가 있으니까 찬송가 몇 장을 부르든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들어보고 아는 찬송가면 따라 부르는데

면담자 : 큰 교회는 그런 게 있으니까 넘어가는구나.

박○○ : 왜냐면 거기 화면이 있으니까 빔 프로젝트 있고 하니까 안해요.

김○○ :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후부터 알려주더라고요. 그것은 몇 장 부르겠습니다. 애기만 하면 되는 건데..

면담자 : 아 화면에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는구나.

박○○ : 예 찬송가가 곡은 같은데 가사는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곡은 같은데 장수가 틀리는게 많아요

김○○ : 하여튼 그런 사소한 문제에도 벽을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송○○ : 점자 후보는 없고 일반 후보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정○○ :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교회를 많이 다니려 하질 않아요.

김○○ : 또 못 가게 되는 이유가 자꾸 시각장애인들을 벽을 보고 대해 가지고 화를 참는다든지..

면담자 : 아 맞아요. 인식의 문제요.

송○○ : 예전에 광명에 갔을 때 큰 교회를 갔어요. 등록을 하라했는데 등록을 안했어요. 그 다음부터 신경을 안써요. 그래서 예배 끝나 다 빠져나와가지고 기사님 전화해서 데려 오라해서 나왔거든요. 알려주지도 않고 그럴더라고요.

면담자 : 처음에 오시기전에 잠깐 여쭙본 게 있었어요.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라는 것을 쓰기 때문에 정안인들하고 소통이 안되니까 별도의 그룹을 형성해요 구락부라해요. 구락부에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화투도 치고 마작도 하고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 인만을 위한 별도의 모임이 있어요?

김○○ :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구락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시각장애인 사이트라고 해야 하나 예전에 BBS 넓은마을이나 아이뿌리처럼 시각장애인들만 할 수 있는 거고 전화사서함이라고 시각장애인들 정보죠 동문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에 어떤 서비스가 있다든지 신문 잡지 ARS서비스죠. 그거 말고는 직접 모여서 하는 것은 없죠.

면담자 : 이런 게 유용하게 쓰이나요? 일상생활에서

박○○ : 왜냐면 거기에서 이렇게 정보를 전해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송○○ : 신문 같은 것도 볼 수 없으니까 누가 와서 읽어주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면담자 : 저희는 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것 보다는 첨단 과학이나 기술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아직까지는 이른가요?

김○○ : 그렇죠. 저희는 특히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아직까지 텔넷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전에 사라진 프로그램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면담자 : 아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구요. 저도 오래전에 점자 배우긴 했는데 거의 13~4년 됩니다. 안 쓰니까 수화도 배우고 점자도 배웠는데 수화는 계속 쓰니까 청각장애인 만나니까 수화는 지금 할 수 있는데 점자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김○○ : 만일 추후에도 저희들이 사소한 것 까지도 불편한일 조사할일 있으시면 사서함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면담자 : 오프라인 모임인가요?

김○○ : 그렇죠. 오프라인 모임이죠. 거기 단체가 있는데 단체 회의 때 오시면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면담자 : 오프라인 모임 목적은 무엇인가요? 친목인가요?

김○○ : 친목도 있고요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 하고

면담자 :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모이나요? BBS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구요

김○○ : 정회원이 안되죠. 복지카드를 보여줘야 하죠.

면담자 :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아는 사람 께 도용하는 것은 양심상 안되고 정보를 제대로 모르겠더라고요.

이○○ : 수많은 드라마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거야?

김○○ : 복지관에서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올리는 거죠.

면담자 : 복지관 직원이나 장애인단체에서 관리자가 있어서 올리는 거죠. 복지관이나 장애인 단체는 DB들이 많잖아요.

오늘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 청각장애인 면접 결과

[20대 남학생 그룹]

진행자 : 지금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방○○ : 제가 수화를 잘 못하니까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가족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은 청인인가요? 농인인가요?

송○○ : 청인입니다. 형제는 없고 저 혼자입니다.

홍○○ : 청인입니다. 형제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청인이구요.

김○○ : 청인입니다. 동생이 둘인데 여동생은 청인이고, 남동생은 나와 같은 농인입니다.

방○○ : 청인입니다. 여동생이 있구요, 청인입니다. 저는 구화를 배워서 수화를 잘 못해요.

진행자 : 그럼, 수화는 언제부터 배웠나요?

방○○ : 학교 다닐 때부터인데, 고3때 이○○(농인)을 만나게 되면서 처음으로 수화를 접하게 되었는데 아주 진땀났었어요.

진행자 : 그렇군요.

박○○ : 청인입니다. 위로 누나가 한 명이 있고 제가 둘째입니다. 누나는 청인입니다. 한 살

위에요.

진행자 : 부모님이 청인이라서 의사소통에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어떤가요?

송○○ : 부모님하고 의사소통에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진행자 : 부모님하고 그럼 대화는 어떻게 하나요?

송○○ : 구화로 합니다. 그다지 불편하지 않아요.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님하고 구화로 의사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진행자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답답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나요?

송○○ : 네. (웃으면서) 별로 그런 거 없이 아주 시원하게 소통해 왔어요.

진행자 : (놀라는 표정) 오호, 그래요. 홍○○군은 어떤가요?

홍○○ : 저도 송○○이하고 같아요.

진행자 : 부모님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나요?

홍○○ : 구화로 의사소통이 아주 잘 되요.

진행자 : 그럼, 수화를 배운지 얼마 되지 않나요? 여기 대학에 오고 나서부터 수화를 배우게 된 건가요?

홍○○ : 네. 맞아요. 어려서부터 말(구화)로 의사소통을 해왔어요. 가끔가다 집에 전화도 하곤 했어요.

진행자 : 말(구화)을 상당히 잘 하나 보군요?

홍○○ : 그런 편이에요.

박○○ : (송○○에게 물어보다) 일상적인 대화야 그렇다 치고 속 깊은 대화도 정말 답답함이 없이 잘 소통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송○○ : 다른 사람하고는 불가능하지만 엄마하고는 가능해요. 엄마하고만 가능하지요.

박○○ :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요...

진행자 : 김○○군은 어떤가요?

김○○ : 있었어요. 아빠하고 대화할 때는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더러 소통이 되는 경우인데, 엄마랑은 아주 잘 소통이 됩니다. 어찌다가 소통이 안 될 때도 있긴 하지만, 문자를 보여주거나 천천히 말을 하면 소통이 잘 되요. 내 여동생하고는 아주 잘 통하고요, 남동생은 같은 농인이라서 수화로 100% 소통이 됩니다.

진행자 : 남동생하고는 수화로 대화를 하나요?

김○○ : 그럼요, 수화로 대화를 하지요. 아주 잘 통합니다.

진행자 : 남동생이 지금 몇 살인가요?

김○○ : 지금 15살이에요, 저보다 7살 아래죠.

진행자 : 그럼 본인은 수화를 언제부터 하게 되었나요?

김○○ :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수화를 모를 때에 어떤 선생님이 나에게 농인이냐고 하면서 물어 보길래 농인이라고 했더니 수화 모르냐고 그래서 수화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안녕하세요’ 라는 기초수화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나중엔 점점 더 수화를 잘하게 되었지요.

진행자 : 부모님도 수화를 할 줄 아시나요?

김○○ : 아니요. 수화를 모르세요.

진행자 :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하시나요?

김○○ : 구화로 하지요. 그러다가 소통이 안 될 때는 휴대폰에 문자를 써서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소통합니다.

진행자 : 방○○군은 부모님과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하나요?

방○○ : 저는 말로만 의사소통을 해요. 아주 잘 통해요.

진행자 : 부모님하고 의사소통할 때 전혀 불편하거나 답답한 적이 있었나요?

방○○ : 아니요, 없어요. 여동생하고도 말로 대화를 해요.

진행자 : 여동생하고도 잘 통해요?

방○○ : 여동생하고는 잘 안 통해요. 여동생하고 사이(지문자로 씀)가 안 좋아요.

진행자 : 여동생하고는 친하지 않다는 거죠? 여동생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방○○ : 중학교 1학년이에요.

진행자 : 박○○군은 부모님과 소통이 어떤가요?

박○○ : 엄마랑은 아주 잘 통해요. 일상적이고 간단한 대화는 100% 소통이 됩니다. 하지만 속 깊은 이야기는 문자로 하거나 필담을 통해서 합니다. 반면에 아버지하고는 도통 소통이 안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투리가 아주 심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서울로 이사 왔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사투리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지요. 거기에 반해서 엄마는 사투리를 썼지만 서울로 와서는 사투리를 버리고 서울말을 열심히 배웠지요. 그래서 엄마하고는 아주 잘 소통이 됩니다.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제스처어나 마임을 함께 사용해야 하지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문자로 보여주면 ‘아하~’ 하고 알아듣게 되곤 하지요. 대화하다가 간혹 이해가 안 되거나 못 알아들으면 (휴대폰을 이용해서) 문자로 보여주곤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하고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그 외의 대화는 불통입니다.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사투리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도대체 입모양을 통해서도 전혀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밥 먹었니?’ 등 아주 간단한 일상 대화는 알아볼 수 있어요. 누나는 수화를 좀 알아요.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문자도 쓸 줄 알고, 어느 정도 수화를 할 줄 알아요. 수화기초반, 중급반도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누나랑은 소통이 원활한 편입니다.

진행자 : 엄마랑은 수화로 하나요?

박○○ : 아니요, 구화로 합니다.

진행자 : 부모님이 농아로 낳아준 것에 대해서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나요?

박○○ : 그런 적 없어요. 엄마는 항상 나를 이빠 해 주셨고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내가 농인이 된 것에 대해서 엄마는 항상 나에게 미안해했어요.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안쓰러워 하셨어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나에게 미안해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나에겐 내가 농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원망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청인아이들이 말하는 걸 보면 그게 부러워서 나도 열심히 해서 말을 해야겠다고 맘을 먹고 열심히 구화연습을 했지요, 그래서 전에는 말을 잘하는 편이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수화를 배우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수화를 하게 된 건 4학년 때부터였구요, 차츰 수화를 구사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면서 중1때에는 완전히 숙달하게 되었지요. 그 이후로는 입을 꼭 다물고 수화를 하게 되면서부터 말하는 게 좀 떨어지게 되었지요. 간단한 문장이나 단어정도만 하게 되었어요. 수화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니까요. 엄마도 수화를 배우시고, 아빠는 문화적으로 문외한이고 하니깐 이해하는 편이죠,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왜 난 듣지 못하지? 왜 그런 거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는 아니고 아주 조금, 잠깐 든 적이 있긴 있었는데요, (내가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원망 같은 건 없어요.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구요, 전혀 후회 같은 거 없어요.

진행자 : 저의 부모님도 여러분처럼 농인입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아라는 이유로 집에서나 동네에서 다른 청인으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조롱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더군요.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는지요?

송○○ :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행자 : 다른 사람들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그런 경험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송○○ : 잘 모르는데요.

진행자 : 본인이 어렸을 때 농아라서 놀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송○○ : 아~, 놀림 받은 적 많았지요. 많았어요. 부모님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무슨 질문인지 이해했어요. 어렸을 때 청각장애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병어리’(박○○이 ‘병어리’라는 제스처어를 알려주자 곧바로 따라함, 그리곤 지문자로 씌)라고 놀리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그랬었어요. 그래도 별다른 대응이나 반응을 하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진행자 : 조롱하고 놀릴 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참기만 했나요?

송○○ : 네, 꼭 참고만 있었어요.

진행자 :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나거나 싸우지 않고 계속 참기만 했어요?

송○○ : 네, 계속해서 참고만 있었어요.

진행자 : 밖에서 애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걸 부모님한테 말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송○○ : 네.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진행자 : 그럼, 청인학교에서 농학교로 전학한 건 언제인가요?

송○○ : 중1때요. 공부하는 것도 잘 맞지 않고, 친구들도 계속해서 놀리고 해서 힘들어서 전학을 하게 되었어요.

진행자 : 그리고 나선 어땠나요?

송○○ : 괜찮아졌어요. 이전(청인학교에 다닐 때)에는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전학하고 나서는 자신감도 생기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진행자 : 청인학교를 다닐 때와 농학교를 다닐 때 차이가 어떤가요?

송○○ : 글썄요. 대답하기 어려운데요.

진행자 :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홍○○군이 얘기해 볼까요?

홍○○ : 전 나쁜 일이 많았어요.

진행자 : 나쁜 일이란 게 구체적으로 뭔지 말해 줄래요?

홍○○ : (곤란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머뭇거리다가) 욕도 하고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인공와우수술을 해서 머리에 기기가 달린 거하고 왼쪽 귀에는 보청기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웃기다면서 지우개(지문자로 씌)를 조각내서 나한테 던지기도 하고 놀려대곤 했어요. 병어리(지문자로 씌)라고 하기도 하고, 청각장애자라고 하기도 하면서 놀려댔어요.

진행자 : 그렇게 청인 친구들이 놀려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홍○○ : 기분이 나빴어요.

진행자 : 기분이 나빴다면 화도 나고 그랬을텐데요. 어떻게 했나요? 가만히 있었나요?

홍○○ :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주저하다가) 말할 수가 없어요.

진행자 : 말하기 곤란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홍○○ : 전 과거(지문자로 한 번 더 씌)에 아주 못된 아이였어요.

진행자 : 그게 무슨 뜻인가요?

홍○○ : 아주 못된 놈이라구요.

진행자 : 그래요? 말하기 곤란하면 말하지 않아도 되고.

홍○○ : 알겠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어느 날, 청인 친구가 쪽지에다가 ‘야, 애자 너 왜 사니?’라고 써서는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책상 위에 쪽지가 날아와서 ‘뭣지?’ 하고 펼쳐 보았는데 그렇게 써 있는 걸 보고 기분이 무척 상했지요. (웃음) 그런 일이 있고나서 쉬는 시간에 그 청인친구하고 다른 반 학생이 복도를 지나가면서 서로 마주보고 웃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나를 쳐다보면서 마구 웃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니깐 화가 나서 결국은 싸우게 되었지요.

진행자 :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그게 다인가요?

홍○○ : 그것만이 아니고요, 아주 아주 많이 싸웠어요. 복도에서 싸우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교무실(지문자로 씌)로 불려가기도 했어요. 나랑 청인친구랑 같이 불려가서 각자 따로 무릎 꿇고 있었어요. 난 농아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나를 부르면서 (책상을 손으로 땅땅 치면서) ‘왜 그랬니? 친구랑 왜 싸웠어?’ 하고 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싸우게 된 경위를 말씀드렸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알았다고 하시고는 청인친구를 야단치시더라고요. 나한테는 괜찮으니까 가보라고 하시구요. 청인친구만 혼을 내셨어요.

진행자 : 언제 청인학교를 다녔나요?

홍○○ : 초등학교 2학년 때 청인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진행자 : 그럼 청인학교를 졸업했나요?

홍○○ : 네, 청인학교를 졸업했어요.

진행자 : 그러면 청인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줄곧 청인친구들하고 계속 싸웠나요?

홍○○ : 네, 맞아요. 계속해서 싸웠어요. 참기도 많이 참구요.

진행자 : 학교생활하면서 마음고생이 많았네요. 지금은 어때요? 괜찮은가요? 마음은 편안한가요?

홍○○ : 네, 지금은 괜찮아요. (웃음) 지금은 아주 편안해요.

진행자 : 여기 대학에 오고 나서 편해진 건가요?

홍○○ : 맞아요. 청인하고 농인하고 같이 다니지만 청인 친구들이 농인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주니까 훨씬 편안해요. 좋아요. 농인 입장과 청인 입장을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도 하게 되고 청인들이 농인들이 듣지 못하니까 공부할 때 힘들겠구나 하는 등 농인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거 같아요.

진행자 : 집에서는 농아라서 청인형제와 달리 대한다던가 그런 일은 없었어요?

홍○○ : 없었어요. 예전에는 집안 형편(지문자로 씀)이 어려웠어요. 지금은 괜찮아졌지만요.

진행자 : 네, 그랬군요. 이번에는 김○○군이 얘기해 볼까요?

김○○ : 저는 좀 달라요. 전 괜찮았어요. 청인이 놀리는 경우도 있었고, 청인이 도와준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청인들은 나를 놀리고 조롱하고 그랬지만, 어떤 청인은 다른 청인하고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러는지 영문도 모른체 말이죠. 그렇게 내가 놀림을 받거나 조롱을 당하면 도와주는 청인들이 있었어요. 놀리는 청인은 적었고 도와주는 청인이 훨씬 많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게 도와주는 선배들이 있어서 편하게 놀 수 있었어요. 내가 농인이라서 말을 못하니까 종이에다가 적어가면서 의사소통을 했어요. 어찌다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청인을 만나면 놀림을 받거나 그런 적도 있고요, 어떤 때는 붙잡혀서 언어 맞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안 맞으려고 도망치고 그랬죠. 아는 청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쫓아오니까요. 도망치면서 전에 나를 도와준 청인을 생각해내고는 그 형 집에 가면 되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했지요. 그 집에 들어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형 둘이 나와서 나서니까 쫓아오던 청인 둘도 보고는 뒤로 내빼고 말았지요. 그렇게 도움도 받고 밥도 주셨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자랐어요. 일반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농아학교를 가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었죠. 07:40~

방○○ : 놀림을 받은 적이 없어요. 원래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일반학교를 다니고 소리를 잘 들었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금 알아들었어요. 칠판에 쓰는 거 받아 적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제가 못 알아들으면 옆에 짝꿍인 여자애가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종이에다가 적어서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같이 있다가 다른 데로 갔어요. 그 이후로 혼자 지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혼자서 지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진행자 : 그러면, 자랄 때 소리를 듣지 못해서 불편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요?

방○○ : 괜찮았어요. 조금 들을 수 있구요. 아침에 혼자서 통학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초등학교는

가까웠지만 중학교는 좀 멀었구요, 고등학교는 더 멀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게 힘들었어요. 고등학교 남자들만 다니는 학교였는데요, 일반학교는 나랑 안 맞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공부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수학이요, 그래서 공부라는 걸 조금 알게 되었어요. 시험도 봐주시고, 괜찮았어요. 이상입니다.

박○○ : 있지요. 농인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죠. 농인이라면 100%죠. 내가 사는 동네는 산이 많고 집이 적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놀리지 못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없이 나 혼자 있을 때는 놀리곤 그랬어요. 날보고 병어리라고 놀리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성격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놀린 자식을 붙잡아서는 직살나게 때주곤 했어요. 혼자서는 당해낼 수 없지만 마침 같은 동네에 사는 형이 내가 맞아서 울면 달려 와서는 혼내주고 그랬어요. 동네의 형이 와서 도와주다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날보고 놀리는 것도 사그라져 버렸고요. 또 한 번은 아이들하고 4 대 1로 붙었다가 엄청 울었던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려서 뭔지도 모르고 그랬었는데, 내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걸 동네 형이 알고 나서는 다른 아이들이 날 놀려 대는 걸 가만히 지켜보지 않고 혼을 내주곤 했어요. 그래서 날 놀리는 것들도 점차 사그라들었지요. 동네 친구 중에 나랑 동갑내기인 청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내내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누군가가 날 놀리거나 괴롭힐 때면 항상 날 도와주곤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내 누나를 좋아하게 되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난 참 운이 좋았던 거 같아요. 중2, 중3때쯤에는 아무도 날 놀리지 못했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날 놀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무조건 싸워댔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하도 유명해져서 그 소문을 다 듣고는 날 모르는 아이들도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는 날 건드리거나 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동네에서는 덩치 큰 형이 있으니까 그렇고. 농인이라면 누구나 100% 다 경험하는 일이죠. 누군가 병어리라고, 듣지 못한다고 하면서 병어리라고 놀려대면 전 가만 두지 않았어요.

진행자 :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김○○ : 있어요. 가끔씩 청인들이 뭐라고 물어보는데 듣지 못한다고 말하고, 아주머니들도 나한테 물어보고 그럴 때마다 듣지 못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소리를 듣지 못해서 시간을 놓치고 계속해서 잔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많이 불편해요.

박○○ : 요즘엔 진동시계도 나와서 굳이 소리를 듣지 않아도 일찍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게 있는 줄 모르나요?

김○○ :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홍○○ : 중요한 전화가 왔을 때, 어렸을 적예요. 지금은 괜찮지만, 어렸을 적에는요. 중요한 전화가 왔을 때, 엄마가 외출(지문자로 씌)하시기 전에 중요한 전화가 오면 잘 받으라고 하시곤 나가셨는데 참 난감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엄마는 집에 안 계시고 중요한 전화가 왔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끊었어요. 그랬는데 또다시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불편했던 적이 있어요.

진행자 : 또 다른 경험이 있나요?

홍○○ : (잠시 생각에 잠기며) 가끔가다 길을 가다보면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물어볼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하고 물어올 때 ‘전 잘 못알아 들으니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 청인이 다시 천천히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을 때 좀 불편하지요.

김○○ : 맞아, 맞아, 나도 그랬어.

홍○○ : 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청인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공부할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받아 적어야 하잖아요. 난 농아니까 옆의 친구가 필기한 노트를 빌려서 베끼고 했던 거가 불편했던 경험이 있어요.(고개를 끄덕이며)

진행자 : 송○○군도 청인들과 같이 학교생활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송○○ : 저 같은 경우엔,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거나 누구를 부를 때 듣지를 못하니까 누구를 부르는지 몰라서 항상 선생님을 주시하고 눈치를 보곤 했던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 타고 다닐 때였는데, 그 당시엔 아직 지하철이 없었을 때였는지라.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아줌마가 뭐라고 소리를 냈는데 난 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아무 것도 모른 채 가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고는 ‘왜 요금을 안내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금을 냈는데요. 그럴 때 소리를 듣지 못해서 불편한 경험이 있어요. 또, 지하철이 생기고 아직은 카드가 없었을 때인데, 복지카드를 받던 때였는데, ‘소리를 듣지 못해요’라고 하면,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경우에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진행자 : 음... 그런 경우도 있군요. 또 다른 경험은 없나요?

송○○ : 전화 올 때 등등 그런 경우도 있구요.

진행자 : 전화올 때 불편한가요? 텔레비전을 볼 때는 별로 불편하지 않은가요?

송○○ : 텔레비전은 자막이 나오니까 그다지 불편하지 않아요. 전화가 올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참 불편해요.

진행자 :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모두 자막이 나오지 않잖아요?

송○○ : 저는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아요. 드라마나 꼭 보고 싶은 프로만 몇 가지 정해서 봐요.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는 편이에요.

진행자 :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는 편이라니 공부를 대단히 열심히 했나 봐요? 독서를 많이 했거나요?

송○○ : (웃음)

진행자 : 방○○군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듣지 못해서 불편했던 점이 있나요?

방○○ : 전화를 받았을 때 ‘누구세요?’ 했는데 그냥 끊더라고요. 그리고, 현관에서 덩동덩동하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까 문 옆에 짐이 놓여 있는 거예요. 뜯어보니 옷이 있어요. 그렇게 소리를 듣지 못해서 힘들어요. 텔레비전을 볼 때

자막이 없어서 그냥 봐요. 소리를 들어도 몰라요. 노래가 나와도 몰라요, 그냥 보기만 해요. 컴퓨터도 소리를 크게 해서 듣고요. 공부할 때 자리가 뒤에 떨어져 잘 안들려요.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 통학하면서 걸어다닐 때 자동차나 버스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런게 불편했어요. 끝, 모르겠어요.

박○○ : 텔레비전은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엔 TV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동물의 왕국, 뉴스, 영화만 보고 나머지는 보질 않았어요.....만화를 아주 좋아했어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아마 어렸을 때 만화를 많이 봤을텐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차마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웃음).

진행자 : 어렸을 때 주로 뭘 하고 놀았나요?

송○○ : 피씨방(지문자로 씀, 구화와 같이)이요.

박○○ : 그 당시에 피씨방이 있었어요?

송○○ :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피씨방이 있었어요. 내가 사는 동네에는 집 가까운 곳에 피씨방이 있어서 거기로 놀러 다니곤 했어요. 다른 데는 가지 않았어요.

진행자 : 피씨방에서 어떤 게임을 했었나요?

송○○ :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하고 스타크래프트 했어요. 그 당시엔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진행자 : 친구들끼리 모이면 뭐하고 놀았어요?

송○○ : 친구들끼리 모이면 주로 수다를 떨었어요. 수다 말고는 없었어요.

진행자 : 주로 어떤 얘기들을 했었나요?

송○○ : 주로 학교에 대한 이야기하고, 기숙사에 대한 얘기들이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등등.

진행자 : 수다를 떨 때는 수화로 했나요? 구화로 했나요?

송○○ : 수화로 수다를 떨었어요.

진행자 : 어디에서 친구들을 만났나요?

송○○ :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등지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진행자 : 그럼 먹는 건 각자가 돈을 내서 먹었나요? 아니면 누가 한 톱을 냈나요?

송○○ : 그냥 각자 돈을 내서 사 먹었어요. 영화도 보러 가고요.

진행자 : 영화도 보러 갔어요? 어떤 영화인가요?

송○○ : 영화는 외국영화를 봤어요. 한국영화는 보러가지 않아요.

진행자 : 한국영화는 왜 보러가지 않나요? 재미가 없어서 인가요?

송○○ : 왜냐하면 자막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막이 있다면 한국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지만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해서 그냥 외국영화를 보러 가곤 했어요.

진행자 : 그럼 영화장르는 주로 어떤 취향이였나요? 액션인가요?

송○○ : 네, 맞아요. (웃음) 주로 액션을 봤어요.

진행자 : 여자들하고는 같이 안 갔나요?

송○○ : 여자들하고 갈 때는 애정 영화도 보러 가곤 해요. 남자들끼리 있을 땐 액션영화를 보러 가지요.

홍○○, 김○○ : (웃음) 맞아요, 맞아. 저도 그랬어요.

김○○ : 그래요, 여자들은 멜로영화를 좋아하고, 남자들은 액션영화를 좋아하죠. 맞아요.

홍○○ : 맞아요. 맞아.

진행자 : 홍○○군은 여자들하고 놀아본 적 있나요?

홍○○ : 저도 여자들하고 놀아본 적 있어요. 공기놀이(지문자로 씌)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리고 놀았어요.

진행자 : 청인들하고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였나요?

홍○○ : 필담을 했어요. 종이에다가 적거나 종이가 없을 땐 손바닥에다가 적어가면서 말이죠. 제가 예전에는 말을 좀 잘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건 그냥 말로 해도 잘 통했어요.

진행자 : 수다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홍○○ : (약간 쑥스러워하며) 어제 뭐 했니? 어제 뭐하면서 지냈니? 뭐 그런 거 얘기하곤 했어요.(웃음) 그냥 수다를 떠는 거죠, 뭐.

김○○ : 저는 청인들하고 같이 수영하러 다니곤 했어요. 날 놀리거나 했을 때 도와주었던 그 형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제스처어나 몸짓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집 근처 가까운 곳에 개울이 있어서 많이 놀았어요. 밤늦게까지 놀기도 했어요. 그렇게 놀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마구 혼내시더라고요. 왜 지금 들어오냐구요. 그래서 형들하고 놀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했지요. 그러면 엄마가 이해해 주셨어요. 그렇게 청인들하고 놀면서 지냈어요. 놀다가 얘기가 잘 안 통하면 노는 곳이 모래거나 흙바닥이니까 모래나 땅바닥에 써서 소통을 했어요. 농인들하고는 수화로 수다를 떠는 게 편하고, 청인들하고는 더러 소통이 안되면 손바닥에 글씨를 쓰거나 해서 통했어요.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농인들하고 놀 때는 수화로 하니까 편했구요. 청인들하고 있을 때는 좀 불편했어요. 잘 안 통해서요.

진행자 : 농인들이랑 놀 때하고 청인들이랑 놀 때하고 다른 점이 있었나요?

김○○ : 달랐어요, 청인들이랑 놀 때는 뭐랄까 좀 소극적이었다면, 농인들이랑 놀 때는 자신있고 적극적이었죠.

진행자 : 친구들하고 뭘 하면서 놀았어요?

김○○ : 놀구요, 피씨방 가서 게임하고요.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물폭탄 알아요? 물폭탄게임도 하고요. 아주 재밌었어요. 청인들이랑 어울릴 때는 놀기만 했어요. 수영하러 가거나 농구하거나 놀이터에 가서 그네도 타고 그러면서 놀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렇게 같이 놀러 다닐 때 놀리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다른 애들이 날 놀릴 때 날 도와준 친구들이라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놀고 있을 땐 날 놀리던 애들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냥 가곤 했어요.

진행자 : 어렸을 때 친구하고 뭐하고 놀았어요?

방○○ : 논 적 없어요.

진행자 : 그럼 집에 가만히 있었어요? 집에서 뭐 했어요?

방○○ : 집에 있었어요. 티비보고 만화책 보고 컴퓨터하고 그랬어요.

진행자 :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만 놀았어요?

방○○ : 일반학교를 다녀서 친구들이 나는 장애인이라고 차별을 했어요. 달랐어요. 맞아요.

진행자 : 친구가 없어요?

방○○ : 친구 있어요. 다른 대학에 갔어요. 친한 친구 3명 있어요. 문자로 가끔씩 연락해요.
중1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친구들이예요.

진행자 : 친한 친구들 만나면 뭐하고 놀아요?

방○○ : 가끔 가다 만나면 이야기해요. 점심때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남자애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놀지 못했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친구들이랑 다르게 놀지 못했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얼마 전에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가만히 있기만 하고 놀지 못한다구요. 그게 좀 달라요. 제가 외톨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몰라요. (슬픈 표정으로) 불쌍해요. 없어요.

박○○ : 청인들 만나서 놀 때랑 농인들 만나서 놀 때랑 달라요. 청인 친구들과하고 놀 때는 그 친구들이 수화는 썬병이니까 제스처어나 몸짓으로 소통하고 예를 들면 공이라고 했을 때 야구공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요, 축구공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놀았어요. 깊은 대화를 하지는 못했어요. 거기에 반해서 농인 친구들과하고는 몰려다니면서 별걸 다 해보았어요. 아주 속 깊은 얘기까지 나누기도 했지요. 아주 많은 경험들을 공유했었어요. 피씨방이라든지, 노래방, 담배, 여자에 대한 것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시시콜콜히 물어보고 그랬었죠. 비밀 이야기, 하물며 고민거리까지도 상담할 정도로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죠. 누군가 심각하거나 인상을 쓰고 있으면 무슨 일 있는지 물어보고 서로서로 도와주곤 했어요. 청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농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무슨 고민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같이 맘 써준다든지, 우울해하면 운동하러 가자고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주곤 하죠. 청인 친구들과하곤 주로 공차고 놀러다니곤 했고, 농인 친구들과하고는 속 깊은 얘기까지 나누면서 지냈죠. 그래서 농인들끼리 있을 때가 훨씬 편안해요.

진행자 : 농인들끼리 서로 도움이 많이 되는지요?

박○○ : 그럼요. 당연하죠. 농인들은 워낙 눈치가 빠르니까 금방 알아채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게임도 훨씬 잘 가르쳐 줘요. 시즈 탱크, 저글링, 히드라, 배슬 등등 이런 거 다 농인들끼리 더 잘 소통 되요. 네가 시즈 탱크 담당해라, 난 마린 담당할 테니까 하면서 게임할 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소통이 되죠.....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전국적으로 한창 인기였는데 스타크래프트 최고수 전승재라고 있어요. 프로게이머가 될 정도로 아주 뛰어났었죠. 농학교 후배예요. 그리고 또 잘하는 친구가 울산에 있는 친구였죠. 처음에는 다들 실력이 고만 고만 비슷하게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들 시들해졌는데 유독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미쳐서 결국에는 최고수가 된 거죠. 디아블로라는 게임도 한창 인기였지요. 이런 게임들을 농인들이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건 먼저 알고 있는 농인이 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학교를 보면 영 썬병이죠. 농인 선배가 게임을 가르치듯이 농학교 선생님들이 수화를 잘해서 농학생들을 가르쳤다면 농학생들도 아주 똑똑해졌을 거예요. 농학교 선생님들이 대충대충 건성으로

가르치니까 학생들도 배움에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송○○ : 맞아요.

박○○ : (송○○에게) 수화로 설명하지 않고 칠판을 가리키면서 말로만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안되잖아요. 저게 왜 그러냐하면, 역사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말로만 설명하면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죠. 선생님들 중에 수화를 잘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화는 썩병이지요. 국립이라는 아주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아주 거만하죠. 게다가 5년만 지나고 나면 더 좋은 곳으로 전근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소문들을 통해서 알게 되죠. 김○○ 선생님(농인)이 난 얼마든지 농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농인교사가 한 명 뿐, 혼자니까 힘이 없지요. 그래서 늘 불안하지요, 외롭고. 농인교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서 만약 10명이 된다고 하면 뭐라고 제안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냥 수화를 못해서 미안해요 라는 입에 발린 말만 하고 말이죠. 그런 말 들어온 지 아주 오래 되서 지긋지긋해요.

송○○ : 동감해요. 맞아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청인이 아니라 모두 농인 선생님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박○○ : A 농학교가 잘 가르친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그리고 B 농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구화 중심이죠, 수화는 영 짱이고요. 문장력이나 기본은 아주 잘 되어있어요.

진행자 : 여러분은 친구 중에 청인이 있는지요?

송○○ : 지금 같은 과에 있는 친구들이 있지요.

진행자 : 지금 대학에서 만난 청인 친구들 말구요.

송○○ : 한 명 있어요. 한 명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내가 듣지 못하니까 대신해서 통역을 해주곤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 친구 한 명 말고는 더 없어요. 청인 중에서는요.

홍○○ : 있어요. 저는 남자들하고는 맨 날 싸우곤 했기 때문에 개네들은 체켜두고, 착한 남자들 몇 명 있구요, 여자들은 아주 많아요. 제가 허구헌날 싸우곤 해서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고는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걸 여자애들이 보고는 불쌍하게 생각해서 저를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고맙고 그래서 같이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요.

진행자 : 오~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군요.

김○○ : 저는 청인 친구들이 많아요. 농인 친구들도 많구요. 서로 비슷비슷하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으니까요. 청인 친구들도 있죠.

진행자 : 지금도 청인 친구들을 만나나요?

김○○ : 다들 먼 곳으로 이사를 가버려서 가끔씩 만나요.

진행자 : 방○○군은 친구 많이 있어요?

방○○ : 세 명 있어요.

진행자 : 농인 친구는 있어요?

방○○ : (손으로 옆의 친구들을 가리키며) 이 친구들이요. 제가 다닌 학교는 장애인이 저

혼자뿐이어서요.

홍○○ : 저는 농인 친구보다 청인 친구가 더 많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니까 청인 친구들이 많지요.

박○○ : 청인 친구들도 있고 농인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청인 친구들하고는 그냥 아는 사이인 정도죠. 농인 친구들끼리는 속 깊은 얘기까지 나누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농인친구들하고 있는 게 편하죠. 친구를 사귀다는 것은 서로 나누는 거죠. 정보를 공유하고 세상을 공유하고 친구끼리 서로 돕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죠. 무식한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죠. 다들 문화마다 저마다의 방식이 있는 거니까요.

진행자 : 기분이 좋지 않거나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송○○ : 글썽요, (곤란해 하며) 좀 더 생각해보고 말할게요.

홍○○ : 싸우죠.

진행자 : 홍○○군은 싸울 때만 화나고 다른 때에는 화가 날 때가 없나요?

홍○○ : 저는 화가 나면 오락실 가서 편지게임을 하면서 풀어버려요.

송○○ : 글썽요, 저는 화가 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화가 날 때는 그걸 참으라고 주입을 받아서 그런지 화를 내지 않고 주로 꺾 눌러 참는 편이에요. 이해해 주고 별로 화를 내거나 풀어야 할 일이 없어요.

박○○ : 화가 나면 그걸 혼자서 어떻게 풀어요? 머리 속이 답답하거나 그럴 때.

송○○ : 그래도 저는 꺾 참습니다. 참아요. (웃음). 기분이 좋지 않거나 화가 날 때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풀어버리는 편이에요. 얘기로. 뒷담화를 하면서 말이죠.(웃음)

진행자 :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낄 때가 있나요?

박○○ : 밥 먹을 때 불편해요. 사람들이 줄 서 있거나 식당에 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 주먹으로 식탁을 탕 치거나 해서 종업원을 부르곤 하는데 그럴 때 불편해요. 그리고 버스 탈 때 불편해요. 어디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모르니까 말이죠. 지하철은 아주 편해요. 문자로 알려 주니까 그걸 보고 내리면 되니까요. 대학에 수화통역이 필요해요. 전국에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여기 딱 하나였어요.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받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겁니다.

송○○ : 전 몰랐어요(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의미로). 주문할 때 체스츄어나 몸짓으로 저거 달라고 하곤 했지요. 음식주문을 할 때도 메뉴판을 보고 가리키거나 해서 달라고 그랬어요. 그 외엔 특별하게 불편한 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버스 어디 가냐고 물어볼 때 대답하기 어렵고, 멀리 떨어져서 대화할 땐 입모양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대화하기 어렵지요.

홍○○ : 음식 주문할 때 불편해요. 얼마 전에 농인 친구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음식을 주문하려면 종업원을 불러야 하잖아요. 농인친구들은 말을 못하니까 종업원하고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결국은 종이에다가 적어서 주문을 했어요. 그런 게 불편해요.

김○○ : 부모님은 일하러 나가시고 밥 먹을 건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어렵죠. 밥을 어떻게 먹어요? 요리도 할 줄 모르는데요. 이모한테 어떻게 하냐고 하니 그냥 밥 먹으라고

하더라구요. 밥만 먹어요? 그럴 때 불편하구요.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는 할 수 없고 문자로 밥 달라고 하거나 직접 이모집까지 가야하니까 그런 게 불편해요. 그리고 택시를 타면 어디로 가 달라고 할 때 휴대폰 문자로 해서 해야하니까 그런 게 불편하구요. 버스를 탈 때 카드를 대려고 할 때 아줌마가 가로막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카드 대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 닦혔을 때 불편해요.

방○○ : 아침에 학교에 가려면 일찍 버스를 타야하는데요, 늦잠을 자버려서 아침밥도 조금밖에 못 먹고 학교에 도착했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불편했구요.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고 밤에 나 혼자만 버스를 타지 못해서 집까지 걸어가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무진장 다리가 아파서 혼났어요.

박○○ : 일전에 경찰하고 일이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경찰한테 가서 수화통역이 필요하다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내말은 그냥 무시하고 가만히 비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난 들을 수 없으니까 수화통역사를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핸드폰에다가 문자를 찍어서 말이죠. 그랬더니 경찰이 나한테 ‘가만히 있어라. 난 모른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난 더 격렬하게 말했죠. 경찰한테 ‘날 봐라. 난 농아인이다. 수화통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내 말을 무시하는 거냐’고 따졌지요. 그래도 나를 계속 무시하기에 거세게 몸을 밀치면서 따지고 드니까 파출소장이 무슨 일이나고 관여를 하더라구요. 마침 통신중계서비스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아서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지요. 그랬더니 파출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알려줬지요. 그리고는 경찰이 전화를 받고는 내가 수화로 하는 걸 통신중계서비스를 통해서 경찰이 내용을 알게 되었지요. 그 때 경찰더러 핸드폰을 보지 말고 농인을 쳐다보라고 하니깐 주저주저하면서 눈으로는 수화로 말하는 나를 보고 귀로는 통신중계사의 통역을 들으면서 내용을 알게 되니까 결국은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일처리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보험회사에서 파출소를 찾아 왔더라구요. 통신중계서비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그 보험회사 사람도 그런 서비스가 있느냐고 하면서 놀래더라구요. 이런 통신중계서비스가 있다는 걸 많이 홍보하면 농인들이 훨씬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더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톨게이트를 지날 때였어요. 차를 멈춰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직원이 안 보이는 곳에 누구랑 얘기를 나누는지 나오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열을 받아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려서 곧장 따지러 갔지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고 하면서 인상 팍 쓰고 사무실 책상을 주먹으로 ‘탕’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사무실 직원이 나오더니 무슨 일이나고 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는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곳곳에서 소통이 안 되어서 힘든 상황들이 속출하지요. 어느 곳이나 수화통역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화통역서비스가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진행자 :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송○○ : 그럼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박○○ : (송○○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 보세요.

(일동 웃음)

송○○ : 간단히 말하자면, 수화통역서비스를 확충해야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제 겨우 21살이라 경험한 게 많이 없어서 (이번 질문에 대해) 말씀드릴 게 없지만 앞으로 나이가 30살 되고 그러면 경험하는 것도 많아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말할 것도 많겠지요.

진행자 : 여러분은 농인인 것이 자랑스러운가요?

송○○ : 제가 청인학교 다닐 때는 농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농학교로 전학을 와서도 중학교 1~3학년 동안 줄곧 구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농인으로서 자부심 같은 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1때 김○○ 선생님이 농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후부터 농인도 교사가 될 수 있구나, 농인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농인으로서 자부심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농인이라는 자부심이 점점 커지고 그랬어요.

진행자 : 다른 사람들이 수화하는 걸 쳐다보는 것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나요?

송○○ : 예전에는 사람들이 수화하는 걸 쳐다보고 그러면 신경이 쓰였지만 남들이 쳐다보건 말건 신경 안 쓰고 수화를 하지요. 제가 들어간 과에 청인들이 많지만 거리낌없이 수화를 사용하구요, 뭔가 불만이 있으면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남들 시선이나 이런 건 팬찮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농인으로서 자부심이 없었다면 아마도 소극적이고 말도 꺼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농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홍○○ :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말(구화)하면서 살아오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서○○이랑 다른 친구를 만나고 수화를 배우게 되면서, 왜 수화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 서○○이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나도 농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생 땐 지하철을 타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친한 친구하고 같이 타고 가게 되면 말(구화)로 대화하곤 했었는데요. 대학에 들어와서 수화를 배우게 된 이후로는 친구들과 같이 다니면서 수화로 같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창피하긴 했지만 친구들이 다 설명을 해주니까 ‘아~ 그렇구나!’ 농아인이니까 자부심을 갖고 수화를 사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수화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김○○ : 저도 홍○○이랑 비슷한 편이에요. 저도 처음에 수화를 할 때는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서 제스처어나 몸짓이었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자신이 창피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도 누군가가 이런 내 모습을 쳐다보면 바로 내려서 다른 열차를 타고 그랬어요. 어떤 농인이 제게 말해주었어요. 농인이 수화를 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난 후로 사람들이 있어도 수화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수화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쳐다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수화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진행자 : 방○○군은 본인이 농인이라고 생각해요? 청인이라고 생각해요?

방○○ : 전에는 고3때 수화를 처음 봤는데요.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 것도 모르고

말만 했으니깐요. 수화책을 보고 수화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기억해도 까먹고 기억해도 까먹고 그래요. (웃음) 끝.(웃음).

박○○ : 그럼요. 농인으로서 자긍심이 있어요. 수화도 잘하죠, 미남이죠, 이야기도 잘하죠, 농인으로서 충분히, 청인이 부러울 게 없죠. 국제수화도 있고, 수화도 있고, 비전도 있고, 문화도 있고 아주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진행자 : 청인이 부러운 적이 있나요?

송○○ : 전화하는 거 말고는 부러울 게 없어요. 중요한 전화나 긴급한 전화를 해야 할 때 말고는 청인이 부러운 적은 없어요.

진행자 : 요새는 핸드폰이 있어서 문자로 보내면 되잖아요?

송○○ :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화를 하는 게 훨씬 간편하고 좋아요.

홍○○ :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MT 아니, MP3 알아요? 예전에는 청인들이 귀에다 이어폰 꽂고 음악 듣는 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저 그래요.

진행자 : 예전에는 그게 왜 부러웠어요?

홍○○ : 제가 음악 듣는 걸 좋아했는데요. 지금은 그냥 그저 그래요. 옛날엔 부러웠지만 지금은 그냥 그저 그래요.

김○○ : 저는 청인들이 말하는 게 부러웠어요. 수화를 하지 않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부러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수화하면 팔힘도 세지고 오히려 수화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진행자 : 방○○군은 청인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방○○ : 있어요. 지금은 수화를 조금 알게 되었어요. 전에는 그냥 몰랐지만요. 끝이에요.

박○○ : 청인이 부러운 적 있어요. 부러운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제가 가수가 되고 싶어서요. 둘째는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서, 카레이서 등등 무지무지 되고 싶은 게 많아요. 청인이라면 되고 싶은 것에 있어 제약이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될 수 있잖아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가수가 된다면나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는 댄서가 된다면나 악기를 연주한다면나 그런 것들이 정말 부러워요. 한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부러웠었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시들해지더라구요. 어떤 때엔 아주 긴급하게 전화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더라구요. 갑작스런 사고가 난다든지 하거나 그럴 땐 문자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땐 전화로 아주 간단하게 금방 끝낼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이 부러운 거죠. 요즘엔 소리를 듣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땐 정말 소리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카레이서가 되어서 사람들의 환호하는 소리라든가, 여자들의 오빠~하는 소리들이 어떤 건지 듣고 싶었어요. 그게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거든요. 아차차. 여러분들, 청인들이 말하는 거 보고 부럽다고들 했는데요. 청인들 말하더라도 나이 들으면 늙어서 주름살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농인은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수화하면서 얼굴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그러지요. 그리고 또 농인은 청인이 받지 못하는 할인혜택도 받잖아요. 그렇죠? (웃음)

진행자 : 소리를 듣지 못해서 생기는 장점이 있나요?

김○○ : 농인하고 청인의 차이점이 있다면, 잠잘 때 전화가 온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하면 농인은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잘 수 있는데 반해서 청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구요. 영화를 볼 때 농인은 주위 소리에 간섭받지 않고 집중해서 볼 수 있는데 반해 청인은 주위 사람들의 웃음소리라든가 소리에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자동차운전을 할 때도 소리에 신경쓰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이 집중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할 수 있지요. 한편으론 소리를 들어야 할 경우도 있지요. 어디선가 경적이 울리거나 그러면 그걸 듣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웃음).

홍○○ : 청인들은 지하철을 타려면 요금을 내잖아요. 농인은 그냥 표를 사지 않아도 되고 무료니까 편해요. 그리고 밤늦게 지하철을 탔을 때 청인은 잠이 들었다가도 안내방송 때문에 중간에 깨는 경우가 있지만 농인은 아주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장애인에 대한 혜택(지문자로 씌)이 많아져서 일반인(청인)한테는 별로 없지요. 또,(잠시 생각하다가) 이상 끝입니다.

송○○ : 저는 청인들 속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사람들이 웃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무슨 영문이지 모르고 같이 웃을 때, 그런 경우에 불편함을 느끼는데요. (각설하고),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는지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할 때, 다른 선배한테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있냐고 물어보면 별게 없다는 답변을 듣는데 그럴 때 좀 차별받는다 생각 들어요.

방○○ : 질문이 뭔가요?

진행자 : 소리를 듣지 못해서 오히려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방○○ :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할 때, 밤에 시험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영어공부를 하는데요. 영어공부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든 거예요. 시험공부를 포기하고 4시 50분까지 자버렸어요. 그렇게 자다가 소리를 듣지 못해서 8시 넘어서야 깨서는 부랴부랴 학교에 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지냈어요. 끝.

박○○ : 영화 시작할 때 보통 어떻게 시작하나요? 농인들은 영화 시작할 때 그냥 수화하면서 수다를 떨잖아요. 그러면 청인들이 수화하는 거 보고서는 신기해서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청인들은 영화 시작할 때 우리 농인처럼 떠들거나 수다를 떨면 주위에서 ‘영화 시작하니까 조용히 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버스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을 때, 농인들은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뭐라고 하면서 싸우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농인들은 실랑이를 벌이더라도 수화로 하니까 그다지 다른 사람에게 소리로 인해서 불편을 주지도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소리를 듣지 못해서 오히려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단점이 있기는 해요. 찜질방에 갔을 때 (수면실에서) 어두우니까 여기 저기 더듬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일동 웃음) 보통 음식을 주문한다거나 먹는 거는 그다지 불편한 점이 없어요. 밥 먹을 때 보면 청인들은 떠들면 시끄러우니까 그렇지만 농인들은 수화로 떠드니까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다지 소리로 인해 이렇다하게 느끼는 불편은 없는 거 같아요. 마치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다고나 할까요. 가끔씩 청인들이 그래요. 소리 때문에 죽겠다구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죠. ‘농인이 되고 싶으면 약 먹어!’라고요(웃음).

진행자 : 농인이라고 해서 전혀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니죠. 농인들도 수화하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내지요.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수화하면서 손끼리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도 있고, 정말 조용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박○○ : 물론 그렇기도 하지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엔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저도 아주 흥분했을 때는 소리도 지르고 격하게 수화를 하면 조용하지 않아요. 가만가만히 얘기할 때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진행자 : 맞아요. 가만가만히 수화할 때는 조용한 편이죠.

박○○ : 그렇죠? 됐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가끔가다가 숨을 내쉬느라고 ‘휴~’하면 청인들이 그때 반응하는 게 전혀 뜻밖이더라고요. 속상한 일 있냐?, 힘드냐? 고 하면서 이상하게 반응을 하던데요. 제가 그럴 때 내는 소리가 어떤가요? 정말 이상한가요? 난 단지 일이 다행스럽게도 잘 풀리거나 다 마쳤을 때 편안한 심정으로 숨을 내쉬 것뿐인데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진행자 : 그렇게 숨을 내쉬 때 나는 소리가 청인들이 듣기에는 한 숨 쉬는 것처럼 들리네요. 청인들은 한숨이 나오는 경우를 힘들 때나 속상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무의식 중에 나오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오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럴 때 청인들이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박○○ : 아하, 그렇군요. 주위에서 가끔씩 그런 소리를 듣는 편이에요. 특히 아버지께서 그런 반응을 하세요. ‘야, 너 무슨 일 있니? 왜 그래?’ 하면서 물어보시는데요, 난 단지 몸이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랬을 뿐인데 말이죠. 그런 거군요.(고개를 끄덕끄덕하다). 어찌다가 엄마도 나한테 ‘왜 기분 나쁜 일 있니?’ 하시는 거예요. 청인들이 듣기에 오해를 살만하군요. 앞으론 소리를 내지 말아야겠네요.

진행자 : 소리로 인해서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군요.

박○○ : 농인이라서 좋은 점들이 있죠. 기차 50%, 비행기 50%, KTX 50% 할인 등등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이 있어서 아주 좋은 나라예요. 청인들이 장애인 카드(파란카드) 빌려 달라고 여기저기에서 난리예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면 자동차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요. 그렇게 말하면 ‘가서 수화 배우라’고 말해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건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장애인증 다 내놓으세요(웃음).

진행자 : 청인들하고 있을 때 편안한가요? 농인들하고 있을 때 편안한가요?

송○○ : 수화를 하는 농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청인들하고 구화로 말을 할 때는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김○○ : 농인하고 있을 때가 편해요. 수화로 100% 소통되어서 좋아요.

송○○ : 농인들끼리는 깊은 내용까지 나눌 수 있지만, 청인들하고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는 없고 그마저도 한 50%정도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진행자 : 왜 그런가요?

송○○ : 듣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지요. 소리를 듣는 것에 제약이 있어서지요.

박○○ : 청인이 수화를 잘해도 소통이 50%정도인가요? 농인처럼 수화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어도 소통이 100%가 되지 않고 50% 정도밖에 안 될까요?

송○○ : 글썬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청인하고는 소통이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홍○○ : 저는 농인이 더 편해요. 마음이 잘 통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같은 농인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김○○ : 농인끼리는 소통이 잘되요. 80% 정도, 아주 조금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화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르쳐주면서 주고받다보면 수화도 빨리 늘고 아주 편해요.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청인들은 팔을 안 쓰고 말만 하잖아요. 농인은 수화를 하구요. 그래서 청인이랑 농인이랑 팔씨름 시합을 했는데 청인이 졌어요(웃음). 왜냐하면 농인은 수화를 하니까 팔힘이 길러져서 청인보다 팔힘이 센 거죠.(웃음).

박○○ : 전 농인들이랑 어울려서 지내는 게 딱이에요. 아주 좋아요. 청인들이랑 있어도 비슷해요. 다만, 청인이 수화를 잘한다면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죠.

진행자 : 청인이 전혀 수화를 못한다면 어떤가요?

박○○ : (청인이) 수화가 썩병이라면 글썬요, 제스처어나 표정을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인들은 그런 방면으로는 일가견이 있어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의사소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한 것이 많이 유익한 것 같아요.

진행자 : 여러분은 결혼을 한다면 농인이랑 하겠어요? 청인이랑 하겠어요?

송○○ : 저는 농인이랑 결혼을 하고 싶어요. 이유는 서로 대화하기 편하구요, 속 깊은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긴급한 전화를 해야 하는 것만 빼다보면 농인이랑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인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어서. 농인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홍○○ : 저는 좀 고민이 되네요. 만약에 일반인(청인)하고 결혼하게 되면 사회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또 전화로 인한 문제도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농인이랑 결혼하게 되면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수화로 잘 통하고 같이 사회로 나가고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이야기 해주고 편하겠지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김○○ : 농인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농인이라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서로 잘 통하고, 어렵겠지만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 : 전 일반인(청인)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유는 말하고 싶어서요.

박○○ : 저는 농인하고 결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겁니다. 사랑이 가는 대로 할 겁니다. 저는 농인, 농인입니다. 그래서 농인하고 결혼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청인하고 결혼하면 (부인이) 전화하고 있을 때 뭐하냐고 물어봐도 부인이 '잠깐만 기다려'라고 하면 기다려야 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끊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전화뿐만 아니라 '돈문제'도 그래요. 전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 몰래 바람을 필까?'하고 - 내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걸 이용해서 - 그런 짓을 할 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길

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알 방법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입모양을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화하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하면 도리가 없는 거죠. 바람을 피는 건지?,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 건지? 집을 팔아 먹으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뭔짓을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농인들은 청인여자하고 결혼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청인을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청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로 첫째, 농인남자와 청인남자가 결혼해서 집들이를 하면 집에 오는 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청인들이예요. 농인은 나 혼자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말로 대화하고 나를 신경쓰지 않게 되죠. 예를 들면 (농인 남편이) 술을 많이 마셔서 취했을 때 농인 남편을 위해 수화로 상대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전혀 없지요. 더구나 술이 잔뜩 취한 상태라면 더더욱 어렵겠지요.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라면 수화로 얘기해주면 기분도 좋아질 수 있겠지만, 술에 취하게 되면 농인하고 수화로 대화를 하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말로만 하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러다보면 농인 남편은 결국 혼자 놔두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 걸 생각해서 청인여자 말고 농인여자가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요. 농인이면 100% 대화가 가능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이더라도 뭐라고 해도 (부부간에) 서로 통하니까 괜찮고, 둘째는 속 깊은 얘기까지 할 수 있어서 좋죠. 셋째는 자식 문제나 돈 문제나 속상한 일이든 뭐든지 상의할 수 있어서 좋고, 넷째는 술 마셔서 고주망태가 되어도 서로 잘 통한다는 거죠. 100% 서로가 아주 잘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농인이 낫다고 생각해요. 청인하고는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청인이 멀쩡한 상태에서는 소통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전혀 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인보다는 농인이 훨씬 낫다고 봐요. 제가 농인이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다가 4살 때 농인이 된다고 해도 농인이랑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도 농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청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농인이랑 결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진행자 : 그런 얘기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박○○ : 나이 드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유명한 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우연하게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온천에 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술자리에서 등등 그렇게 만나서 얘기들을 들어보았는데 다들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김○○ 선생님도 청인이랑 결혼해서 후회된다는 얘기를 하셨을 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김○○ 선생님이 청인여자랑 결혼한 걸) 엄청 부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대화를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농인은 주마다 만나고 농인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수화실력도 상당히 늘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체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하면서 견문도 넓히고 지적으로 풍부해지는데 반해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도 일정하고 하니깐 한계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농인 선생님도 그렇고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내가 아는 누나가 있는데 농인이예요. 남편은 청인이고요. 그

남편은 아주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아주 착하고 누나를 잘 위해주고 결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수화도 배우러 다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가슴이 아픈 병 - 마음의 병 -이 생기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아주 잘 해주고 그랬는데 누나가 아프다고 하니, 남편이 더 자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속상하다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냐고 그러면 약 먹고 더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누나가 생각이 퍼뜩 든 게 청인이랑 같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말이 이렇게 안 통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수화로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 신체의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 아닌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이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누나의 안색(얼굴)을 살펴보더니 괜찮다고 약 먹으면 좋아질거라고 계속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법원에 이혼신청을 냈어요.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같이 살면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그러면서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었습니다. 남편한테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자료(대략 4,000만원)를 주어 가면서 결국은 이혼을 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남편이 그렇게 누나한테 잘 해주니까 얼마든지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하는 걸 보고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인이랑 결혼하든지, 청인이랑 결혼하든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맞지만, 농인끼리 결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송○○ : 농인이랑 결혼하면 아이는 어떻게 키우나요?

박○○ : 아이 키우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머니한테 맡기면 되죠. 그리고 아이도 3살인데도 수화를 아주 잘해요. 농인이라고 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농인부부면서 아이를 잘 키우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농인이랑 결혼하는 게 좋아요. 직업도 있고 차도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치킨을 주문하는 것도 굳이 전화를 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되는 거고. 엄마한테 전화해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농문화도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에만 급급했지만 지금은 상황도 많이 나아졌고 아주 좋아졌지요. 그래서 저는 농인이랑 결혼할 겁니다.

진행자 :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나요?

박○○ : 후회는요, 평생 동안 같이 대화하면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서로 의지하면서 지낼 건데요. 괜찮아요.

박○○ : 조금 쉬었다 하죠? 십 분만이라도 쉬면 좋겠는데요, 그냥 계속 하나요?

진행자 : 질문할 게 조금 남았으니까 쉬지 말고 계속 했으면 하는데요. 괜찮나요?

(일동 동의함)

진행자 : 다른 농인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는 어떤 때인가요?

송○○ : 저는 선배들과는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아서, 선배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별로 할 얘기가 없네요. 친구들과만 어울리고 선배들과는 친해질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선배들과 친해지고 싶지만 친해질 자신이 없어서요.

홍○○ : 없어요. 전 농인 선배가 없어서 잘 몰라요.

김○○ : 선배가 있나?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선배들이 있었나? 열심히 연습하라고 그러다보면 잘하게 된다고 말해주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잘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부러웠는데, 막상 내가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구요. 아는 선배 농인은 두 세명 정도 있어요. 후배는 아주 많아요. 선배 농인들이 사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 주더라고요. 아는 선배는 적지만, 친구들도 많고 후배들도 많아요(웃음). 선배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고, 기술도 열심히 연습하라고 했죠.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도 잘하게 된다고 하면서요. 근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박○○ : 농인들끼리 대화하는 걸 눈여겨보고 있다가 선배 농인의 눈에 띄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선배 농인들하고 인연을 맺는 경우가 많아요, 대인관계를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할 점이 첫째, 예의예요. 둘째가 겸손하게 대화에 임하는 것, 예를 들면 성격에 따라서 상대가 까불까불하면서 장난스럽게 나오면 같이 그러는 거죠. 약간 과장을 한다거나 뺨을 치면 같이 장단을 맞추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들이 눈에 들어서 많은 선배 농인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죠. 농인 사회에서 친해지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장난치는 겁니다. 첫째가 장난이구요, 둘째가 지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반면에 농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을 너무 심하게 하면 다들 거들떠 보지 않아요. 농인들이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금방 알아봐요(자랑하는 게 허풍인지 진짜인지 안다는 의미). 농인들은 상대가 어떤지를 금방 판단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진면목을 알아보고 나서 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다들 그런 편이에요. 그런 점들을 유의한다면 농인들하고 쉽게 친해질 수 있답니다.

진행자 : 농인들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라구요?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박○○ : 첫째, 예의구요. 둘째, 상대를 존중하는 거요. 만나면 반갑게 미소를 지으면서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는 거 말이죠. 그거 아니면 다른 경우는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선 선배 농인들의 눈에 드는 경우인데 제가 그런 편이었어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뭔가 아는 것이 많고 유식하고 사람이 점잖아 보이면 그때서야 가까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야 워낙 다양하니까요.

진행자 :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내나요?

박○○ : 20-30년 전 얘기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보면 그 사람이 자랑했던 얘기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게 되죠.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얘기하다가 정말 그런 적이 있는지 증거를 보여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진행자 : 그렇게 들통이 나면 어찌 되나요?

박○○ : 그렇게 들통이 나게 되면 다음부터는 만나지 않거나 상대를 안 하는 거죠.

진행자 : 아하~ 그렇군요. 여러분은 친구들끼리 모이면 뭘 하면서 놀아요?

송○○ : 술을 마시거나 모여서 얘기하거나 그러지요.

진행자 : 다들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놀 시간이 없나봐요?

송○○ : 주로 시험 끝나고 나서 술 마시면서 수다 떨고 그렇게 놀아요.

진행자 : 농인들도 모이면 성관련 얘기도 하나요?

송○○ :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는 음담패설을 늘어놓기도 하는데요, 여자들이 끼면 하지 않아요.

김○○ : 당구를 친다거나 볼링을 친다거나 하면서 놀지요. 이야기를 할 때는 재밌는 얘기나 웃긴 얘기, 19급 이야기, 별난 이야기 등을 하면서 놀아요. 남자들끼리만 있을 땐 성관련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다가도 여자가 끼면 금방 화제를 바꿔서 딴 얘기를 하기도 하죠.

박○○ : 농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십대를 상대할 때는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요, 20대를 만났을 땐 자기가 경험했던 실제 이야기들을 해주면 다들 넘어가요. 30대한테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맞장구도 치고 제때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그러면 다들 좋아해요. 40대들한테 통하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 나를 불러서 이야기하면 네네 그러면서 적절히 반응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 되요. 30대들은 간간이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을 섞을 수가 있는데, 40대들은 안 통해요. 무조건 하는 얘기를 듣고 난 후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보라고 할 때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면 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보다 한참이나 나이가 위고 경험한 것도 많기 때문에 군소리하지 않고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보면 한 2시간 정도 가만히 듣기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관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50대는 그냥 술 마시면서 마냥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이따가 하라고 하고 별 수 없이 술 마시면서 계속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집에 가고 싶어 죽을 정도로 지켜왔던 적도 있었지만 꼭 참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많은 농인들하고 알고 지내고 하다보니까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지요. 농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격은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걸 제일로 쳐요. 제일 싫어하는 건 자기 사랑하는 게 1위예요. 거짓말하는 게 2위구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진행자 : 여러분들은 놀 때 뭘 하면서 놀아요?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놀 시간이 없나요?

홍○○ : (동아리에서 가는 걸 말하는 듯함) 1년에 엠티 두 번 가고, 서로 시간이 맞으면 같이 나가서 술 마시고 놀고, 서로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 친목회를 통해서 친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방○○ : 다른 학과 친구들과하고 조금씩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끝이에요(멋적은 웃음).

박○○ : 저는 모여서 술 마시고 수다 떨고 그래요. 애인이랑 싸워서 그랬을 때는 다독거리기도 하고 애인한테 잘 해주고 술 마시거나 다른 데로 놀러가기도 하구요, 애인이랑 같이 술 마시다가 서로 마음이 맞으면 같이 여관을 갈 때도 있고 그냥 집에 보낼 때도 있어요. 고민거리가 있거나 속상하고 누군가와 문제가 생겨서 응어리 같은 게 있다고 생각되면 같이 술 마시러 가자고 해서 술 마시면서 서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러다보면 상대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도 하구요. 기쁜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대체로 그런 식으로 지내는 편이에요.

진행자 : 여러분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농인으로 태어나고 싶은가요? 청인으로 태어나고 싶은가요?

송○○ : 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구요. 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홍○○ : 저도 다시 농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유는요, 그냥 편해서요. (웃으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 : 농인이 태어나면 우선은 한글을 잘 가르치고 나서 학교에 보낼 겁니다. 나중에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미리 아주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한 농인이 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리고 청인이 태어난다면 먼저 수화를 가르칠 겁니다. 나중에 한글을 가르쳐 줄 겁니다. 수화도 할 줄 알고 한글도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식이 나한테 통역을 해주면 아주 편하겠지요. 그리고 전화가 오게 되면 자식이 받아서 무슨 내용인지 나한테 통역해서 알려주고 그러면 아주 편하겠죠.

방○○ : 저는 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청인으로 태어나서 말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농인이지만 뭐 괜찮아요.

박○○ : 만약에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전 카레이서가 될 겁니다. 아니면 영화배우나, 가수가 될 겁니다. 내가 청인으로 태어난다면 그 세 가지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제가 어릴 때 꿈이 그 세 개였어요. 군인이 되어서 대장이 되는 것도 있구요. 어릴 때 꿈 중에 군인이 되어 장군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농인으로 태어난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7년 동안 살아온 걸 봐서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 그냥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청인으로 태어난다면 아까 말한 그 네 가지를 이루고 싶은 게 꿈이에요. 청인으로 태어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잖아요. 농인은 듣지 못한다는 한계(제약)가 있잖아요.

송○○ : 내가 청인으로 태어난다면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에요.

진행자 : 선생님이 되는 건 청인이 아니어도 가능해요. 농인도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송○○ : 농학교에 농인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 말씀이) 꿈을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보라고 하셨어요. 야망만 갖지 말고 현실을 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되는 걸 포기했어요. 김○○ 선생님(농인) 말고 나중에 오신 농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듣고 나서 선생님 되는 걸 포기했어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청인으로 태어나서 선생님이 되는 것이구요,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나 탐색하고 있는 중이에요.

진행자 : 사회복지사가 되는 길도 있잖아요?

송○○ : 우선 사회복지사가 되는 건 일단 접어두고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에요.

홍○○ : 제가 만약 청인으로 태어난다면 모델(지문자로 씬)을 하고 싶어요. 또, 뛰었더라? 까먹었어요. 아! 태권도 대표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 두 가지가 꿈이에요.

진행자 : 지금은 꿈이 무엇인가요?

홍○○ : 원래는 인테리어(지문자) 회사 대표가 꿈이에요. 모델을 하고 싶지만 농아를 안 받아줘서 포기했어요. 결국은 마지막 거로 목표가 결정되어 버렸어요.

김○○ : 청인으로 태어난다면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방○○ :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캐드를 잘 해요.

진행자 : 캐드를 잘하니깐 본인이 목표로 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진행자 : 무려 두 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기꺼이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대 여학생 그룹]

진행자 : 다들 저녁을 먹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식으로 사다놓은 과자들을 벌써 다 먹었네요. 많이 배고팠나요? (웃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부모님은 농인인가요? 청인인가요?

박○○ : 청인이에요.

표○○ : 청인이에요.

김○○ : 청인이에요.

송○○ : 청인이에요.

이○○ : 청인이에요.

변○○ : 청인이에요.

허○○ : 청인이에요.

방○○ : 청인이에요.

성○○ : 청인이에요.

진행자 : 여러분은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잘 되나요?

송○○ : 저 소통이 잘 되요.

박○○ : 아니요.

표○○ : 전 그냥 그래요.

이○○ : 잘 통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물어 보면 그냥 대충 얘기를 해줘요. 그럴 땐 그냥 넘어가지요.

진행자 : 여러분은 언제 청력을 상실했나요?

성○○ : 전 태어나면서부터 그랬어요.

방○○ : 저도 나면서부터요. 나면서부터 그랬어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팠거든요.

허○○ : 전 세살 때부터요.

변○○ : 전 낳 때부터요.

이○○ : 세 살 때부터요.

송○○ : 돌잔치 할 때 청력을 상실했어요. 열병으로요.

김○○ : 세 살 때요.

표○○ : 세 살이요. 열병으로요.

박○○ : 세 살이요. 열병으로요.

진행자 : 여러분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

- 박○○ : 중1때 있었어요. 그때까지 나 자신이 장애라는 걸 몰랐어요. 나랑 친한 언니가 농인이었는데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 안 들리고 말 못하지?’ 라고. 그 당시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언니는 농아 맞아. 농아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주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그 때부터 장애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원망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요.
- 이○○ : 7살 땐가, 6살 때였어요. 장애인이랑 함께 다녀서 그랬는지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거 같아요. 원망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구요. 그냥 ‘농아라구? 그렇구나’ 했어요. 별 다른 느낌이 없었어요. 장애인이라는 것에 대해 원망은 없고 그냥 농아구나 응, 그렇구나 그랬어요.
- 허○○ :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 진행자 : 그때 느낌은 어땠어요?
- 허○○ : 괜찮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았어요.
- 방○○ :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알았어요. C 특수학교에 입학할 대기하는 농학생이 많아 좀 늦게 입학했는데 지체장애 학생들, 다른 사람을 때리는 장애(정신지체?)를 가진 학생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어서 좀 이상했어요. 청인학교를 가보면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 하는 모습이 깔끔해 보였는데 C 특수학교는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때는 보청기를 사용했고 소리도 어느 정도 들려 음성으로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과 이야기 하다가 앞에 놓인 종이를 보고 농아인도 장애인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 박○○ : 나도 초등학교 때 장애인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초등학교 때 ‘청각장애’라는 적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 방○○ : 내가 청인들과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농아’가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는 화가 났어요. 뭔가 울분을 토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 박○○ : 나도 너랑 똑같았어.
- 방○○ : 지금까지 살면서 서러운 것, 안타까운 것, 슬픈 것,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참아야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참지 못하고 울고 슬퍼했던 일들이 많았죠.
- 이○○ : 저기요,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만요, 고2때 택배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1년 반 정도를 하다가 지겨워서 다른 일을 한 번 해보고 싶어서 택배회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 보았는데 그게 롯데리아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였어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롯데리아에 가서 장애인이어도 괜찮은지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거기는 유니폼을 입잖아요. 유니폼을 입고 준비를 하는데 매니저가 부르더라고요. 저랑 아주 친한 언니랑 둘이서 같이 매니저한테 갔어요. 매니저가 말하기를 미안하지만, 듣지 못해서 기분 나빠할 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하고 물었더니, 뜻밖에도 ‘나는 장애인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명함을 건네 주는 거예요.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기분이 좀 뭐라고 할까? 남들 앞에 나서기가 싫어졌어요.

내가 장애인인 건 맞지만, (주위 농인들을 둘러보며) ‘나는 장애인입니다’라고 적힌 명찰을 가슴에 달고 일해야 한다면 할 수 있겠어? (주위 농인들이 고개를 가로짓는다) 처음엔 하라는 대로 가슴에 명찰을 달고 아르바이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하는 도중에 단발머리를 한 중학생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분이 상했지만 꼭 참고는 명찰을 뒤집어 놓고 일을 했어요. 그 때까지만 해도 장애인이라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 일을 겪고 난 후로는 그 기분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안 좋았어요. 그 때 처음으로 내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장애인입니다. 나중에 봐 주세요’ 라고 적힌 걸 뒤집어 놓았어요. 직원이 명찰을 제대로 하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원래대로 했다가 직원이 안 보이면 (명찰이) 신경이 쓰여서 아예 명찰을 빼고 일을 했어요. 내가 농아인이라는 게 기분이 나빠서 명찰을 주머니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3일 후에 바꾼다고 했어요. 롯데월드카드처럼 아주 멋드러지게 모자모양으로 만든 거에다가 ‘당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그걸로 바꿔 달았지만 여전히 안볼 뎀 뒤집어 놓고 일하거나 주머니에 넣고 일하곤 했어요. ‘저는 장애인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쓸쓸한 웃음).

진행자 : 여러분은 소리를 듣지 못해서 불편했던 경험들이 있나요?

박○○ : 전화요. 핸드폰 알이 부족해서 늘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요. 농아인에게는 문자통화가 필수인데 대부분 알을 써요. 보통 알을 보관해서 사용하고 알을 충전하려면 1513에 전화 해야 해요. 그런데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야 해요. 1513에 직접 전화를 못하니깐 다른 청인들에게 부탁하면 대부분 불편해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귀찮아요.

이○○ : 저는요, 엄마랑 같이 제 핸드폰이 고장 나서 새로 장만하려고 같이 갔어요. 핸드폰 기기에 대해서 엄마랑 직원이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옆에 있다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하고 물어보면, 그냥 괜찮데, 그냥 괜찮데 하면서 계속해서 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답답해요. 뭐가 좋은 지 나쁜 지, 비싼지 싼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줄 뿐 자세하게 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직원이 엄마한테는 시시콜콜히 자세하게 얘기해 주었을텐데 말이죠.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아주 답답해서 미칠 정도예요. 그럴 때만 불편해요.

박○○ : 통역할 때 대충대충 건성건성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 건 참 불편해요.

방○○ : 맞아요. 내용을 보고 있는데 긴 내용을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해주는 것보다 전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략하게 요약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없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알 수 있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수화는 ‘불편해요’로 간단하게 표현했음).

이○○ : 맞아요. 우리도 100% 알 권리가 있어요. 대충 간단하게만 아는 게 아니라 100% 완전하게 알 권리가 있어요!

방○○ : 대충대충 간단한(수화는 ‘쉽다’를 사용) 이야기만 했어요. 전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 : 저도 참고 참고 참다가 폭발한 적이 있어요. 왜 (나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느냐고 말했더니 (수화통역사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구요. 그렇게 참고 참고 참았다가 폭발해서 (수화통역사에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진행자 : 소외감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 건가요?

이○○ : 예를 들면, 내가 아는 농인언니한테서 수화를 배웠는데요. 지금까지 엄마하고는 구화로 얘기를 해요. 제가 수화를 배우고 나서는 구화를 하지 않고 수화만 하니까 그걸 보신 엄마가 저한테 수화만 하지 말고 수화하면서 구화도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내가 엄마랑 말로 하니까 100% 다 이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언니랑 얘기할 때 수화로 하면 100% 알아들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 못하시더라구요.

방○○ : 저는 딱 한 번 그랬어요. 중 2때 딱 한 번 가출을 했어요. 참고 참고 또 참다가 도저히 더 참을 수 없어서... 가출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학교를 그냥 결석하고 잠깐 거리를 배회했었는데 시간이 늦어져서 가출이 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밤에 돌아갔는데 부모님이 모두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소외감주고 신경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도 알았다고 했죠. 하지만 이번 한번은 넘어가지만 다시 또 이러면 용서...(아마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표현한 듯함) 무슨 일이었냐면 엄마하고 언니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에게 말해주지 않아 아는 바가 없어서 아무리 집중해서 봐도 내용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끝난 후에 언니에게 무슨 이야기 했냐고 물어보면 대충 학교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대답하는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들 보면 자매간에 아주 화목하게 이야기들 나누잖아요. 그렇게 언니와 남동생도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저도 무척 궁금하죠. 그 때 전 TV를 보면서도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무척 궁금해요. TV보다 형제자매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먼저 동생에게 가서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냥 학교 친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무척 기분이 나빴죠. 내가 아무리 농아인이라고 해도 같이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기분이 나빴어요.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려는 걸 꼭 참았죠. 엄마도 언니와 회사 얘기해요. 이야기하고 가족 모두가 서로 이야기 나누는데 내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해도 나도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텐데 내가 물어보면 간단하게 그냥 ‘학교 이야기’, ‘회사 이야기야 넌 말해도 몰라.’라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기분이 좋으셔서 맛있는 것을 사주신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들 나누는데 전 무척 기분이 안 좋아서 가족들에게 제 속 이야기를 했어요. 나만 소외시킨다는 이야기와 내가 농아인줄 알면서도 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언니랑 남동생도 울고 그랬는데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바뀌는 것은 없고 지금도 여전히요. 지금도 여전히 말해도 달라지진 않아요.

표○○ : 나도 그랬어요.

진행자 : 그럼 부모님이나 형제들하고는 대화를 자주 하나요?

방○○ :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화해요. 그런데 여전히 간단한 내용만 대화해요. ~ 없어요. ~ 없어요. 그냥 집에 가면 쉬운 내용만 이야기해요. “뭐 해?”, “뭐 만들어?”, “TV 뭐해?”, “컴퓨터 뭐 해?” 뭐 이런 말들 하고 “잘 자”, 다음날 아침에 “조심해서 잘 가” 그러고 가시죠. 집에 가도 별로 특별한 대화가 없어요. 집에 정말 오랜만에 가도 처음 한 2분 정도 무척 반기시고 그 후엔 저만 외기리기죠. 아빠, 남동생, 엄마, 언니 만 서로 이야기 나누죠. 제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이○○ : 허○○야, 지난번에 병원 갔던 이야기 좀 하지 그래?

허○○ : 니가 이야기해.

이○○ : 최근에 허○○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갈 일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서 듣지 못하니까 종이를 달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종이를 달라고요’ 해서 종이를 받아서는 접수를 했어요. 기다리라고 해서 정형외과에 가서 앉았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허○○씨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여기’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하더라고요. 치료를 받으려고 허○○랑 같이 들어갔어요. 의사가 상태를 살펴보고는 간호사랑 뭐라고 뭐라고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상한 기계를 가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 하고는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를 먼저 안심시켜 놓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나서 치료를 하면 좋을텐데 그런 조치는 하지도 않고 곧바로 종이 철할 때 사용하는 스테플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구 째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라고 물었더니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비키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그런 조치는 하나도 없이 바로 기기로 상처부위를 째는 거예요. 허○○가 무지무지 아파서 소리를 지르니까 의사가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치료를 마저 하더라고요. 그걸 지켜보고 있자니깐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치료가 끝났다고 하면서 간호사가 오라고 불러요. 허○○를 부축해서 간호사한테 갔지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뭐라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듣지 못하니까 말로 하지 말고 종이에다가 글로 써달라니깐요 했더니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마지못해 종이에다가 적기 시작하더라고요. 적다가 ‘주사 맞아야 하는거 알아요? 몰라요? 주사실 어딘지 알죠? 몰라요? 주사실은 저쪽이에요.’ 하면서 마치 우리를 바보 취급하듯이 명령하듯 하는 거예요. 같이 주사실로 가서 주사를 맞고 왔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따지다가 수화로 뭐지? 하여튼 따지러 다시 성큼성큼 걸어 갔어요. 가서는 종이를 달라고 해서 적기 시작, 아니다, 그냥 말로 했구나. 암튼, 다리 다친 거 치료할 때 기기로 그렇게 마구 째어대서 만일 흉터가 남으면 간호사 당신이 책임질거냐고 따졌죠. 엄청 화가 나서 그렇게 쏘아 붙였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찢끔하더니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웃기만 하지 말고 치료할 때 의사면 의사답게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지 더군다나 우리는 듣지 못하는 농민인데 무시하는 거냐고 따졌어요. 그렇게 기막히고 억울한 심정을 마구 토해내고 나니까 의사가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앉았어요. 거기서 말하는 것보다는 종이에다가 직접 글로 적고 우리를 농인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고 하고, 치료할 때 왜 이렇게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난 후에 치료하면 좋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바로 치료를 하니깐 환자 입장에선 기분이 나빴다는 내용을 예의바르게 적어서 주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걸 받아들고 읽더니만 그 종이를 내던지면서 ‘그럼 다른 병원으로 가봐’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의사선생님이면 농아인이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잘 알텐데도 그렇게 우리를 차별 대우하는 걸 당하고나니 기분이 나빴어요.

진행자 : (허○○에게) 다리 다친 건 지금 어떤가요? 다 나왔어요?

허○○ : 지금은 괜찮아요. 많이 나왔어요.

박○○ : 그 병원, A 병원 말이에요, 학교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지, 기숙사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해요. 나도 그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아주 형편없었어요(꾸짖어요).

방○○ :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보고만 있고 나와 몇 사람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이런 자리에선 자기 속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이야기 좀 해 봐) 말해. 괜찮아.

허○○ : 하지만 이런 이야기 해 봐야 별 소용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솔직히, 말 해 봐야 별 소용도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여전히 특별히 뭐 달라진 것도 없어요. 오히려 좀 불편해요.

박○○ : 아니에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머리 속에 주입을 시켜야 해요, 세뇌를. 참기만 하다가 더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뭐가 되요?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말해야 해요.

진행자 : 저의 부모님은 농인이예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인데요, 아버지는 형제가 셋이었는데, 아버지는 둘째였어요. 아버지의 부모님은 외출을 할 때면 농인인 아버지만 집에 놔두고 형과 동생만 데리고 나가곤 하셨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시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얘기해 준 것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성○○ :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방○○ : 전 있어요. 몇 차례 그런 적 있어요.

허○○ : 없는데요.

박○○ : 저 같은 경우는 언니도 농인이라서 차별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보살핌을 잘 받았지요. 언니만 훨씬 더 잘해주고 왜냐하면 똑똑하니까요. 저는 그러지 못하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언니랑 다투고 그러면 부모님 두 분 다 언니 편들고 그랬어요(웃음).

진행자 : 부모님이 언니편만 들고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박○○ : 기분이 나빴지만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 일들이 아주 익숙했어요.

방○○ : 있었어요. 놀러갈 때나 친척집에 갈 때, 또는 잠깐 밖에 산책 갈 때 등 여러 번 있었어요.

진행자 : 형제가 어떻게 되나요? 농인 언니하고 또 있어요?

박○○ : 네. 남동생이 있어요.

진행자 : 그럼, 남동생을 대하는 거나 언니나 본인을 대할 때 뭔가 다르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박○○ : 차별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구요. 다 똑같이 대해 주셨어요.

진행자 :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박○○처럼 부모님이 똑같이 대해 주셨나요?

방○○ : 아니요. 어디 가자는 말도 없고 그냥 이름을 불렀어요. 동생이나 언니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나가곤 했어요. 저만 부르지 않았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도 그냥 밖에 간다고만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진행자 : 부모님이 본인한테 가자고 말했나요?

방○○ : 없었어요. 내가 먼저 나도 가겠다고 말했어요. 내가 먼저 말했어요.

방○○ : 또 말 없네. 여전히 몇 사람만 이야기 하고...

박○○ : 부모님이 자식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 주신다고 해도 부모인 청인입장과 자식인 농인입장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충돌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우리한테 자꾸 ‘수화하지 말고 말로 해’라고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좀 너무한 거죠. 너무해요.

진행자 : 부모님께서 왜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박○○ : 부모님께서서는 수화를 모르니까 (자식인 우리가 수화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혼자서 독립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게 이유죠. 수화보다는 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진행자 : 그 말에 본인은 동의하나요? 어때요?

박○○ :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둘 다예요.

진행자 :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요?

박○○ : 부모님이 수화하지 말고 말로 하라고 강요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얘기하세요.

표○○ : 나는 가족 중에 농인이 나 말고 아무도 없어서 말로만 해.

송○○ : 나도 그래.

진행자 : 여러분은 부모님이 수화하지 말고 말로 하라고 하면 거역하지 않고 겸손하게 잘 따르는 편인가요?

박○○ : 아니요(NO, NO 미국수화로). 우리 언니는 그런 말도 전혀 신경쓰지 않고 마냥 수화로 얘기한답니다. (웃음)

이○○ : 김○○야, 너도 부모님이 수화하지 말라고 한 적 있잖아. 그 얘기 하면 되겠네.

김○○ : 저는 부모님과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 늘 말(음성언어)로 의사소통 했어요. 여기 대학에 들어와서 수화를 배웠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학교에 오셔서 다른 농학생들과 수화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보시고 부모님이 수화하지 말고 말로 하라고 자꾸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좀 화가 나서 말씀 드렸어요. ‘나도 농인이고 저 학생들도 농인들인데 왜 수화하지 말고 말로 하라고 하는 거야. 수화 하면 왜 안 되는 거야?’ 하고 말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수화를 모르시니까 이해하기 어려우실지도 모르죠.

진행자 : 거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어떤가요?

김○○ : 부모님 생각이요? 제 생각이요?

표○○ : 본인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야.

김○○ : 나는 이 대학에 와서 수화를 많이 배웠지만 좀 잘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수화로 많은 이야기를 하면 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결국 화가 나서 다른 친구들이 서로 어울리고 있는데 저만 뛰쳐나가곤 했어요. 그리고 모두에게 문자를 보냈었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친구들이 이것저것 가르쳐 준 게 고맙고 또 충고도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운 거 같아요.

진행자 : 일반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지금도 만나요?

김○○ : 가끔 가끔요. 친한 친구도 있고 친하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제가 일반학교를 다녔는데, 말이 안 통해서 종이예다가 적고, 선생님 말씀하는 거 모르겠어서 옆의 친구거 보고 노트예다가 베끼고 그랬어요. 그렇게만 했어요.

진행자 : 그러면 집에서 부모님하고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나요?

김○○ : 아주 가끔씩 해요.

방○○ : 청인 학교에 다니기 힘들었을 때 부모님께 청인 학교 말고 농인이 있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한 적 있어?

김○○ : 있어. 나도 알고 있어.

박○○ : 그러면 부모님께 계속해서 반대 했어야지. 계속해서... 난 3년 동안 부모님을 조른 적이 있어. 전 3년 동안 계속 부모님을 졸라서 결국 부모님이 포기하셨어요. 결국 중3때 늦게 이사했어요. 복지카드도 중 3때서야 늦게 신청했어요. 원래 중1때 가고 싶었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하셔서 3년을 계속 졸랐어요. 그래서 결국 부모님이 허락해 주셔서 특수학교로 옮겼어요.

진행자 : 왜 학교를 옮겼나요?

박○○ : 그런데 청인 학교보다 특수학교가 훨씬 더 나아요. 청인 학교에서는 늘 나는 바보처럼 지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특수학교(농학교)에서는 수화로 서로 모두 의사소통이 가능하니까 세상의 모든 걸 다 알 것 같았거든요. 특수학교를 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진행자 :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걸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데 그걸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했어요?

박○○ : 맞아요. 3년 동안 계속해서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부모님이 포기하시고 학교를 옮겨 주셨어요. (웃음) 언니가 인문계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제가 3월에 전학하고 언니는 한 달 늦게 4월에 전학했어요. 저는 중3으로 언니는 고1로 전학했죠. 언니가 제일 늦게 왔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새로 들어간 것이어서 좀 늦었어요. 언니와 저 모두 청인학교에서 특수학교(농인학교)로 전학한 거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요구해야 해요.

진행자 : 아까 하던 이야기 계속 해볼까요?

김○○ : 나도 청인학교가 맞지 않고 힘들어서 자살하려고도 해보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참았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온 후에 나중에 부모님이 오셔서 미안하다고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눈물 흘리며 울먹거림)

박○○ : 부모님이 너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모였을 때 부모님에게 뭐하러 고기드시라고 말씀드렸어? 수화는 왜 하나고 말씀하셨다며... 김○○ 부모님이 수화를 왜 하느냐. 말과 함께 해라 그랬다잖아. 그래서 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고....

김○○ : 그 때 아빠는 생각 없다고 하셨는데....

표○○ : 예전에 농아인 친구들하고 선배 몇 명이 우리 집에 왔었는데 우리 아빠는 혼내거나 수화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간섭하지 않으셨어. 수화를 몰라도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관여하지 않으셨는데....

송○○ : 어려서부터 할머니하고도 잘 소통이 되었고, 다른 친척들하고도 소통이 잘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언어치료를 꾸준히 다녔기 때문에 소통이 아주 잘 되었어요.

진행자 : 지금도 가족들이나 친척들하고 소통이 잘 되나요?

송○○ : 지금은 (말? 듣는 능력?) 많이 떨어졌어요.

진행자 : 예전에는 말도 잘하고 소리도 잘 들었었나요?

송○○ : 네. 그래요. 잘 들었어요, 전화도 하고, 지금은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전화도 못하고 그래요.

진행자 : 전화는 못하지만 부모님하고 소통은 여전히 잘 되나요?

송○○ : 그럼요. 말도 하고, 오디오로 음악도 듣고 재미있게 잘 지냅니다.

진행자 : 학교는 어디를 다녔나요?

송○○ : 어려서부터 계속 농아학교를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하고 말하는 연습하고, 언어치료도 다니면서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진행자 : 그러면 지금도 말 잘하겠네요?

송○○ : 요즘엔 주위 친구들이 모두 수화를 사용하고 말은 아주 조금 하게 되니까 엄마를 오랜만에 1주에 한 번 주말에 만나면 더러 소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게 많이 안타까워요. 일주일 전에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전보다) 말도 못하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안타까웠어요.

진행자 : 대학에 와서 수화를 사용하면서 지내는 것과 예전에 말로만 하면서 지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나요?

송○○ : (친구를 돌아보며 씨익 웃음) 그냥 여전히 똑같아요. 친구들하고 수화하면서 잘 지내요. (웃음).

진행자 :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뭔가요? 행복했던 기억이든 안 좋았던 기억이든 다 괜찮아요.

방○○ : 고등학교 농아학교 다닐 땐가? 아니, 중2, 3때인가 그 때인데 청인 선생님이 계셨어요. 구화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선생님이셨어요. 하지만 엄하게 말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참고 수업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았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는데 기운도 없고, 몸이 안 좋아서 따라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듣는 시늉 하며 탄 짓을 했어요. 그 때 갑자기 선생님께서 마구 화를 내시며 ‘너는 학교에 뭐하러 왔냐, 학교에 왜 왔냐, 왜 장애인이 되려고 하냐, 장애인이 되고 싶냐, 지금 말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말 못한다. 죽을 때까지 못한다.....’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야단치시는 것이 무척 기분이 나빴어요. 장애인이 되는 것(연습하지 않으면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인지 더욱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그렇게 야단치시는 것은 기분이 더 나빴어요. 제가 울고 있는데 선생님은 책을 덮으시며 가라고 하셨어요. 지금 담임선생님께 말씀 드릴 테니 학교 그만 두고 부모님께 말씀 드려서 다른 것 배우고 싶으면 그런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너는 왜 장애인이 되었느냐, 부모님이 원해서 되었느냐, 뭐하러 말을 배우느냐, 배우기 싫으면 어서 가라, 너는 말도 못하는 장애인이 되어 봐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수업시간인데도 울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 때 담임선생님과 부담임 선생님 두 분이 보고 계셨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무시하고 갔어요. 선배 한 분이 절 위로해 줬어요. 왜 우는지도 물어보시고 이런 내용을 학생회장에게도 말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말없이 화내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참으라고 했어요. 더 서러워서(기분 나빠서) 결국 참지 못하고 담임선생님께 말씀 드렸어요. 담임선생님께서 도와주시고 교감선생님께도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오후에 무슨 상담을 하시는 듯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를 혼내셨던 그 선생님께서 오셔서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사과하셨어요. 하지만 내 기분은 풀리지 않았고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알았다고 앞으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구화(말 가르치는 과목)과목 말고 다른 교과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무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도 서로 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 때 울만큼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여기서 ‘장애인’은 ‘병신’을 말하는 것 같아요.

박○○ : 말 한 번 실수하면 우리들은 모두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오랜 동안 기억할 게 되죠.

방○○ : 맞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받는 말을 듣고 며칠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이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성○○ : 저도 그래요.

허○○ : 맞아요.

성○○ : 맞아요.

방○○ : 그래요.

허○○ : 가끔 그래. 다는 아니고 가끔...

방○○ : 혼자 외롭죠.

진행자 : 그런 경우엔 말 안하고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방○○ : 아니요. 무조건 말해요. 불려서 좀 들어보라고 직접 말해요. 아빠에게도 말해요. 나이가 많더라도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더라도 사람마다 자기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보고 알아두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언니가 간단하게 대충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이런 생각 때문에 자주

다튀요. 남동생은 아직 어리니까 그냥 넘어가지만 부모님에게는 늘 제가 늘 말하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종종 갈등을 빚기도 해요. 예전엔 많이 참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들어서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앞으로 독립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빠에게 사회생활에 대해 늘 물어보고 이야기해달라고 해요. 내가 너무 모르더라도 이야기해 달라고 늘 그래요.

진행자 : 그러면 사람들이 잘 얘기해 주던가요?

방○○ : 들어줄 때까지 계속 시도하죠.

성○○ :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진행자 : 명절 때 보면 오랜만에 친척들이 같이 세배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하면서 모이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셨어요. 내가 지켜본 바로는 큰 집에 가서도 제사 지내고 밥 먹고 나면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친척들이 수화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어서 내가 중간에 통역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한데도 아버지는 꼬박꼬박 명절날이면 어김없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친척들하고 친한 편인가요?

박○○ : 친척들하고 안 친해요.

표○○ : 저도 친척들하고 안 친해요.

이○○ : 전 언니 한 명 있어요.

변○○ : 전 없어요. 없어요.

송○○ : 전 엄마 말고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 :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랑) 수화로 대화하면 잘 통하고 쉽게 이해가 돼요.

방○○ : 맞아요. 예를 들어 오랜만에 친척 집엘 가 봐도 자기들(친척들-칭인)끼리 이야기하고 전 혼자 문자를 보내거나 TV를 보거나, 혼자 밖을 구경하거나, 혼자 놀아요. 다른 사람들(농아인 친구들)도 저랑 비슷할 꺼예요.

송○○ : 맞아요.

김○○ : 맞아요. 그래요.

변○○ : 맞아요. 그래요.

박○○ : 전 제사도 안 하고 세배도 안 해요.

진행자 : 그럼 뭘 하나요?

박○○ : 이모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 와요. 그러면 그냥 친구 만나러 밖에 나가요. 어차피 말도 안 통하니까요.

송○○ : 나도 그래. 티비를 본다거나 컴퓨터를 해. 조카들이 오면 짜증이 나.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럼, 여러분은 시간이 나면 뭘 하나요? 심심하거나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뭘 하며 지내지요?

송○○ : 컴퓨터를 해요.

박○○ : 과제를 하죠.

표○○ : 그게 아니라 심심할 때 뭐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저는 영화를 봐요.

박○○ : 저는 시간이 날 때면 네이트온(채팅)을 해요.

진행자 : 채팅하면서 주로 무슨 얘기들을 하나요?

박○○ :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누구때문에 생긴 일(협담, 또는 뒷담화를 의미하는 듯)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있고 그래요.

허○○ : 저는 그냥 네이트온으로 이야기 하고, 이야기하기 싫으면 네이트온을 끄고 영화를 보든지 그냥 자든지 두 가지 다 가능하죠.

방○○ : 맞아요.

이○○ : 전 그냥 영화를 보거나 커피숍을 가거나 예쁜 옷을 보러 쇼핑을 한다거나 하죠. 그냥 청인들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요.

진행자 : 청인들은 어떻게 노는데요?

이○○ : 청인들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취해서 그렇게 하지만 농인들은 영화 보러 가거나 영화 보고나서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커피숍에서 남자 얘기도 하고 또 누구에 대해서 협담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다 똑같죠, 뭐.

진행자 : 인터넷으로 채팅하는 것 말고 직접 만나기도 하나요?

박○○ : 채팅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는 게 훨씬 좋죠. 실제로 여럿이 모여서 수다를 떨지요.

진행자 : 그렇게 모여서 수다 떨고 또 뭐하고 놀아요?

박○○ :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노래방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진행자 : 주로 농인들끼리 모여서 놀아요? 아니면 청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나요?

박○○ : 청인이 거기에 끼면 뭐해요?

진행자 : 청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친해지는 거잖아요?

송○○ : 왜냐하면 청인들이 수화를 모르니까 청인끼리 모이고 농인끼리 모이게 되죠. 그렇게 이상하니까 청인들은 청인들끼리 어디론가 가고 농인들도 농인들끼리 가서 노는거죠.

허○○ : 그렇지만 청인과 농인이 함께 가면 뭐해요. 가서 결국은 따로 따로 노는데요. 가기는 함께 가더라도 결국은 따로예요. 서로 불편해요 그래서 결국은 따로 놀게 되요.

송○○ : 그래. 맞아.

이○○ : 청인들하고 같이 가더라도 처음에는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끼리끼리 모여서 얘기하게 되요.

송○○ : 맞아요, 맞아.

표○○ : 물론 청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게 좋지만 청인들이 농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박○○ : 그래, 맞아요.

진행자 : 그건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박○○ :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있어도 잠시 후에는 외면하게 되요. 청인들끼리 서로 말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죠.

방○○ : 맞아요.

허○○ : 그래요.

표○○ : 맞아요. 이해하지 못해요.

방○○ : 맞아요. 그리고 수화는 누구 것이죠? 수화는 농아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청인이 만든다는 것은 좀.... 예를 들어 과제할 때 청인학생들이나 농학생들만으로 각각 조를 만들 수 있지만 서로 친분을 쌓고 수화도 서로 도움이 되도록 청인과 농인이 함께 조를 편성하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수화를 각각 하고 서로 잘 된 것과 고칠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면 좋은데 서로 불평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수화를 틀렸다가나 이상하다고 하면서 혼나기 싫으니까 청인인 사람이 하라고 했던 그대로 하자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화가 나요. 그래서 다툼 적도 있어요. 다툼다던지 아니면 더 고치자고 하면 화장실을 간다느니 하면서 흩어져 버리거나, 보고서를 이미 다 복사했으니 그냥 그대로 하자거나, 이미 문서 작성을 다 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척 화가 나요. 그리고 나면 하루 이틀 동안은 청인을 만나기가 싫어져요.

박○○ : 교수님 과제한 것에 대해서 교수님 오해하신 거 있어요.

방○○ : ^^

진행자 : 아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지난번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야단쳤네요. 미안해요. 이해해 주세요.

방○○ : 알겠습니다. ^^

이○○ : 청인들 가만 보면 수화하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농인은 그냥 자신있게 수화를 하죠, 왜냐하면 농인에겐 말 대신 수화가 손으로 하는 말이니깐요. 그런데 청인들 수화하는 걸 보면 표정이 마치 창피해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방○○ : 수화는 언어라고 말해도 “수화하지 말고 말로 해. 수화로 하려면 기다렸다 해. 집에 가면 이야기 해 줄게. 수화를 하려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해.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 정말 기분 나빠요. 정말 기분 나빠요. 수화가 창피한 게 아닌데..

이○○ : 그래요, 맞아요.

박○○ : 농인끼리 이야기하고 있을 때 청인이 옆에 같이 있으면 청인이 우리 농인들 눈치를 봐요.

방○○ : 맞아요.

이○○ : 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건데 청인이 자기 욕하는 거 아니냐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청인들이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수다를 떨고 얘기를 나누는 것인데도 청인들이 농인들이 수화를 하는 걸 보고 혹시 자기 욕하는 건 아닌지 하는 오해를 많이 해요.

진행자 :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농인하고 있을 때가 편한가요? 청인 친구하고 있을 때 편한가요?

이○○ : 저는 지금까지 청인들 속에서 19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저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농문화를 접하고나서 편해졌어요. 대화를 하는 것도 편하고 청인들하고 얘기할 때보다 농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더 편해요.

송○○ : 저는요, 청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청인들 속에 나혼자 있을 때) 비밀 얘기를 한다거나 제가 듣지 못하니까 내 욕을 한다던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 : 맞아요. 청인들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농인들이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둘러보며)
내말이 맞지?

송○○ : 맞아요, 맞아.

허○○ : 맞아요

방○○ : 맞아요. 청인이 아무리 수화를 잘해도 예를 들어 수화를 잘하고 다른 청인과 농인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 할 때는 비록 수화와 말을 동시에 하는 것이 문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알지만 농인이 있으니까 말을 할 때 수화와 함께 해 주면 좋은데 청인에게 먼저 실컷 말로 이야기 하고 농인에게 따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는 식이라면 솔직히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청인들이 모여 있다면 거기에 농인이 끼어 있어도 그 자리에 함께 하기 싫어요. 기분이 이상하고 무척 불쾌한 느낌이에요.

진행자 : 처음부터 수화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꾸 만나고 같이 지내다보면 서로 친해지고 그러면서 수화도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방○○ : 비록 수화를 잘 못하더라도 청인이 와서 적극적인 자세로 지화로 라도 써 가면서 물어보고 열심히 하면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알려주고 해도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어요.

이○○ : 맞아요.

송○○ : 맞아요.

성○○ : 저는 농아인 친구만 만났어요. 청인 친구들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진행자 : 여러분 중에 청인 친구가 있는 사람 있나요?

방○○ : 전 청인은 없어요....

허○○ :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친구가 있는데 그 분의 딸도 저랑 친구예요. 20년을 각자 봐 왔지만(각각 자랐지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도 서로 불편함이 있어요.

방○○ : 맞아.

진행자 : 불편하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허○○ : 처음에는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면서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괜찮았고, 믿을 수 있을 꺼라고 생각했는데 다 자라서 보면 가끔 어느 순간 배신할 수 있고 또 갑자기 다른 친구들에게 나에 대해 섭섭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어떤 친구가 저에게 말해 줬어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는데 서운하다느니, 성격이 나쁘다느니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좀 배신감? 아니, 좀 불편해 졌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는데도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진행자 : 여기 온 사람들은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허○○ : 모두 처음 만났어요.

박○○ : (허○○를 가리키며)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허○○ : 어휴 민망해라~

(거의 대부분이 여기 대학을 와서 처음 만난 사이라고 이야기 함.)

진행자 : 다들 처음 만났는데도 금방 친해지네요. 무슨 비결이 있나요?

방○○ :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진행자 :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방○○ : 어려워요.

진행자 : 뭐가 어려워요?

방○○ : 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성격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친해지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예민하게 굴어요. 방○○는 보면 늘 자기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나서요. ^^

박○○ : 이중에는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진행자 : 그런가요?

방○○ : 박○○는 몇 번이라도 시도해서 결국 친해져요.^^(18:57)

박○○ : 그래, 니가 이겼어.

방○○ : 박○○는 애정표현도 잘 해요. ^^ 짜증내요.

박○○ : 지금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어. 카메라가 여기저기 있다구. 자~ 잘 보세요!

(일동 웃음).

진행자 :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농인이에요. 연애결혼을 하셨는데요, 두 분이 결혼하실 때 할아버지가 반대를 하셨답니다. 이유는 농인끼리 결혼하면 친지들하고 연락은 어떻게 하며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고 하면서 반대를 하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청인하고 결혼하면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면서 농인하고 결혼하겠다고 해요. 결국은 큰아버지가 아버지 편을 들어서 두 분이 결혼하게 되셨구요. 그 당시에 두 분처럼 농인끼리 결혼하는 일이 아주 굉장한 뉴스꺼리가 되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결혼을 한다면 누구랑(청인, 농인) 하고 싶은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왜 그런지 같이 얘기해 줄래요?

송○○ : 전 상관없어요.

표○○ : 저는 농인이건 청인이건 상관없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마음하고 말이 잘 통하면 되요. 농인인가 청인인가는 상관하지 않아요.

진행자 : 만약 그 사람이 수화를 모른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표○○ : 그럼 수화를 가르치면 되죠.(웃음)

박○○ : 전 청인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농인이면 아이를 키울 때 곤란하잖아요. 우리 둘이 자고 있고 애기는 마냥 울고 있다면 그땐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혼 상대자로) 청인이 낫다고 생각해요. (결혼 상대자로) 농인은 좀, 좀(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요.

진행자 : 아이 키우는 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한테 맡기기도 하잖아요?

박○○ :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지요. (웃음)

방○○ : 또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린) 아이에게 상처가 될 거예요. 다른 아이들의

부모는 청인이고 한 아이는 부모가 농인이신데 학교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운동회가 있어서 모시고 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과 서로 이야기하며 즐거워 하는데 부모가 농인인 아이는 아무 대화도 않고 있거나 자꾸 다시 천천히 말하라고 하거나 그저 가만히 있게 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상처가 될 거예요. ‘과연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도 들고요.

박○○ : 처녀로 살아라~

표○○ : 입양하면 되겠네~

진행자 : 농인이면서 청인 아이를 잘 키우는 사례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방○○ : 그냥 제 생각(느낌)이에요. ^^

진행자 : 그럼 농인이 아니라 청인하고 결혼할 건가요?

방○○ : 전 결혼 안 할 거예요.

진행자 : 아니 왜 결혼을 안 해요?

방○○ : 전 원래부터 결혼 안 하려고 했어요.

박○○ : 남자 때문예요, 남자 때문예요. (과거에) 남자에게 이미 상처를 받았었기 때문에 사랑이란 게 끔찍하네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방○○ : 마음을 열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요.

진행자 : 그럼 친구들은 어떤가요?

방○○ : 청인도 있고 농인도 있고 둘 다 있어요.

진행자 :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나요? 좋아하는 감정 같은 거 말이에요.

방○○ : 글썽요.... 그냥...뭐..

진행자 : 같이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다보면 자연스럽게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방○○ : 꼭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라도 나도 모르게 그냥 기분이 상하고 갑자기 눈물이 나고 상처를 많이 받게 되요. 뭐~, 배신감이라든가... 많이 힘들죠.

진행자 : 사람은 모두 똑같지 않아요. 저마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사귀다보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방○○ : 맞아요.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면서 그리고 아픔도 경험하면서 성장한다는 건 아는데 전 마음대로 잘 안 되요. 남자를 보면 싫어지고 못 믿겠고, 믿고 싶다가도 또 갑자기 믿기 싫어지고 가까이 하기 싫고 몸에 닿는 것도 싫어요. 몸이 닿으면 정말 싫어요.

이○○ : 농인하고 결혼해도, 청인하고 결혼해도 마찬가지로 봐요. 예를 들면, 청인하고 결혼해도 장, 단점이 있고 농인하고 결혼해도 장,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봐요.

송○○ : 맞아요.

진행자 : 장점과 단점이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말해줄래요?

이○○ : 예를 들면 농인은 책임감이 없고, 농인은 배려도 못해, 남자가 군대도 못가서 철이 없고요. 청인은 여자를 잘 위해 주지만 끝까지 잘해 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청인들만

있는 친지와 가족들 속에 농인 여자 혼자서 지내는 데 과연 끝까지 잘해 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장, 단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농인이나 청인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좌중을 둘러보며). 농인 남자와 청인 여자가 결혼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마음이 서로 잘 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농인이 나온지 청인이 나온지 알 수 없지만요.

박○○ :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진행자 : 여러분은 기분이 좋지 않거나 화가 날 때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박○○ : 저는 노래를 아주 크게 틀어놓고 컴퓨터 해요. 그리고 나면 시원하게 풀려요.

송○○ : 저는 친한 친구를 만나서 마구 얘기해요.(털어봐요).(웃음) 또 하나 마구 먹어요.

표○○ : 저는 산책을 해요. 그리고 마구 먹어요. (웃음)

김○○ : 노래를 듣거나 산책하거나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요.

진행자 : 농인이면서도 노래방을 그런 이유로 가는군요. 노래방에 혼자 가나요?

김○○ : 혼자서 갈 때도 있고요. 친구들과하고 같이 갈 때도 있어요.

변○○ : 전 그냥 자버려요.

진행자 : 농인이라서 노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이네요?

이○○ : 듣지 못해도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송○○ : 맞아요. 농인들도 노래방 가요. 할 수 있어요.

진행자 :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면 속이 시원해 지나요?

이○○, 송○○ :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요.

이○○ : 음악을 듣거나 친한 친구를 만나서 수다로 풀기도 해요.

변○○ : 전 그냥 자버려요.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자요.

방○○ : 처음 봐.

진행자 :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요?

방○○ : 처음 듣는 것도 있고... 보고 있으면 '어머 그렇구나~' 싶고, 그냥... 간단하지 않아요. ^^
참! 허○○야 너는 어떻게 해소하니?

허○○ : 응, 근데 나도 변○○처럼 똑같이 자는데...

진행자 : 화가 나면 그걸 풀기 위해 자는 사람도 있군요. 그거 말고 또 없나요?

허○○ : 음악 들으면서 무조건 자요.

진행자 : 자고나면 다 풀리고 시원해 지나요?

허○○ : (고개를 끄덕이며) 네~.

방○○ : 전 많아요. 엄청나게 먹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낙서를 하거나, 미친 듯이 웃어요.

하하하 하고요. 아니면 밖을 배회(돌아다님)해요. 또 마구 달리든지, 욕을 하든지,
혼잣말로 마구 중얼거리거나 또는 아주 친한 친구나 아니면 룸메이트나,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불러서) 수다를 떨어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요. 아니면 언니에게
전화를 하든지요....아주 많아요.

진행자 : 언니한테 전화를 한다구요?

방○○ : 결국 아는 언니가 말을 ...(웃음). 몰라요.(웃음) 이상이에요.(웃음)

성○○ : 저는 놀거나, 낙서를 하거나, 이 친구 저 친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 종이를 북북 찢기도 해요.

방○○ : 저도 그래요. 버리기도 해요. 물건을 버려요. 저는 물건을 버리기도 해요.

진행자 : 저는 젊었을 때 화가 나면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문을 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문이 부서진 적이 있었어요.

성○○ : 저도 문이 부서진 걸 봤어요.

진행자 : 본인이 쳐서 그렇게 한 건가요?

성○○ : 저도 우리 집에 문이 부서진 걸 봤어요. 부모님이 싸우시고 아빠가 화가 나서 문을 ‘짱’하고 주먹으로 치셨어요.

진행자 : 화가 나면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기도 하죠.

방○○ : 맞아요. 가끔 그런 농인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이○○ : 저도 진짜로 화가 나면 주먹으로 때려요. 사람을 패서라도 정신차리라고 해요.

박○○ :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나랑 똑같네.

표○○ : 나는 화가 나면 주먹으로 책상 같은 거 내려치는데.

박○○ :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의사들이 인공와우 수술을 자꾸 하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진행자 : 글썄요, 왜 자꾸 수술을 하라고 하는 걸까요?

박○○ : 제가 보기엔 수술을 하라고 해서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여요. 농인을 위한다기 보다는 자기들 잇속 챙기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렸을 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다 큰 사람한테 수술하라고 하는 것 너무 심하거 같아요.

진행자 : 제가 아는 어떤 농인은 보청기를 했는데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보청기를 빼서 내려놓는 거래요. 그러면 아주 개운하다고 하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방○○ : 소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그 소리에 익숙한 사람은 그 소릴 듣고도 아무렇지 않아요. 자주 들어서 익숙하니까. 그 사람은 소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이○○ : 보청기를 끼었을 땐 아주 정신없이 시끄럽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러죠. 보청기의 전원을 끄면 아주 조용해지고 평화스러워지지요. 맞아요.

방○○ : 억지로... 하는...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듣지 않는데, 주변 상황이 꼭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끔씩 보면 주변 환경이, 부모님이 억지로 인공와우를 하라고 해서, 싫다고 거절해 보지만...싫으면 싫다고 자신의 마음을 말하면 되는데, 그냥 좋다고 알았다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학생을 가끔씩 볼 때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나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 부모님께 하지 마시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와 직접적인 어떤 관계도 없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알아서 하게하고

물려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진행자 : 여러분은 친구들을 만날 때 약속을 어떻게 하나요?

박○○ : 영상통화로 해요.

이○○ : 휴대폰 문자로 보내거나 영상통화로 하지요.

방○○ : 거리가 먼 사람은 한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서로 시간을 맞춰서 만나기도 하고 서로 거리가 가까워도 바빠서 많이 만나지 못하고 이야기를 못해요. 자기 시간이 남아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내서 바쁘지 확인하고 만나게 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것인지 서로 약속을 정해요. 가까이 있는데도 못 만났기 때문에 가까운 학교 앞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시내에서 잠깐 만나든지 해요. 보통 평일에는 못 만나고 주말에 많이 만나죠.

진행자 : 농인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표○○ : 농인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편이지요. 특히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편이죠.

박○○ : 난 안 그러는데요, 청인이 늦게 오던데요. 그리고 농인들이 시간 약속을 안 지킬 때는 일 핑계를 많이 대요. 전 안 그래요.

송○○ : 대체로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요.

이○○ : 저는 약속을 잘 지켜요.

방○○ : 저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이○○ : 가끔 약속을 해놓고는 그 다음날 약속을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알았다고 하고 그 다음 주에 직접 만나서 마구 뭐라고 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요. 문자로 하면 소용이 없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효과가 있어요. 직접 말하는 게 훨씬 나아요.

방○○ : 약속을 ...아니요... ^^ 그런데 저는 가끔씩 어기기도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지키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생기면...

허○○ : 저는 그냥 1, 2분 정도 늦을 뿐인데 그냥 약속을 어기게 되요.

진행자 : 약속을 해놓고는 안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허○○ : 가끔요...^^

방○○ : 만약...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다른 일이 있더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약속을 잡아요. 그런데 3~4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답이 없어서 결국 날이 저물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만나서 왜 안 나왔는지 물어보고 그 사정을 이야기하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 입장은 뭐냐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핑계나 변명을 듣기보다 사과를 듣고 싶은 거예요. 미안하다는 한마디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이 고장나서 어쩔 수 없었다는 등 이런 저런 변명을 하는 사람을 보면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정말로 절교하고 싶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몇 있었어요.

표○○ : 누군데?

박○○ : 청인이야. 무식하게 그렇게 오래 기다리냐?

방○○ : 그래서 연락을 끊었어.

박○○ : 알았어.

진행자 : 지금 몇 시죠?

성○○ : 8시 20분이에요.

방○○ : 8시 13분이에요.

진행자 :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좀 쉬었다가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할까요? 어때요?

박○○ : 쉬지 말고 계속 끝까지 해요.

변○○ : 괜찮아요.

성○○ : 빨리 빨리 해요.

방○○ : 왜냐하면 쉬었다가 다시 하면 이야기가 끊어져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분위기 탔을 때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게 나아요.

(일동 동의함).

진행자 : 그러지요. 여러분들이 휴식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 해도 된다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여러분은 자신이 농인인 게 자랑스러운가요? 농인으로서 자부심 같은 것이 있나요?

박○○ : 글썄요.....

표○○ : 그건 생각해보지 못 했는데요.

이○○ : 저는 농인으로서 꼭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농인끼리 모여서 술 마시러 가자고 해도 가고, 청인들이 모여서 술 마시러 가자고 할 때도 같이 가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손가락으로 사람을 지목하며) 니네들이 바로 장본인이야. (다른 사람을 지목하며) 너도 그랬잖아~

방○○ : 우리 농인들끼리 모여서 한잔 하러 가자. ^^

이○○ :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농인이 취직을 하려고 회사에 찾아 갔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알았다고 하더니 수화통역사를 불러 면접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거 보면 차별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도 미국에서처럼 농인으로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외치면 좋은데요. 미국의 경우, 농인이 회사에 취직이 되어도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서 농인하고 같이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한국사회도 복지가 잘 되어서 농인이 회사에 취업이 되면 미국처럼 수화통역사가 와서 통역을 하면 좋겠어요. 농인이라고 해서 저는 듣지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농인은 듣지 못할 뿐이니까 듣지 못하니까 어쩔수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농인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방○○ : 그런데 여기는 상관 없는 학교이지만, 작년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었잖아요. 그런데 생활면에서 보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법이 있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느껴져서...

진행자 : 자부심이란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구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일본에서 농인부부가 한국을 방문해서 같이 요 근처에 있는 성요셉의 집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농인어르신들과 얘기를 했어요. 그 일본 농인부부는 부모도 농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농인가족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 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농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반면에 농인어르신들은 구 일본에서 온 농인부부를 안쓰럽게 쳐다보았죠. 그게 참 인상적인 일로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신이 농인이란 게 자랑스러운가요?

이○○ : 제가 말로 대화를 하다가 수화를 배운 이후로는 저한테 말로 하는 청인에게 수화로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문자로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방○○ :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박○○ : 제가 제일 싫은 건 청인들이 수화를 볼 처음에는 매력있다, 멋있다고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다가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시들해져서 나중엔 수화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어이없는 웃음)

표○○ : 맞아요, 맞아. 청인들이 수화를 배우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욕을 수화로 어떻게 하냐는 거죠.(웃음)

이○○ : 제가 이 학교에 들어와서 1학년 때는 말로 의사소통을 했지만 수화를 배우고 나서 2학년 때부터는 입을 꼭 다물고 수화만 사용을 해요. 그랬더니 같은 과 청인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말을 할 때 다들 알아서 지문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알아서 말이에요. 더러 말로 얘기하는 청인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하는거야? 모르겠어. 라고 해요. 글로 적어보라고 하면 적어요. 그렇게 자부심을...

박○○ : 제가 봤을 때 농인들은 자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농인들은 대체로 청인이 훨씬 낫다(뛰어나다, 좋다)고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 걸 볼 때 농인들은 자부심이 없어요.

진행자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억에 남는 일 중에서 좋았던 기억이나 안 좋았던 기억이 있는지요?

박○○ :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를 하잖아요. 저만 농아고 모두 청인이었어요. 선생님 입모양을 보고 했어요. 듣지 못하니까 입모양만으로 받아쓰기를 해서 적었어요.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맞혀서 100점이었는데, 선생님이 판단하기에는 그게 아니었나봐요. 제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제가 컨닝을 한 걸로 판단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제가 컨닝을 해서 100점이 된 걸로 오해한 좋지 않은 추억이 있어요.

진행자 : 입모양만 보고도 그렇게 100점을 받을 수 있어요?

박○○ : 입모양만 보고 했어요. 교실구조도 혼자서 책상을 사용했었고 간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쓰는 걸 어떻게 봐요?(볼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걸 선생님은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방○○ :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장애인(병신)이 되려면 학교에 왜 왔냐’고 했던 것이고, 첫 번째는 초등학교 때인데 전 농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니지 않았어요. 4~5년 늦게 들어갔어요. 그 전에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특수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부모님이 모르셨어요. 그래서 일반학교를 다녔는데 반에 나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출석을 부르면 누구 다음이 나인지 순서를 알고 있었어요. 그 때는 보청기도 없고 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내 차례가 되서 손을 들었는데 주변에서 웃는 거예요. 제 차례가

아니라면서... 선생님이 장난치신 거예요. 그 때 시험받는 기분이 들어서 매우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 울면서 집에 와버렸어요. 엄마가 무슨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런 말을 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학교에 전화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더 찾아보려고 해서 학교를 그만 두고 집에 그냥 있다가 부모님이 학교를 수소문해 찾으셔서 함께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그 청인학교와 선생님의 장난(놀림)은 정말 기분 나빴어요.

진행자 : 다른 사람은 이런 일 겪어본 적 없어요?

성○○ : 없는 것 같아요.

방○○ : 나는 있지만 모두 없어요. 없지?

이○○ : 제가 올해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환영의 밤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우리 과 교수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지금 빨리 ○○ 대학으로 가서 준비하라고요. 그 행사장에 수화통역사가 있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하느라고 ‘잠깐만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말로만 얘기하고요. 그사람 수화통역사 맞아요? 계속 말로만 얘기를 해요. 제가 수화통역사에게 지금 빨리 ○○ 대학으로 가야해요라고 했는데도 아니야, 이따가 저녁에 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한테 문자를 받았다고 저녁 6시까지 꼭 오라고 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알았다고만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행사장에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걸 수화로 알려주지는 않고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니깐 머뭇머뭇하다가 나중에야 말하기를 대통령 영부인이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을 나한테 미리 말해주면 좋을텐데 안 해주니까 상황이 더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고 했지요. 기능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내내 그 수화통역사는 저한테 수화통역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회 끝나는 날 종이에다가 당신 수화실력이 아주 형편없다고 적어서 주고 왔어요. 그 사람은 수화통역하러 온 게 아니라 돈을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싫어요.

박○○ : 맞아요. 전국장애인체육대회할 때 보면 거의가 수화통역하러 온 사람들이 수화를 몰라서 지문자로만 해요. 왜냐하면 봉사점수 채우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돈 벌려고 하는 경우 그렇게 두 가지로 하는 것 같아요.

방○○ : 예를 들자면 수화를 잘하는 청인 친구가 있어요. 가끔 이야기 할 때나 아니면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아니 분위기가 좀 썰렁할 때(down) 분위기를 띄우기(up)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너 말 할 줄 알고, 보청기로 들을 수 있잖아. 말할 때....' 욕을 하면서 '너 말 할 수 있잖아. 한 번 해 봐. 해 봐. 괜찮아? 어려워? 어렵지 않아?' 욕을 하는 것은 아무리 장난이라지만 호기심에서 그런지 알지만 농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해야지 이런 장난은 해도 되는지 좀 생각 좀 해보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너 말 할 때 불편해? 혀가 어색해?' 등등 이렇게 놀리는 건 정말 기분 나빠요. 입모양 가지고 놀리거나 무슨 소리가 있을 때 그 소리 가지고 '저 소리 들려? 안 들려?' 이런 소리나 입모양 가지고 놀리는 이 두 가지는 정말 기분 나빠요. 웃자고, 재미있자고 하는 소리지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가끔 청인들 중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 너희들도 다 그런 경험들 있지?(매우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표○○ : 초등학교 다닐 때 좋지 않은 추억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느 날인가 청인이 5학년인가 4학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때 청인 언니랑 말다툼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저에게 욕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주위에 있던 다른 청인 애들까지 모두 저를 비웃었어요. 그 때 일로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선생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하니가 청인 애들이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저를 마구 혼내셨어요. 그 때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참 싫어요.

진행자 : 다른 사람들은 울거나 그런 적 없어요?

박○○ : 있어요. 기분이 상해서 울었어요. 저는 어릴 때 병어리라고 놀리는 것 때문에 울었던 적이 있어요. 병어리라는 말도 싫구요, 귀머거리, 애자라는 소리를 듣는 게 싫어요. 다 싫어요. 그런 단어를 듣는 순간 옛날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싫어요)

표○○ : 그 때 저는 ‘병어리’라고 한 걸 ‘병아리’라고 한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계속 하길래 봤더니 그게 ‘병어리’라고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구 울었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특히 남자애들이 그렇게 장애라는 이유로 엄청 놀려대곤 했어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놀려대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가끔씩 수업 시간에 빠져 나가곤 했어요.(웃음)

방○○ : 있어요. 최근에 울었어요. 추석 때.. 최근에는 추석 때 울었구요. 그리고 더 오래 전엔 같은 과 친구가 나에게 병어리라고 했어요. 우리 과의 서○○가 ‘병어리’라는 수화를 모르는데.. 원래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인사하는 동안 웃으며 서로 ‘안녕!’ 하고 인사하는데 나를 부르더니 ‘병어리(수화)’를 하고 아냐고 물어보더니 나에게 ‘병어리(수화)’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수화를 몰랐는데 계속해서 저를 부르면서 ‘병어리(수화)’라고 했어요. 저는 몰랐고 그 친구는 웃으면서 가버렸어요. 저도 모르니까 그냥 따라서 웃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알게 되었어요. 확실하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병어리’라는 뜻인 줄 알고 정말 기분 나쁘고 화가 났어요. 알아보니 그 수화를 계속해 선배가 가르쳐 줬다더라고요. 선배에게 화를 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농아인의 입장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말하기 전에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더 퍼뜨리지 말아 달라고 선배에게 말했어요. 선배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날 저를 놀렸던 그 친구도 미안하다고 하고 걸으로는 서로 화해했지만 기분은 풀리지 않았죠. 그냥 데면데면 해요. ‘병어리(지문자-혼잣말)

진행자 : 병어리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나요?

박○○ : 아니요. 금○○가 말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 ‘애자’ 라는 표현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칠판에 적혀있는 걸 보고 옆의 짝에게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랬더니 장애인을 비하해서 놀릴 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지요. ‘장’을 빼고 ‘애자’라고만 해서 표현하더라고요.

표○○ :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농인들이 특수학교를 다닐 때보다는 일반학교를 다닐 때 그런

놀림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변○○ : 저도 일반학교를 다녔는데요, 청인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침도 뺀고 등등. 그럴 때 저는 그 친구들을 때리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할 때 그냥 각자 취향대로 하라고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청인들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방○○ : 만약에 농아인 친구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사귀는데 청인과 농인이 서로 돕기도 하는데 누가 놀리거나 하면 보호해 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청인이 아무리 친해도 서운한 것도 있고 아니면 좀 불편해 하는 것도 있고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박○○ : 또 있어요. 일반학교를 다닐 때였는데요, 모두가 청인이고 저만 농인이었는데, 그때 청인 중의 한 아이의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돈을 찾는 과정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과정에서 청인 아이들이 다들 안 했다고 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 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 내가 돈을 훔쳐갔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마구 야단치셨어요. 누명을 쓴 거죠. 훔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가끔씩 누명을 쓴 적이 있었어요.

김○○ : 저도 그런(누명) 적 있어요.

박○○ : 일반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다들 안 좋은 추억이 많구나.

진행자 : 일반학교를 다니면서 놀림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는군요.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김○○ : 네. 맞아요.

박○○ : 장애라고 해서 많이 놀리지요.

이○○ : 전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을 다녔는데 청인들하고 같아요. 괜찮았어요.

진행자 : 여러분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농인으로 태어나고 싶은가요? 청인으로 태어나고 싶은가요?

방○○ : 농인.^^ 농인. 농인(세 번째만 귀를 먼저 했음). 난 농인이에요.

허○○ : 저는 농인이에요.

송○○ : 저는 청인이에요.

이○○ : 전 다시 태어난다면 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농인으로 사는 건 이미 해본 거니까 앞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청인으로 태어나서 청인문화가 어떤지 알고 싶어요. 농인은 항상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청인은 얼굴을 보지 않고도 대화하고, 앞뒤로 앉아서 대화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꼭 해보고 싶어서요.

박○○ : 전 농인이에요. 왜냐하면 장애인 제도나 복지가 발전하니까 앞으로도 더 발전할거구요. 그러니까 다시 농인으로 태어나도 얼마든지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이야 발전이 아직 안 되었지만 앞으로는 발전이 될 테니까 농인도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방○○ :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표○○ : 저는 청인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농아라서 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청인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 해보고 싶었던 피아노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요.

김○○ : 전 청인이요. 청인이 되어 말을 하고 싶구요, 사회생활을 많이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송○○ : 저는 청인이요. 많은 사람들과 말로 대화를 하고 싶구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요.

방○○ : 저는 농인이요. 전 청인이 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지금 이대호가 좋아요.

성○○ : 모르겠어요.

허○○ : 전 그냥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태어나면 뭐해요 뭐해요. 청인이나 농인이나
상처 받기는 똑같을 텐데. 사회생활이요?. 어렵고 힘든 일 당할 텐데...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그냥 한 번으로 족해요.

방○○ : 전 허○○와 같은 생각인데 청인이 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지금 이대로 만족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더욱 노력해야죠.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니까
앞으로 뭘 할 건지, 뭐가 되고 싶은지 자기 미래를 위해 자기가 열심히 노력 해야죠.

성○○ : 청인이요. 왜냐하면 제가 농인이어서, 예를 들면 태어나면서부터 청인이었다면 전화를
직접 할 수 있잖아요. 농인은 지금처럼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늘 부탁해서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청인이고 싶은 이유는 전화를 말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방○○ : 농인이면 할인혜택도(복지할인) 있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또.....

박○○ : 앞으로 복지가 더 발전할 테니까 농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방○○ : 다른 사람들에게가 나쁜 말하는 거나, 위험하거나 무서운 소리 이런 거 들을 필요 없고,
나쁜 소리 들을 필요 없고, 할인혜택(복지할인)을 누릴 수 있고, 또 부모님도 이런
혜택으로 양육부담도 적고....우린 별로지만 부모님들은 좋아해요.

성○○ : 맞아요. 수화도 하고, 마임(제스처)도 하고 입술도 잘 읽고요.

진행자 : 허○○는 수화를 어떻게 배우게 되었나요?

허○○ : 처음에는 가르쳐주겠다고 하는데도 제가 거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농아인 친구들을
소개받았는데 만날 때 마다 나만 못 알아봐서 혼자 외롭게 왕따 된 기분이었어요. 결국
수화를 배우고 났더니 시원하더라구요 ^^ 수화를 아니까 시야가 넓어졌어요 ^^

진행자 : 방○○는 집에서 가족들과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나요?

방○○ : 저요? ^^ 남동생하고는 말로 대화해요. 그런데 언니하고는 수화가 버릇이 되어서 처음엔
말로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수화와 말을 함께 하거나 아니면 수화로 하게
되요. 그리고 아빠랑은, 보통 부모님들은 수화를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농아인이고 수화가 더 편한걸(버릇이 된 것을) 어떻게 해요. 말로 하다가도 수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요. 그럼 아빤 수화를 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래서 수화랑 말을 함께
하게 되요. 처음에는 엄하게 수화를 못하게 하셨는데 제가 계속 쓰게 되니까 이제 그냥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오히려 수화를 가르쳐 달라고 하셔요. 엄마는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수화는 아셔요. ‘청소’, ‘밥 해’ 이런 정도는 하셔요. 부모님이나 언니하고는 그래서
수화로 하지만 남동생에게만은 말로 해요. ^^

성○○ : 전 원래 엄마랑 말로 대화해요. 그런데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답답했죠.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때 딸을 위해서 엄마가 수화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엄마랑은 능숙하게 수화로 이야기하고, 아빠랑은 그냥 필담을 하구요. 남동생하고는 약간의 말과 제스처, 그리고 수화를 섞어서 해요. 아빠랑은 의사소통이 안 돼서 정말 답답해요. 아빠하고는 계속 필담을 해요. 엄마하고만 이야기가 잘 되요. 말도 하고 수화도 잘 하시고....

진행자 : 어머니가 수화를 잘 하시나요?

성○○ : 처음예요? 잘 하세요. 처음에는 말로 이야기를 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 너무 답답해서 엄마에게 수화를 배우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수화를 배우셨어요. 엄마 입장에선 힘들었을 텐데도... 지금은 수화를 잘 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수화를 배우셨고 지금도 배우세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나이 많으세요. 44세 그런데도 지금도 수화를 배우고 계세요.

방○○ : 저도 (수화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아빠가 심하게 반대하셨는데 내가 계속 수화를 하니깐 아빠도 지금은 수화를 간단한 것은 하세요.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진행자 :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졸업 작품 준비하느라고 밤도 새워가면서 피곤할 텐데 기꺼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30-50대 청장년 그룹]

면담자 : 이름이 어떻게 되시지요?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 : 제 이름은 김○○이고요, 수화이름은 이렇게 합니다. 중1때 농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친구들이 제 머리모양을 보고 만들어준 이름입니다.

면담자 : 그럼 초등학교 때는 수화를 모르셨나요?

김○○ : 초등학교 다닐 때는 수화를 접하지 못했어요. 농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친구들이 수화를 사용하는 걸 보고 배우게 되었지요.

면담자 : 수화를 배우기 전하고 배우고 나서 느낌이 어떠신가요?

김○○ : 수화가 훨씬 편하지요. 수화를 배우기 전에는 의사소통할 때 많이 어긋나곤 했는데, 수화를 배우고 나서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었어요.

면담자 : 농학교 초등부때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구화만을 사용하셨을텐데요, 힘들거나 불편한 기억은 없으신가요?

김○○ : 구화를 배울 때 힘들었어요.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뭐라고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답답했지요. (선생님이) 가르쳐도 도통 알 수가 없었지요.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수화를 배우고 나서는 아주 편했어요.

면담자 : 구화를 할 때보다는 수화를 할 때가 훨씬 편하셨다는 거군요.

김○○ : 네 그래요.

면담자 : 부모님은 청인이신가요?

김○○ : 청인입니다. 말을 사용하셨어요. 수화는 아주 조금 밖에 모르세요.

면담자 : 그러면 부모님과 대화는 어떻게 하시나요?

김○○ : 구화로 대화를 합니다.

면담자 : 그래도 대화가 가능한가요?

김○○ :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고 그래서 대화가 가능했던거지요. 내가 구화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기에 소통이 되었던 것이지요.

면담자 : 다른 분들도 이와 비슷하신가요?

이○○ : 저도 집에서 발음을 이상하게 해도 얼마나 언니가 다 나에 대해서 잘 알아서 소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김○○씨와 마찬가지로요.

면담자 : 초등학교는 어디를 다니셨나요?

이○○ : 처음엔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 때까지 다녔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데도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만두고 학교를 옮겼지요. 한글을 잘 몰라서 3학년으로 전학이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행하게도 3학년으로 전학을 했지요. 초등학교 1,2학년 때 수화를 배우기 전에는 집에서 홈시인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엄마는 파마머리로 표현하고, 언니가 화장하는 거 보고 따라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되는 대로 표현하면서 살았더랬는데, 막상 농학교에 들어가서보니 내가 쓰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쓰더군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친구나 선배들이 내가 하는 수화를 교정해 주곤 했어요. 집에서 사용하는 수화와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화가 달랐지요. 저는 두가지 모두 사용하면서 자랐어요.

면담자 : 부모님은 청인이신가요?

이○○ : 저만 빼고 가족 모두가 청인이예요. 농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홈시인을 내 맘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수화를 제대로 배우고나서는 집에서도 식구들에게 가르쳐주려고 애써 봤지만 도통 힘들어서 포기했지요. 그래서 집에서는 예전처럼 홈시인을 사용하고, 학교에서는 수화를 사용하며 지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서 지내요.

면담자 : 농학교는 어디를 다니셨나요?

이○○ : 농학교를 졸업했어요. 김○○씨하고 같은 학교지요.

면담자 : 초등학교 다닐 때는 어디서 다니셨나요?

이○○ : 서울에 사는 고모네서 다녔어요.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집이 인천으로 이사하기 전에는 서울에 사는 고모네서 신세를 졌지요. 기숙사에서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니깐, 집에서 하는 말이 기숙사 들어가면 이 옹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없이 그 어린 나이에 통학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오빠하고 언니가 김포공항로 집을 구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같이 살면서 음식하는 거하고 설거지하고 청소는 내가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중학교1,2학년 때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꼭꼭 참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1때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었고, 3년을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지내다가 졸업하게 되었지요.

면담자 : 그렇군요.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하고, 집에서 식구들하고 생활할
때하고 느낌이 어떤가요?

이○○ : 그야 기숙사 생활이 훨씬 좋았지요. 식구들하고 같이 살 때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피곤한데도 쉬지 못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러고 나면 밤 1시가 되어 잠들기도
하고, 또 아침밥 하느라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랬죠. 지금 세상이야 세탁기가 있어서
빨래를 돌리기만 하면 되지만, 그 당시엔 세탁기란 것도 없을 때여서 모든 빨래를 손으로
다 해야 했는데 그걸 매일같이 빨래를 했었지요. 그때 고생한 건 엄마도 다 알고 계셔서
지금도 날 만나면 그때 고생시킨 것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곤 하세요.

면담자 : 정말 고생이 많으셨네요... 이번엔 송○○씨가 말씀해주시겠어요?

송○○ : 전 광주(전라도)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 주위에 농아라곤 아무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자유당시절 공무원(?)이었는데, 언니가 농아예요. 아버지가 출장을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수화를 하는 농인들을 발견하고는 수소문을 해서 학교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학교에
보내려고 서둘러서 그해 12월에 입학해서 그 다음해에 바로 2학년으로 진급을 하도록
말이에요. 언니랑 나랑 둘이 그렇게 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부르시더니 글을 써주시는데 도통 뭔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이 상의를 한동안 하시더니 근처 학원을 알아봐
가지고 방학 때 언니랑 나랑 보내서 배우게 하셨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그렇게
학원을 다녔어요. 17살 때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어렸을 때 기억에 무슨 집안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 식구들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통 뭘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결혼해서 자식들 낳고나서 아들이 수화를 저절로 배워서 하게 되면서부터는
친지들과 모였을 때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어서 즐겁고 재미있게 살았어요. 말보다는
수화가 훨씬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친지들이
부르면 꼭 아들을 데리고 같이 갑니다. 아들이 수화통역을 하게 해서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면담자 : 그렇군요... 다음은 배○○씨 말씀해 주실래요?

배○○ : 전 어머니가 임신 했을 때 약을 잘못 먹어서 농아가 되었다고 해요.

송○○ : 어렸을 때 집에 손님이 오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곤 했어요.

김○○ : 그래요? 전 집에 손님이 오시면 저보고 나오라고 해서는 꼬박꼬박 인사를 시키곤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이려고 숨기거나 감추지 않았어요.

송○○ : 물론 친지들이 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회사 손님이 오셨을 땐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이야 인식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40,

50년 전이니까 방에서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요. 집에서 다 잘 해주었지만 한 가지 그것만은 영 아니었어요.

면담자 : 여러분들 부모님은 모두 청인이시죠? 그렇죠. 제 부모님도 농인이신데, 아버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가 자식들 중에 아버지가 농인이라서 아버지만 빼놓고 다른 자식들하고만 외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래요?

송○○ : 그런 일 있었죠. 손님이 와서 같이 나갈 때 농아라서 집에 두고 갈 때 엄마한테 “왜?” 하고 따지면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대신 뭐 해줄까?’하고 물었을 때 옷 사달라고 하곤 했죠.

김○○ : 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항상 집에 손님이 오시면 인사 시키고 함께 지내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농아라서 창피하거나 부끄러워서 감추려 하거나 남에게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일은 겪은 적이 없어요.

면담자 : 참 행운이시네요. 형제가 어떻게 되시나요?

김○○ : 제가 첫째고,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삼남매입니다. 저랑 여동생이 농아입니다. 집에서 농아라는 이유로 억누른다거나 남에게 감추려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저랑 여동생은 같은 농아라서 잘 어울리게 되었고 친지들이 모일 때도 사람들이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거나 이야기 할 때면 둘이서 따로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친지들하고는 거리가 생기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억압을 당했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면담자 : 남동생하고는 어떻게 대화를 하시나요?

김○○ : 그냥 구화로 대화를 합니다. 남동생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데 (수화를 모르지만) 전혀 문제없이 소통이 잘 됩니다.

송○○ : 엄마가 참 지혜로왔던 것 같아요. 자매가 농아니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 어찌해야 하나 고민을 하셨지요. 그러다가

이○○ : 송○○씨같은 경우에는 참 복이 많은 거죠. 저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지금은 다 잊었지만 어렸을 때 나에게 잘 해주지 않은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한이 가슴 속에 있었어요. 내가 태어나고 병약하고 살 것 같지 않으니까 가마니를 덮어서 한동안 내버려 두었다네요. 그리고 나중에 들춰봤을 때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난리를 벌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삽으로 이마를 찍힌 일이 있었는데 한참 지난 나중어야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일부터 그런게 아니라 모르고 그런거라고 사과를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원망이 많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땅에 묻히실 때 딸애가 나한테 그래요. 고모들은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평평 우는데 왜 엄마는 안 우냐고요. 전 그 당시 하나도 슬프지도 않았고 눈물이 한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딸애가 ‘엄마는 울지도 않고

나빠!'라고해서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억지로 눈물을 짜내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에 고민도 많았어요. 용서해야돼, 아니야, 용서해야돼, 아니야 그러면서 지내왔지요. 지금은 아버지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 배○○씨하고 저는 집에서 농아라는 이유로 억압을 받았었네요. 송○○씨랑 김○○씨는 그렇지 않고 참 복이 많으시네요.

면답자 : 몇 살 때 청력을 잃으셨나요?

김○○ : 엄마 뱃 속에 있을 때부터요.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기억해요.

이○○ : 전 4살 때 고열이 났는데 그 때 친할머니가 병을 고친다고 침을 놓으셨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청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네요.

송○○ : 언니는 4살 때, 전 3살 때 청력을 잃었어요. 고열로 인해 청력을 잃게 되고나서 아버지가 상심하시다가 딸들의 청력을 되살리기 위해 사찰에 가서 절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몰래 무당을 불러서 굿판을 벌이다가 아버지한테 들켜서 난장판이 되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들을 수 있게 되지는 않았지요.

배○○ : 저는 엄마가 임신 중에 약을 잘못 먹어서 농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농아가 되었다고 하면서요.

면답자 : 농인으로 살아오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송○○ : 있어요. 병원 갈 때. 지금이야 수화통역센터가 있지만, 그 당시엔 아직 센터가 없을 때여서 부산에서 살 때였는데 아파서 병원에라도 가게 되면 무지하게 불편했지요. 대화도 잘 안통하고....

김○○ :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지금이야 다들 핸드폰을 각자 갖고 있으니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을 때였으니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지 않고는 연락이나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엄마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연락을 하는 게 싫으셨던 모양이에요. 청인들은 그런게 있나 봐요. 한번은 엄마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중이었는데 엄마가 '알았어, 나중에 나중에' 하면서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하도 열을 받아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나 전화좀 하게 엄마 귀좀 빌려줘!'라고요. 그제서야 엄마는 내 부탁을 들어주었지요. 난 들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건데 엄마는 계속 딴 거하면서 '나중에, 나중에 해줄게'라고만 하고. 그래서 엄마 귀 좀 빌려달라고 그랬지요. 그 일이 있고난 후부터 엄마는 전화부탁을 잘 들어주셨지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편했던 점은 '차'랍니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가 빵빵 거러도 뒤에서 오는지 어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청인은 들을 수 있으니까 길을 다니면서 뒤를 돌아보거나 주위를 살피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지만, 저는 그 점이 가장 불편했어요. 지금도 다닐 때면 항상 뒤를 돌아보거나 주위를 살피게 되는 데 그게 참 불편해요.

이○○ : 저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나는 설날이나 추석 때 친지들이 모이면 서로 얘기들을 나누는 데 무슨 얘기들을 나누는지 궁금한데 일일이 물어봐야하고 그렇다고 대답을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는 텔레비전을 볼 때인데요. 지금이야 자막방송도 나오고 수화통역도 있으니가 그나마 다행인데 그 당시엔 자막도 없을 때니까, 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곤란해 하고 불만들이 많았지요. 지금은 자막이 나와서 참 다행이에요.

송○○ : 길을 다니거나 버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일행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주위에서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손을 움직이면서 대화를 하니깐 이상한 시선으로 자꾸 고개를 돌리면서 쳐다보고 하는게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이○○ : 맞아요. 청인들은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그러지 않는데, 우리가 대화를 할 때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곤 하지요. 그런게 참 불편해요.

송○○ : 예전에 전차가 다닐 때였는데 그걸 타고 다닐 때 일이에요. 그 당시엔 시비가 붙거나 그러면 주먹다툼이 벌어지는게 다반사였는데, 농인들이 수화로 얘기를 하다가 청인들이 주위에서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곤 하니깐 꽤주곤 했었어요. 농인들이 수화로 대화를 하는걸 청인들이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었지요. 지금도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가만히 있질 않고 주먹다짐을 많이 했어요.

이○○ : 2년전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지만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길거리를 다니거나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보면 농인들이 수화로 얘기하는 걸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건 여전히 편이에요.

김○○ : 자막방송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고, 핸드폰도 나와서 다들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아주 다행이에요. 아직도 한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건 다름 아니라 병원에 갔을 때예요. 병원에 가서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데, 들을 수가 없으니까 간호사가 이름을 불러도 알 수가 없다는거죠. 그런 때 참 불편해요.

면담자 : 다들 결혼하셨나요? 자식은 어떻게 되시나요?

김○○ : 전 딸이 하나 있어요. 저처럼 농아구요, 제가 원해서 인공와우수술을 했어요. 수술이 잘 되어서 잘 듣는 편이에요. 청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일부러 그럴 기회를 만들어 주는 편이에요. 딸에게 직접 대화해보게끔 시키곤 해요.

면담자 : 남편은 청인인가요?

김○○ : 남편도 농인이에요.

면담자 : 청인하고 결혼할 수도 있었을텐데 굳이 농인하고 결혼한 이유가 있나요?

김○○ : 글썄요, 왜 그랬는지 생각이 나지 않네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단지 대화가 잘 통해서 편했어요. 같은 농인이다보니까 문화적으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서로 공감도 잘되고 소통이 잘 되니까 결혼하게 되었죠.

면담자 : 집에서 결혼을 반대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김○○ : 처음에는 집에서 청인하고 결혼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반대했어요. 설명을 했지요. 남편은 청인이고 난 농인인데 내가 말을 못해서 서로 말이 잘 안 통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알았다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농인이라면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니가 원하면 반대할 수 없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농인하고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지요.

면담자 : 부모님이 참 인자하시군요. 다음은 이○○씨 말씀해주실래요?

이○○ : 제 남편은 농인이구요, 큰 딸은

면담자 : 결혼할 때 집안에서 반대 같은 건 없었나요?

이○○ :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세 번째 여자인거죠.

송○○ : 광주에서 살았는데,

배○○ : 엄마는 청인을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요. 말하는 사람하고는 곤란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반해서 청인을 꼬셨지요. 청인하고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쿠! 이게 아니구나 하는걸 알았지요. 남편이 날 폭행해서 헤어지게 되고 나니까 엄마가 저한테 그것보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나선 엄마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지금은 농인남편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면담자 : 여러분은 농인하고 결혼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괜찮으신가요? 어떠세요?

이○○ : 아주 좋아요. 같이 살면서 희노애락(지문자로)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가령 밤에 잠잘 때에도 불 꺼놓고도 손으로 더듬으면서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청인이랑 결혼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다들 웃음)

김○○ : 맞아요. 농인이니까 그렇게 서로 통하게 되는거지요. 청인이랑 했다면 말이 안 통해서 곤란했을 거 같아요.

이○○ : 청인끼리 잘 통하듯이 농인끼리 잘 통하겠지요. 제가 아는 사람은 청인 남편하고 결혼해서 살았는데 뒷바라지해서 잘되게 했더니 지금은 자기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절대로 청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다녀요.

송○○ : 농인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그래요. 농인하고 결혼하면 돈이 없고, 청인하고 결혼하면 돈은 있지만 잘 통하지 않아서 문제라고요.

이○○ : 맞아요. 다들 농인하고 결혼하는 게 낫다고 하지요.

김○○ : 어떤 노인분(남자)이 말씀해 주신 건데요. 당신은 청인여자가 하도 쫓아다니고 해서 결국 결혼하게 되었는데, 물론 부인을 사랑하긴 하지만 같이 살면서 보니까 식상하고 대화도 단조롭다고 하더라고요. 농인을 만나면 얘기하는 것도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다고 하면서 청인보다는 농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훨씬 나은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면담자 :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잘 키워주셨는데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송○○ : 철없을 때 엄마가 해주기만을 바라고 했던게 미안해요.

김○○ : 저도 동갑이에요.

송○○ : 제 언니는 아직 독신이에요. 지금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어요.

면담자 : 여러분은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송○○ :할아버지(시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수화를 배우라고 시키셨어요. 그래서 아들 둘이 있는데 다들 수화를 곧잘 해요. 그런 점에서 할아버지에게 참 감사드려요.

면담자 : 보통은 부모가 농인이면 자식들이 말을 배우지 못할까봐 오히려 수화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말배우러 위탁을 하기도 하는데 의외군요?

송○○ : 할아버지의 명으로 수화를 하게 된 자식들이 이제는 곧잘해서 수화를 하면 말 안하고 입 꼭 다물고 수화만 해요. ...할아버지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 다른 자식들한테는 재산도 보태주고 도와주고 했으면서 나한테는 일절 도와주지도 않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다른 자식들한테는 재산을 나눠주었으면서 나한테는 한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무지무지 화가 났지요. 엄마는 나한테 못해줘서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고 얼질러진 물이었죠.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때면 가서 형제들한테 따지고 들었죠. 그랬더니 다들 나한테 물도 공손하게 갖다바치고 그러면서 진정하라고 진정하라고 그러더군요.지금은 용서하기로 했고 병약해서 죽을거라고 내버려둔 자식이 이제는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게 대단한 거죠. 집안 식구들이 나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도 이젠 다 잊기로 했어요. 나도 이제 잘 살고 있으니까요.

면담자 : 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거나 좋아요.

이○○ : 큰 딸한테 많이 미안해요. 내가 농인이라서 학교에서 급식을 한다거나 학부모가 학교에 가야할 때 혹시나 내가 학교에 가게 되면 딸애 친구들이 나를 보고 농아라는 걸 알게 되어서 딸애를 왕따라도 시키면 어쩌나 싶어서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딸애가 나중에 커서 나한테 그러더군요. 다른 친구들 엄마들은 다 학교에 오는데 우리 엄마만 안와서 많이 속상했다고요. 그 말 들으면서 참 미안했어요. 내 딸애는 지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했던건데 그게 딸애한테는 상처가 되었던거구요. 작은 딸은 나랑 같은 농인이니까 학교에도 가고 커다랗게 문제될 게 없었는데, 유독 큰애한테는 그렇게 못해준게 참 속상해요.

김○○ : 딸이 농아라서 청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학교도 애화학교 다니고 교회도 농아교회 다니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인들의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저는 사회생활하면서 청인들을 만날 기회가 약간이라도 있지만 딸애는 그럴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딸애의 견문도 넓힐 겸, 말도 시키게 할 겸 해서 일부러 딸을 앞세워서 하게 해요. 동사무소를 간다거나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간다거나 할

때요. 언제 눈이 트이게 될지 알 수 없지요.

면담자 : 여러분들은 농인들 속에 있을 때와 청인들 속에 있을 때 어떠신가요?

송○○ : 정보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요. 청인들 속에 있으면 정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얻을 수 있는게 참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농인들 속에 있으면 수다하는거 말고는 얻을게 별로 없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면담자 : 여러분들은 농인들 속에 있을 때 편한가요? 청인들 속에 있을 때 편하신가요?

김○○ : 농인들하고 있을 때나 청인들하고 있을 때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저는 여기(정보문화누리) 나올 때나 청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청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송○○ : 가령 예를 들면, 나영이 사건 알아요? 청인들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다들 잘 알지만 농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지요. 이런 걸 보면 내용면으로 많은 격차가 난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송○○ : 듣지 못하는 게 참 불쌍한 거예요.

이○○ : 맞아요. 동감이에요.

면담자 : 듣지 못하는 게 왜 불쌍하다는 거죠?

이○○ : 듣지 못하는 게 왜 불쌍하다고 생각하냐면 정보에서 뒤처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나한테 딸이 둘 있는데 큰애는 공부를 못하고, 작은 딸은 공부를 잘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작은 딸은 농아라서 4시간 동안 죽어라 열심히 공부를 하는 동안에 알게 된 것과 큰 딸이 빈둥빈둥 놀면서 지내고도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거며 남들이 얘기하는 거 주워 들은 거며 해서 둘이 비교를 해보면 청인인 큰딸이 훨씬 나아요. 그걸 보고나서 듣지 못한다는 게 정말 이런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농인이 참 불쌍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영이 사건만 해도 그래요. 다들 나영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농인들은 그것에 대해 자세한 내용도 잘 모르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고나서야 알게 되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듣지 못한다는 게 참 불쌍한 거죠.

송○○ : 일자리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요. 동사무소에서 일자리를 구할 때보면 농인들은 정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번번히 기회를 잃게 되고 그런 점에서 보면 듣지 못하는 게 참 불쌍하지요.

이○○ : 그래요. 장애수당이라고 해서 한달에 10만원씩, 3년이면 360만원이 되지요. 다른 장애인들은 소식이 빨라서 다들 제때제때 신청해서 다들 받아가는데 반해서 농인들은 알게 되어도 늦게 알고 신청을 하고보면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면담자 : 농인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청인들 생각에는 농인보다는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 : 맹인은 볼 수 없는 것 뿐이지요. 그림을 본다면 농인은 볼 수 있어서 그림이 어떤지 감상할 수 있지만 맹인은 볼 수 없어서 감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긴 하지요. 그래도 농인은 볼 수 있다는 거 말고는 정보에서 뒤처지는 거, 뭔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고 물어봐야 한다는 거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이○○ : 노인복지관만 해도 그래요. 다른 장애인들에게는 다들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유독 농인만 노인복지관이 없어요.

면담자 : 농인들은 여유시간이 나면 뭐하면서 지내는지요? 어떻게 노는지 궁금해요.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이○○ : 보통은 모여서 수다로 시간을 보내지요. 등산을 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듯이 농인들은 수다로 스트레스를 풀고 또 한주일을 지낼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지요.

송○○ : 그래요. 치매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주로 수다를 떨면서 놀지요.

면담자 : 농인들끼리 모일 때는 주로 수다를 떠다고 하시는데, 그림 집에서 혼자 있거나 부부끼리 있을 때는 주로 뭘 하시나요?

송○○ : ...부부가 각자 낮에는 따로 알아서 지내다가 집에 와서는 각자 뭘하고 지냈는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지낸답니다.

송○○ : 가끔씩 게이트볼도 치러 갑니다.

면담자 :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마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송○○ : 전 어머니 말고는 달리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요.

이○○ : 전 제가 태어났을 때 병약해서 죽을거라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나를 살리신 하느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김○○ :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하고 나를 가르쳐주신 농학교의 선생님 한분이 기억납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송○○ : 내 기억에 학교 선생님은 여학생들 희롱이나 하고 못 가르치고 엉터리가 많았어요. 아주 형편없었어요.

김○○ : 맞아요. 예전에는 여학생들 희롱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지요. 저한테도 공부 열심히 가르쳐주시는 분은 그분 말고는 없었구요, 엄마랑 딱 두 분이 참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해요.

면담자 : 학교선생님이 어떻게 해주셨길래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하시나요?

김○○ : 선생님께서 매를 들면서까지 아주 엄격하게 가르쳐주셨어요. 농인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청인방식으로 가르쳐주셨는데요. 그 당시엔 동아전과라는 것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시험 치르고 매맞고 그러면서 배웠지요. 그렇게 배웠던 것이 고마운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엄마한테서 주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시간 보는 법을 몰랐는데 엄마가 절 붙잡아 앉히고는 시계를 놓고는 시간에 대해서 가르쳐주셨어요. 그때이후로 시간보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지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엄마한테서 배웠어요.

배○○ : 전 공부하는 게 싫어서 허구헌날 공부하라고 하면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송○○ :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한다거나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면답자 : 그렇지요. 아이들도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요.

김○○ : 케이블방송을 주로 봅니다.

이○○ : 뉴스, 동물농장, 전 계속 봐야하는 드라마는 보지 않아요. 사랑과 전쟁할 때는 그걸 봤는데 지금은 하지 않아서요. 스캔들..

김○○ : 사랑, 감동, 역사를 다룬 외화를 좋아해요. 전 액션은 전혀 흥미가 없어요.

이○○ : 전 양들의 침묵, 재판정에서 벌이는 논쟁을 다룬 것들, 과학수사대(CSI) 같은 추리물 같은 것들을 좋아해요.

면답자 : 다시 태어난다면 농인으로 아니면 청인으로 태어나고 싶은가요?

김○○ : 농인.

이○○ : 전 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송○○ : 농인.

면답자 : 집안에서 의사소통은 원활하셨나요?

김○○ : 엄마하고는 소통이 원활했지만 아버지랑은 그렇지 않았어요.

[60대 이상 그룹]

면답자 : 언제 청력을 잃으셨나요?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3세, 4세, 8세, 선천성,)

면답자 : 부모님은 모두 청인이신가요? 의사소통은 별문제 없이 잘 되었나요?

장○○ : 청인입니다. 별문제 없이 의사소통이 잘 되었어요. 수화는 아니지만 제스처어나 바디랭귀지로 의사소통을 하였지요.

변○○ : 내가 아무 것도 모르던 6살 때 엄마가 나를 붙들어 앉히고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견 엄마고, 이견 아빠고(홈사인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엄마는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면답자 : 어머니가 가르쳐주셨군요?

변○○ : 네, 밖에 놀러 나가려고 해도 엄마는 나가면 안 된다. 어떤 남자가 잡아간다면 집안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하고 빼면 배우면 된다고 하면서 일일이 가르쳐 주셨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둘씩 배워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내게 가르쳐주신 분이 엄마랍니다.

면답자 : 다른 분들도 변○○씨처럼 비슷비슷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장○○ : 난 마냥 신나게 놀기만 했어요.

이○○ : 난 할머니가 제일 좋았어요. 내가 농아라는 걸 아신 할머니는 그냥 냅두면 모든 게 서투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결혼해서 마냥 제 앞가림도 못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지요. 어떻게 하면 농인인 나를 도울까를 고민하셨어요. 거기에 반해 내 아버지는 내가 농아라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마냥 집안 구석에만 있게 했어요. 그런 걸 할머니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날 품에 끼고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밥하는 거며, 시장에 데리고 나가서 물건들을 가리키며 그것을 한자로 써주면서 일일이 알려주셨지요. 그렇게 해서 배워서 점점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견문이 트이게 되었지요. 그래서 할머니에 대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에게 아무 것도 해주시지도 않았고 뭔가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요. 그래서 참 원망스럽게 생각합니다.(‘미워하다’로 표현). 그 당시에 할머니께서는 내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게 되면 결혼해서 사람구실을 하지 못 할 거라고 염려를 하셨지요. 다들 결혼해서 제각기 살아갈 때도 혼자서 방황하면서 떠돌게 되면 어찌하나 그런 걱정에 내 형제들에게 요구하셨지요. 내가 농아라서 불쌍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보살피냐고 하면서 걱정을 하니까 형이 자기가 다 알아서 챙길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난 결혼하면 따로 나가서 살 거라고 했지요. 집안에선 내가 농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청인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난 청인하고 결혼하면 서로 소통도 안 되고 답답해서 같이 살 수 없다고 안 된다고 했지요. 아버지랑 어머니는 고개를 가웃거리면서 그럼 어찌하나하고 난처해할 때, 형이 나서더니 농인끼리 결혼하는 것도 좋다고 하면서 자기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을 때 돈이 없으니까 내년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 결혼하라고 하면서 결혼비용을 모두 대주었지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내가 농아라서 무시하거나 괘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대해주었던 것이 참으로 고맙게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잘 챙겨주었던 형이 나중에 내가 농인끼리 결혼하고 나서 별다른 문제없이 잘 사는 걸 보고는 농인들도 얼마든지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내가 농아라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무시하거나 놀려댈 때면 형이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지요. 참으로 형이 나를 많이 사랑해주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면담자 : 다른 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변○○ : 그럼요. 저도 같아요. (몇 사람이 동감을 표시함.)

면담자 : 임○○씨 말씀해 주세요.

임○○ : (7세 청력상실)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을 했으니까 일반 학교를 보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내가 학교를 못 다니게 되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불러 앉히고는 한자를 종이에다가 쓰시고 이걸 ‘니 이름’이고, 이걸 또 뭐고 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배워서 외우고, 누구 불러오라고 하면 다녀오고, 뭐

갖고 와라 그러면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글을 익히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손찌검하신 적이 없이 아주 이뻐해 주셨어요. 무척이나 이뻐하고 사랑을 듬뿍 주셨지요. 돈도 많이 주시고 많이 이뻐하셨어요. 언니가 돈을 다 써버리지 않고 모아놓으니까 내가 농아라서 무시하고 깔보고 언니만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당황해 하셨지요. 그래서 엄마랑 언니가 둘이서 돈 모아둔 걸 따로 보관하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난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었지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나에게 용돈을 꼬박꼬박 주셨고 전 그걸 모아놓지 않고 사먹느라고 다 써버렸어요. 언니는 다 써버리지 않고 돈을 착실히 모아놓은 걸 보면 참 복이 많지요.

이○○ : 내 생각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농아로 태어났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집안에 처박아 둔다거나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안 되요. 농아라고해도 열심히 가르치고 사랑으로 잘 키우고 학교도 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농아라고 무시하고 필요 없다고 여기고 집안에 감춰두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지 말아야 해요. 열심히 애정을 갖고 잘 키우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농아라도 배우러 학교도 보내고 그래야지, 농아는 무식하니까 그냥 아무 것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안에만 두는 것은 남들이 농아라는 걸 알게 되면 창피하니까 안 보이게 집안에 숨겨두고 그러지 마세요. 청인하고 똑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배우러 학교도 보내고 넓은 이해심을 갖고 농인을 양육하시길 당부하고자 합니다. (몇몇사람이 동감을 표현함. ‘맞아요, 맞아요’)

김○○ : 일본에 유학간 얘기. 아버지가 상당히 무서운 분이였어요. 배타고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가끔씩 오빠가 와서 우동도 사주고....그러다가 해방이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구요.서울에 놀러갔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해서는 아들, 딸 낳고 지금까지 다들 잘 살고 손주들도 다들 공부 잘해서 아주 평화롭고 좋아요.

면담자 : 또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송○○ : (아버지는 청인, 어머니는 농인임.) 내가 어렸을 적엔 참 배도 많이 굶고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쌀을 대주셔서 근근이 먹고 살았는데 어느 뎨가 집에서 나보고 집을 나가라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눈치껏) 알아서 집을 나와서 떠돌게 되었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도 하고 ...정미소 같은데 가서 쌀도 저나르면서 일도 하고, 집이 인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여전히 집에서는 나를 반겨하지 않았고 마구 뭐라고 해대서 다시 집을 나왔지요. 돌아다니면서 전쟁통에 있었던 일 얘기함.

정○○ :

면담자 : 수화를 어떻게 배우게 되셨나요?

장○○ :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게 되었지요.

박○○ : 다른 분들처럼 집에서 의사소통할 때 잘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요. 어머니가 많이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아주 조금 수화를 배워서 예를 들면 ‘기차’라는 단어나 이런 걸 수화로 했지요.

면담자 : 어느 학교를 다니셨나요?

장○○ : A 농학교! 12살에 입학했어요.

박○○ : 저도 같은 학교 다녔어요. 저도 12살에 입학했구요.

면담자 : 두 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박○○ : 제가 후배고 장○○씨가 한참 선배되지요.

면담자 : 왜 그렇게 늦은 나이에 입학을 하게 되었나요?

장○○ :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늦게나마 찾아서 그리 된 거지요.

면담자 : 임○○씨는 어떠셨나요?

임○○ : 전 공장 다니고 그랬어요.

장○○ : 그게 아니라, 학교 다닌 거 물어보잖아요.

임○○ : 9살에 입학했어요. 그때 일반학교를 다녔어요. 다 청인이고 나 혼자만 농인이었는데 두 달만에 짚리고 엄청 울었지요. 그리고나선 아버지가 가르쳐주시고 심부름하면서 용돈도 받고 하면서 살았지요. 그러다가 15살 때 일 배워야 하지 않냐고 해서 (무슨 일인가 잘 모르겠음, 암튼)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면담자 : 송○○씨는 어땠어요?

송○○ : 엄마한테 저기 보따리 등에 매고 학교 있는데 나도 저기 다니고 싶다고 얘기를 했지요. 엄마가 돈없다고 안된다고 했구요. 그래도 난 학교란테가 뭐하는덴지 궁금해서 가보았고 거기 선생님이 들어와서 앉으라고 해서 앉아서 잠깐 배운답시고 했지요. 그러다가 아니다 싶어서 나와버렸어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학교에 간 적이 없어요.

면담자 : 변○○씨는 어떠셨나요?

변○○ : 전 학교라고는 다녀보지 않았어요. 전혀.

면담자 : 지금 보면 말씀하실 때보면 발음이 분명하게 말도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배우신건가요?

변○○ : 어머니가 죽어라고 가르쳐서 그런 거지요. 학교는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면담자 : 그럼 글은 읽으실 줄 아시나요?

변○○ : 글은 여기 와서야 배우게 되었어요. 집에서 어머니한테 배운 게 전부예요. 그 나머지는 아무 것도 배운 게 없어요. 천주교(○○○ 수녀님을 말하는 듯함)에 와서 많은 걸 배웠지요. 여기 오기 전까지 배운 건 모두 어머니한테서 배웠지요. 엄마한테 참으로 감사해요.

면담자 : 그러시군요.

이○○ : 난 11살 때 1학년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러다가 3학년 때 4월 쯤에 중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께서 병이 걸리셔서 수발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지요. 할머니를 병수발하느라고 하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할머니가 눈이 안보이게 되면서 수발을 들어줘야 했거든요.

면담자 : 수화는 언제 배우셨나요?

이○○ :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배웠지요.

면담자 : 변○○씨는 어머니가 수화를 가르쳐주셨나요?

변○○ : 그래요. (흠사인) 수화를 제대로 배우게 된 건 애덕농아자활원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농아인들하고 접하게 되면서 자주 보고 그러면서 익히게 된 거죠. 그거 아니었으면 수화를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수녀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글도 배우고 수화도 배우고 참 은혜를 많이 입었지요.

면담자 : 그때가 몇 살 때인가요?

변○○ : 30살 때였어요.

면담자 : 그럼 결혼을 한 상태였겠네요.

변○○ : 맞아요.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이○○ : 수녀님을 만난 해가 1946년이에요.

면담자 : 그럼 1946년에 수녀님을 알게 되면서 다들 만나게 되신 건가요?

참석자 : 맞아요. 그래요.

변○○ : 처음엔 조명선이라는 농인이 수녀님을 만나서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농인들을 찾아 다니면서 점점 늘어나게 된거죠. 원산에서 살다가 서울에 왔는데 조명선이란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지금은 죽었지만.

면담자 : 학교에선 선생님이 청인이었나요? 수화로 가르쳤나요?

이○○ : 선생님들은 청인이었고, 수화로 가르치는 것도 있고 구화로 가르치는 것도 있었어요.

김○○ : 그 당시엔 일제 식민지시대니까 한자하고 일본어를 배웠지요.

이○○ : 맞아요. 그땐 일본어하고 한자를 배웠지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는 한글을 전혀 몰랐으니까 혼자서 한자와 한글독음을 익히느라고 무진장 고생을 했어요.

김○○ : 전 아직도 한글을 몰라요. 한자하고 일본어는 아는데.

면담자 : 여러분들 모두 농인하고 결혼하셨지요? 청인하고 결혼하지 않고 왜 농인하고 결혼하셨나요? 자기가 원해서 그랬나요? 부모님이 시켜서 그렇게 한 건가요?

박○○ : 자연스레 그리 된 거죠. 같이 어울려서 지내다가 눈이 맞아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면담자 :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마찬가지로인가요?

박○○ : 다들 그렇게 해서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이○○ : 난 결혼할 때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농인하고 결혼하면 안된다고, 청인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했지요. 청인하고 결혼하는 건 내가 싫다고 안한다고 해서 서로 대립을 했지요. 청인하고 결혼을 해야지, 농인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애 낳아서 말하는 거며 키우는 건 어찌할 거냐고 말도 안 통하고 절대 안된다고 반대를 했지요. 그렇게 아버지하고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랐는데 형하고 의논을 했어요. 청인하고 결혼하면 서로 말도 안통하고 불편한 점이 많겠다고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더니 농인하고 결혼하라고 하면서 적극 지원을 해 주었어요.

면담자 : 변○○씨는 어떻게 결혼하셨나요?

변○○ : 엄마가 시골에서 살 때 밭에 나가서 남자를 보더니 안되겠다 하시고 또 다른 남자르 보시더니 안된다 하시고 나에게 년 25살에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러던게 우연하게도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지요. 전쟁통에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다가 대구에서 정착했을

때 남편을 만났어요.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그 때 내 뒤를 막 뒤따라 왔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송○○ : 남편을 만나게 된 경위와 결혼하고...헤어진 이야기...

임○○ : 변○○씨를 만나기 전에는 홈사인을 사용했는데 우연히 변○○씨를 만나게 되어서 수화도 배우게 되었고 남자도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지요.

면담자 : 몇 살에 결혼하셨나요?

박○○ : 22살에요.

김○○ : 26살에 결혼함.

면담자 : 결혼하신 애기들 잘 들었습니다. 결혼하고나서 자녀분들은 모두 청인이신가요? 키우시면서 힘드시거나 애로사항 같은 건 없었나요? 어떠셨어요?

장○○ : 아무런 문제없이 잘 키웠어요. 전혀 문제 될 거 없어요.

변○○ : 난 아들 하나, 딸 셋을 두었는데 아이들 양육은 내 어머니가 다 해주셨어요. 부모 공경하는 거며, 인사하는 거 등등 아주 잘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잘 되었고 나한테도 아주 잘한답니다. 아주 행복하지요.

임○○ : 별 문제 없이 잘 키웠어요.

장○○ : 아들 하나 있는데 잘 키워서 결혼해서 잘 살아요.

면담자 : 자녀분들하고는 수화로 의사소통이 잘 되시나요?

변○○ : 의사소통이 아주 잘 됩니다.

박○○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인사정도만 할 줄 알고 그 이상은 잘 못해요.

김○○ :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어요 딸들은 수화를 곧잘 하는데 아들은 수화를 전혀 못해요. 여기에 왔다가도 누가 말 시키면 수화를 못하니까 창피해서 자리를 피하곤 재빨리 집으로 가버리곤 하지요.

장○○ : 내 아들은 수화를 전혀 못해요. 가끔씩 만나도 서로 수화로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지요.

면담자 : 여러분은 수화하고 말하고 어느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참석자 : 말이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이○○ :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100%는 아니고 한 65%정도. 하지만 농인들 중에도 청인들하고 견줄 만큼 특출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대략 5-6명 정도. 그 사람들은 아는 것도 많아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청인들하고도 충분히 함께 일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통이죠.

면담자 : 여러분은 농인들하고 있을 때와 청인들하고 있을 때 어떠신가요?

변○○ : 여기에 청인 손님이 오시면 인사하고나서 다른 직원분을 불러서 상대하게 하지요.

면담자 : 추석때나 설날이라는 명절 때 다들 청인들이고 자기만 농인이니까 어울리지 못하고 지루해하다가 나중엔 참석조차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 초기 양로원 지을 때 얘기...자식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아주 무료하고 별로 하는 일도

없이 허전했을텐데 여기 오게 돼서 농인들끼리 같이 지내니까 다양한 걸 즐기면서 사니까 아주 좋아요. 농인들끼리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거보다 훨씬 나아요.

면담자 : 어떤 농인들은 여러분들처럼 이곳에 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 공동체 생활이니까... 나름대로의 지켜야 될 규칙이 있으니까...오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대로 놀면서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지요.

변○○ : 자식들한테 가끔씩 일이 있을 때 다녀오고 그러는 게 훨씬 좋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식들하고 있으면 가만히 무로하게 앉아 있어야하고, 자식들한테 어떤 게 더 나으냐고 물었어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구요.

임○○ : 나 혼자 외로웠을텐데, 이렇게 농인들끼리 같이 지내니까 아주 좋아요.

면담자 :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거하고, 여기서 농인들하고 지내는 거하고 어떠세요?

면담자 : 여기에서 지내면서 하루를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 : 각자 성향마다 다르지요.

이○○ : 수다도 떨고, 화투도 하고, 다른 것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지요.

(화투 관련 얘기 - 잃고 따고 울고 웃음)

면담자 : 같이 지내다가 언쟁을 벌이거나 싸우거나 하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장○○ : 시간 지나면 알아서 사과하고 그래요.

이○○ : 자기가 한 짓을 돌아보면 다 알지요. 그러면 사과하고 그러면서 해결되지요.

면담자 : 지금까지 농인으로 살아오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으셨나요?

참석자 : 특별히 없어요.

면담자 : 제가 젊은 농인에게 물어봤을 때 집에서 가장 불편했던 게 뭐냐고 물었더니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그러면서 나중에 잊어버리고 그럴 때 기분 나쁘다고 하던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참석자 :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그런 경험들 많이 했지요.

면담자 : 그럴 때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난다거나 그러지 않으신가요?

참석자 : 그냥 그러려니 하지요.

면담자 : 여러분들은 농인하고 결혼하는게 낫다? 아니면 청인하고 결혼하는게 낫다? 어떠세요?

이○○ : 여기 같이 사는 사람중에 청인 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부인하고 같이 안오고 혼자 와있어요. 그런거보면.

면담자 :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농인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청인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자식이 청인/농인을 원하는지로 이해한 걸로 보임)

이○○ : 농인으로 태어나는 건 희망이 없어요.

면담자 : 외국에서는 농인부모의 농인자녀가 태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창피해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해요. 또 농인이 아주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 외국에는 농인이 태어나면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얼마든지 충분히 먹고 살수 있게 해주는 체계가 되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지요.

면담자 :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마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장○○ : ○○○ 수녀님.

이○○ : 이곳을 만들어 주신 수녀님. 이곳이 아주 맘에 든다는 말씀. 100%

박○○ : 어머니한테 감사해요.

면담자 :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농아인구락부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어떻게 노셨나요?

이○○ : 그 당시엔 협회나 구락부가 농인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였지요. 거기가 없었다면 이렇게 농인들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장○○ : 특별할 건 없고, 그냥 만나서 술 마시고, 화투하고 그러면서 놀았지요.

면담자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나 아까 빼먹고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 : 농인이 태어났다고 해서 집안에 두기만 하거나 숨기지 말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밖으로 내보내서 많이 배우게 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꼭 많이 알려 주세요.(이 얘기를 무려 4-5번 정도 기회 있을 때마다 했음)

면담자 : 청인들하고는 다른 농인만의 독특한 뭔가가 있는지요?

송○○ : 청인들이 내가 농인이라고 해서 병어리(제스츄어로)라고 욕을 할 때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쓰지 않고 내버려 두지요.

김○○ : 예전에 전차 타고 다닐 때 우리(농인)가 수화로 얘기하고 있으면 자꾸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장○○씨는 가만히 있지 않고 주먹으로 한 대씩 쥐어박곤 했어요. 난 무서워서 가만히 있고요.

장○○ : 맞아요. 그런 거 보면 가만히 참지를 못하겠고 한 대 쥐어박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말이죠.

이○○ : 어렸을 때 형하고 버스타고 갈 때였는데 누군가가 내가 농아라고 해서 욕을 했던 모양이에요. 형이 그걸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뭐라고 야단을 쳤나 봐요. 그런 거 보면 고맙게 생각해요.

변○○ : 나도 어렸을 때 이웃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놀리고 구박하고 욕하고 다녔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참으라고 참으라고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지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그사람이 결혼하고 애를 낳았는데 농아를 낳았대요. 하도 나를 병어리라고 놀려대더니 결국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죠. 나중에 우리집에 찾아와서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갔어요.

면담자 : 청인들이 그렇게 농아라고 해서 ‘병어리, 병어리’ 놀리는 걸로 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나고 그게 원한으로 쌓이거나 그렇지 않았나요?

변○○ : 물론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한이나 청인에 대한 원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런 사람도 있나보다 하지요.

이○○ : 농인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니까 잘 설명해주고 그러면 차차 나아지지요. 지금은 그런 일들도 많이 없어졌지요.

면담자 : 여러분들 얼굴이 어둡거나 험상궂지 않고 밝고 환한 모습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가 봅니다. 오늘 아주 귀한 걸 배우고 갑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3) 지체장애인(뇌병변) 면접 결과

진행자 : 이름하고 먼저 물어볼게요. 선생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요?

송○○ : 송○○.

진행자 : 지금 장애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송○○ : 1급이요.

진행자 : 선생님 성함은요?

김○○ : 김○○. 1급이요.

진행자 : 선생님 성함은요?

황○○ : 황○○. 1급이요.

박○○ : 박○○.

진행자 : 장애등급이 어떻게 되요?

박○○ : 언어보다 지체 2급.

진행자 : 아, 언어장애도 있어요? 그럼 합산해서 중복장애로 1급 인정 안 해주나요?

박○○ : 예

진행자 : 추운날씨에 미안해요. 김○○ 부장님이 계시면 좋는데 그분이 오늘 갑자기 회의 가신니 나중에 보고요. 바쁘데 오시라고 한 건 뭐냐면...

황○○ : 안 바쁘데

진행자 : 안 바빠요? 다행이네

김○○ : 종종 불러주세요.

진행자 : 종종 불러도 되나요? 김○○씨한테 종종 불러달라고 해야겠네요.

요즘 문화, 문화가 잘나가잖아요. 문화시대라고 해서 그런데 장애인들이 문화를 이용과의 격차를 20% 잡는데 그 중에서도 장애인 중에도 지체장애인은 접근하기 쉬운데 보이지않는 사람이나 듣지 못하는 장애인 그리고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엔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통계치를 보니까 거의 34%, 35%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격차가 심한 것 같아요. 문화격차도 심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격차를 장애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또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즐기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러 왔어요. 저는 장애인정보문화누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행자입니다. 많이 봤을 거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뵈고 집회현장에서

읽고.

황○○ : 예. 전에 많이 봤어요.

진행자 : 그죠. 예전에 강의실에서도 읽고. 오늘 그런 목적 때문에 왔고요.

저희도 정책개선에도 참여하고 하지만 잘 안들어 먹히잖아요. 정책개선활동도 하고 있어요. 오늘 선생님들만이 아니고 청각장애인분들, 시각장애인분들, 지적장애인분들도 봤어요. 이걸 모아서 정책개선안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문제 때문에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토론회 주요 주제는 장애인들이 영화나 출판물 접근을 잘 못해서 차별을 받는데 정부가 법안 개정에 힘을 써라 하는 주요 내용인데 출판물 같은 경우엔 주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데, 영화나 연극, 공연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으시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황○○ : 예. 문화바우처 사용 시 오천 포인트 주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진행자 : 지금 문화바우처에서 오천 포인트를 주고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황○○ :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진행자 : 오천 포인트면 몇 회 정도 공연을 볼 수 있어요?

황○○ : 일 년에 두 번 정도 밖에는

진행자 : 두 번이요? 그게 왜 오천 포인트가 되나요?

김○○ : 포인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증이 드는데요.

진행자 : 일단 포인트는 정부에서 쓰라고 하지만 문화공연 같은 경우엔 공연장이 대부분 계단이고 전동휠체어 접근이 안되서 어렵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어떻게 그렇게

송○○ : 1회 사용에 보통 오천 포인트예요.

진행자 : 근데 포인트제도를 너무 높게 책정을 했네요. 남들이 볼 때는 오천 포인트면 한 20회 정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착각이 들게 했네요.

황○○ : 연극은 계단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진행자 : 장애인들에게 다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경제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일단 그게 문제이고 두 번째는 문화공연은 접근자체가 어렵다는 점이고, 다른 것도 있나요?

황○○ : 장애인지정석 문제인데요.

진행자 : 영화 같은 경우엔 장애인좌석에 대해 불만이 많던데요. 가봤어요?

김○○ : 그게 차라리 뒷좌석이면 낫겠어요. 앞좌석에서 보면 목이 진짜 디스크 걸려요.

박○○ : 어떤 곳은 뒤에만 있고 어떤 곳은 앞에만 있고

진행자 : 예 맞아요.

황○○ : 롯데시네마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진행자 :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근데 지역마다 다르지 않아요?

박○○ : 아니 다 같아요.

진행자 : 일괄적으로 다 같아요? CGV 같은 경우엔 올라가서 뒤로 들어가면 되는군요.

김○○ : 뒤로 들어가면 되는데 롯데 시네마나 다른 극장의 경우엔 계단이라서 접근이 안되요.

진행자 : CGV는 승강기로 되어 있어서 가능한데 그렇군요.

황○○ : 롯데시네마가 50% 할인인데 접근이 안 되어서

진행자 : 그렇죠. 50%할인해도 보기가 불편하니까

김○○ : 저 같은 경우엔 거기 직원들이 있잖아요. 아예 올리라고 해요.
영화 보러 왔으니까 직원들 보고 올려달라고 해요.

진행자 : 아, 직원들이 올려줘요?

김○○ : 올려줘요. 전동은 불가능하구요. 한○○ 형 무게는 들어서 올릴 수 있어요.

진행자 : 이 전동은 올라가요?

김○○ : 전동은 안 되고요.

진행자 : 그럼 의자에만

김○○ : 예

진행자 : 휠체어는 그대로 두고요.

김○○ : 전 휠체어 째 올리라고 해요.

진행자 : 조금만 생각하면 옆에 경사로를 만들면 중간에 좌석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김○○ : 그게 경사로는 있어도 중간에 평평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평평한 곳이 없이 그냥 직선으로 만들어서요.

진행자 : 설계부터 잘못되었군요. 중간에 계단 두 개 정도 폭, 넓이 잡아서 만들면 되는데 그럼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편하잖아요. 그럼 해결이 되는데요.

송○○ : 울지로에 아카데미 극장만 가운데에 있어요.

진행자 : 옛날 건물들은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요즘 건물들은 좁게 만들면서 나름대로는 관객을 더 많이 앉히려고 한 거 같은데요.

박○○ : 롯데시네마는 50% 할인인데 CGV는 할인 안 되고 4월에 일주일간 공짜이고요.

김○○ : 장애인의 날 주간에만 공짜이죠.

진행자 : 공짜이긴 한데 문제는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배려하지 않잖아요.
그냥 휠체어 타신 분들에게만 공짜로 해서 그 할인율도 정부에서 극장보고 할인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극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라서 그런 거 같아요. 영화는 나름대로 극장들이 승강기가 있으니까 불편해도 볼 수 있는데 연극이나 음악, 공연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김○○ : 대학로, 그런 데는 거의 불가능하죠.

황○○ : 표 예매가격이 너무 비싸서요. 보통 5~6만원씩 하니까요.

김○○ : 표 예매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진행자 : 맞아요. 로얄석 같은 경우는 5~6만 원 정도 하니까요.

김○○ : 6만원

진행자 : 예 그 이상 가는 것도 있고요.

김○○ : 제가 이순신 뮤지컬 보러 가니까 티켓을 보는 순간 놀랐어요.

진행자 :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좋은 공연이 올라가는 데 표가 비싸서요.

박○○ : 축구장에도 계단이 있고 밑에도 앉지 못하고

진행자 : 축구장에 보면 앞에 장애인 앉으라고 해놨는데 난간 턱이 없어서 지금도 그런가요?

박○○ : 네.

황○○ : 축구장에서 앞에 관객들이 일어나면 전혀 볼 수 없어요.

김○○ : 독일하고 한국하는 거 봤는데 사람 뒤통수만 보고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행자 : 골 넣으면 다 일어서고 그럼 엉덩이만 보이고

김○○ : 그렇죠. 다 일어나서 응원하니까요.

이○○ : 그게 콘서트 장에서도 그래요.

진행자 : 맞아요. 콘서트 장에서도 대부분 원래 좌석은 있는데 거의 일어나서 있잖아요.

김○○ : 콘서트장이나 그런 데를 아예 앞으로 당겨서, 티켓하고 상관없이

진행자 : 장애인지정석을 좀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앞에도 비장애인들이 음악에 흥분하면 몰려다니니까 위험할 거 같아요. 그래서 뒤가 아닌 특별좌석에 약간 높게 해서 만들어야 할 거 같아요.

축구하는 거 어렵잖아요. 다른 형태의 체육이나 오락을 하는 게 있나요?

황○○ : 보치아

진행자 : 장애인올림픽 종목 중의 하나죠. 비장애인들은 할 수 없는 거고요.

이○○ : 보치아 할 곳이 없어요.

진행자 : 아, 장소가요?

김○○ : 보치아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할 공간이 없어요. 5~6군데 둘러 둘러 전화해봐야 겨우 한군데 찾아요.

진행자 : 보치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복지관 같은 곳에 없어요?

김○○ : 체육관 정도 크기면 되는데요.

진행자 : 지금 보치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 있나요?

김○○ : 정립회관, 지금 여기 중곡동 복지관, 삼육, 명일동 뇌성마비 복지관 정도.

진행자 : 시각장애인들은 고스톱을 못 치니까 들었죠? 젓가락으로 고스톱을 치고 그러거든요. 청각장애인들은 안 들리니까 다른 형태로 나름대로 연극도 하고 마임 같은 거 하잖아요. 비장애인들과 달리 뇌병변장애인들도 그런 거 있어요? 비장애인들이 안하는 문화활동이나.

황○○ : 거의 없어요.

진행자 : 예, 거의 없어요?

송○○ : 게임을 하고 싶어도 게임을 할 때 따라하지 못해서요.

진행자 : 따라하지 못하니까 게임의 생명은 순발력인데.

김○○ : 난 같게.

진행자 : 게임 잘하세요?

황○○ : 나 같은 경우는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어서 하기 힘들어요.

진행자 : 게임 개발 하려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몸 모양이라든가 손이 아니더라도 센서가

인지해서.

김○○ : 그것도 그걸 몸에 부착하는 게 아니고 그걸 손에 들고 하는 거라서 어렵지요.

진행자 : 시각장애이용 게임은 나왔더라고요. 게임이 기계로 하는 거라서 어렵겠네요.

진행자 : 장애가 있으시니까 문화생활 하기가 힘들잖아요, 비장애인들과 다른 습관이나 양식이 있나요?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안 들리니까 사람을 툭툭 치거든요. 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결례잖아요. 그런데 청각장애인들은 안 들리니까 그렇게 해요.

김○○ : 그 사람들은 안 들리니까.

진행자 : 일상생활에서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황○○ : 언어가 안 되서 핸드폰 문자로 찍어서 보여줘요.

진행자 : 핸드폰문자로 찍어서 보여줄 때 비장애인 상대방이 이해해요?

황○○ : 이해안된다기 보다는 그전에 가버려요.

김○○ : 찍기 전에 가는 사람 많아요.

진행자 : 제가 얼마 전에 단편영화를 봤는데 부산 지하철에서 비장애인이 노선을 몰라서 어느 청각장애인 보고 길을 물어봤는데 청각장애인이 기다리라고 하면서 열심히 문자로 거의 다 찍었는데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하하

황○○ : 미리 찍어두고 보여줘요.

진행자 : 방법이겠네요. 수고롭지만

송○○ : 이동통신사 전화 연결할 때요. 요즘은 거의 비밀번호를 찍어야 가능하거든요.

진행자 : 예 맞아요. 신용카드라든가 전화고지서라든가 거의 다 카드번호 아니면 주민번호 찍어야 되잖아요.

송○○ : 저 같은 경우는 손이 불편해서 자동으로 끊어버리고요.

진행자 : 시간초과 되면 끊어버리니까요. 진짜 저도 골치 아파요. 가끔 짜증나는데 뭐, 카드번호 누르세요. 고객님의 보안을 위해서 주민번호를 눌러주세요. 대부분 그럴더라고요. 그런 게 참. 전화통화 할 때도 어렵지 않으세요?

이○○ : 어렵죠.

진행자 : 제가 재작년에 받았던 차별사례 중에 뭐가 있다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는데 뇌병변장애인입니다 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쪽에서 다른 사람 바꾸세요. 하고 끊어버리는 경우,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김○○ : 으레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줄 알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요.

진행자 : 그게 차별인데요. 찬찬히 들으면 웬만큼은 다 들릴 텐데.

황○○ : 나도 여러 번 당했어요. 아예 전화를 포기했어요.

진행자 : 아예 전화자체 하는 걸 포기하는군요.

송○○ : 밖에 다닐 때 왜 혼자 다니냐고 물어봐요. 짜증내고요.

김○○ : 일반사람들이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일반인이 많아요.

진행자 : 그렇죠. 당연히 많지요.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비장애인이 모르는 사람이 50%를 넘잖아요.

송○○ : 아는 사람들이 더 짜증내요. 활동보조인 있는데 왜 혼자 다니냐고요.

진행자 : 제대로 모르는 거죠. 활동보조인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모르니까. 그냥 활동보조인 있다고 들은 사람이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뇌병변장애인이 전화통화 할 때 중간에 114요원처럼 중계해줘요.

김○○ : 전화상에서요?

진행자 : 그죠. 제가 7~8년 전에 그걸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건 부각이 안 되고 청각장애인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못하잖아요. 청각장애인이 중간에 문자나 수화로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114같은 건데요. 저는 사실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뇌병변장애인이거나 언어장애인가까지 염두에 두고 생각했어요. 언어장애인들이 공공기관이라든가 하다못해 피자를 먹고 싶은데 전화를 끊어버린다는거

황○○ : 맞아요. 여러 번 당했어요.

진행자 : 그죠. 여러 번 당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 피자먹고 싶고 자장면 먹고 싶고 그런데 전화하면 장난전화라고 끊어버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앞으로 서비스가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면, 언어장애를 자주 접한 사람은 잘 알잖아요. 김○○님은 황○○님 말을 잘 알아듣잖아요. 것처럼 자주 접하면 잘 알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앞으로 참 많이 필요하겠단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 아까 얘기했지만 청각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또 2006년에 만들어진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황○○ : 네

이○○ : 네 듣기만 했어요.

진행자 : 유엔에 여러 가지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권리협약이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권리협약이 없었어요. 아동에 관련된 장애아동에 관한 권리협약이 있고 장애인만을 갖고 국제간에 인권조약이 없었는데 2006년에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장애인차별금지법 만큼 중요한 법이에요. 작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1월부터 발효가 되었어요. 국내도 적용이 되요. 그 안에 보면 장애인문화를 존중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왜냐면, 문화다양성이란 게 있죠. 요즘 다문화, 과거에는 다문화가정 사람들을 신경 안썼잖아요. 몇 년 전부터 다문화란 말을 쓰면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잖아요. 권리협약에 보면 장애인들도 문화가 있다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시각, 청각장애인들 문화가 있다고 하는 데 뇌병변장애인들도 그런 게 있어요? 습관이라든가, 우리나라 약속시간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래서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간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황○○ : 시간을 안 지키는 게

진행자 : 안 지키는 게 문화예요?

이○○ : 콜택시 부를 때 한두 시간 먼저 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요.

진행자 : 맞아요. 비장애인들 나 같은 경우는 나가면 잡을 수 있는 데 콜택시 숫자가 부족하니까 미리 불러야 되는군요.

이○○ : 30분 먼저 온다든가

김○○ : 그게 더 난감하더라고요.

진행자 : 그러니까요. 기다리라고 할 수 도 없고 미리 갈 수도 없고

이○○ : 할 수 없이 취소하고 다시 또 부르고

진행자 : 늘 늦게 오니까 정해진 룰이 있는데 미리 가버리면 곤란하고

김○○ : 당연히 한참 후에 와야 하는데 연결되었다고 택시는 오고, 그게 만날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러니까 문제죠.

황○○ :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오도 가도 못하니까 약속시간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진행자 : 대중교통도 잘못 타면 그럴지요. 혹시 텔레비전 보는데 뭐 불편한 거 없어요?
텔레비전 리모컨작동을 제대로 잘 못한다든가

황○○ : 우리는 괜찮은데 손을 못 쓰는 분들은 어렵지요.

진행자 : 리모컨 작동을 잘 못해서 그럴지요. 지금 또 텔레비전은 IPTV 라고 해서 리모컨이 아주
많아요. 본적 있어요?

김○○ : 네

진행자 : 약간 굵은 사람들은 잘못 눌러서 넘어가고 하잖아요.

김○○ : 채널 돌리면 다행이지요.

이○○ : 긴장하면 손이 더 떨려서요.

진행자 : 장애인 관련 내용도 별로 없지요.

황○○ : 예 거의 없어요.

진행자 : 장사가 안 된다고 광고 안 붙는다고 시청률 떨어진다고 아마 많이 없어졌지요.
사랑의 가족 같은 경우도 점점 줄어들고

김○○ : 아, 붙은 광고가 떨어진다고요?

진행자 : 예 그러니까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광고들이 잘 안 붙고 붙어도 싼 광고가 붙고 시간도
줄어들고 새벽에 한다든가 그럴지요.

이○○ : 프로그램 내용도 대부분 장애인을 불쌍하게 보이게 하고요.

진행자 : 그래야 방송이 돈을 벌어서 불쌍하게 보이게 하고 꼭 거지처럼 보여야.

황○○ : 우리나라 방송에서 장애인은 두 가지예요.

진행자 : TV에서 보여지는 게 두 가지예요?

황○○ : 우리나라 장애인을 보통사람처럼 촬영해야 하는데 그럴지 않고요. 너무 불쌍하다는 식으로
비취지고요

김○○ : 그러니까 불쌍한 장애인을 비취주고 월등하거나 아예 빈곤층이거나 중간은 없고요.

진행자 : 월등한 장애인은 정말 기적이고 아주 뛰어난 실력이 있어서 장애를 극복해서 영웅처럼
하고, 없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다.

황○○ : 그러니까 비장애인들 머릿속에는 그런 장애인의 모습밖에는 없지요.

진행자 : 예 맞아요. 비장애인 머릿속에는 언론 화면에서 보이는 장애인은 가끔 영웅이 되기도 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김○○ : 그럴지 않으면 불쌍하게 보이죠.

진행자 : 혹시 뇌병변장애인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가 있었나요?

송○○ : 예. 일곱 개의 손가락

진행자 : 그게 드라마예요? 영화예요?

송○○ : 영화예요.

황○○ : 예전에 오아시스란 영화도 있었어요.

진행자 : 아, 오아시스 이창동 감독이 만든, 그거 나오고 상은 많이 받았지만 장애인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죠.

송○○ : 배우가 장애인이 아니니까요.

진행자 : 장애인이 아닌 것도 있고 굉장히 동정적으로 그려진 수동적으로 그려져서 비판을 받았죠. 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창동감독이 유명해졌어요. 문화부장관까지 했죠.

송○○ : 보급은 많이 됐는데 정작 우리한테 알려지는 건 별로 없었죠.

진행자 : 그 영화가 좀 왜곡되게 알려졌죠. 굉장히 순수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진행자 : 혹시 최근에 어떤 영화 본 적 있어요?

박○○ : 국가대표

진행자 : 가서 볼 때 비장애인들이 이상하게 보는 시선은 없었어요?

김○○ : 볼 꺼져 있는데요. 뭐. 극장이 어두워서

진행자 : 최근에 어떤 영화관에 가보셨어요?

이○○ : 예, 국가대표

진행자 : 국가대표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볼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 볼 게 없어서요.

진행자 : 볼 게 많은데요.

이○○ : 맨 앞자리에서 봐야 돼서요.

진행자 : 아, 영화관 때문에, 가면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하거나 비장애인들이 이상하게 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이○○ : 요즘은 없는 거 같아요.

황○○ :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진행자 : 근데 청각장애인들이 영화 보려면 자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관객들이 안 들어와요. 너무 희한하죠?

황○○ : 왜요?

진행자 : 자막보기 귀찮다는 거지요.

박○○ : 아니, 요즘은 다른데

진행자 : 진짜 안 들어와요. 한국영화 청각장애인들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외화처럼 자막을 깔아줘요. 그럼 비장애인들이 안 들어온다니깐요. 그 영화를 안 봐요.

김○○ : 자막을 왜 봐요? 그냥 들으면 되죠.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인식의 차이인데요.

김○○ : 그렇게 깔아주는 데가 있어요?

진행자 : 몇 개 깔아줘요. 일 년에 서울에서 400편정도 개봉이 되는데요. 한국영화가 110편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편 정도는 해줘요. 근데 문제는 비장애인들이 영화를 안보니까 극장에서 열 받아서 안하겠다는 거예요.

황○○ : 아니 참 이해가 안가네요.

진행자 : 그렇죠. 이해가 안가요? 장애를 좀 알면 괜찮은데.

김○○ : 아니 전 외국영화도 자막 안 보는데 귀찮아서요. 아니 근데 한국영화를 비장애인들이 꼭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진행자 : 그러니까 안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사투리는 잘 안 들리잖아요. 자막이 있으면 더 정확히 잘 들려요. 대화를 들어보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100% 못 듣죠. 아무리 잘 듣는 사람도 20~30%는 놓쳐요. 사투리 나오면 쥐악이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나 아니면 제주도 사투리 나와 봐요.

이○○ : 동막골 같은 경우

진행자 : 그러니까요. 동막골 같은 경우에는 사투리 많잖아요.

이○○ : 거의 다 사투리예요.

진행자 : 옛날에 '친구'영화 같은 경우 경상도 사투리 부산 사투리 나와서 알아듣기 힘들었는데요. 자막 깔아주면 좋은데 아직도 인식이 안 그런 거 같아요.

이○○ : 불법으로 만드는 DVD 중에 한글자막 넣은 거 있어요.

진행자 : 아, 예 맞아요. 가끔 자막 넣은 DVD 있어요. 참, 그러네요. 문화시대라고 하는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요. 마지막으로 이런 건 개선되면 좋겠다. 문화공연이나, 영화나 아니면 체육이라든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박○○ : 저는요. 뮤지컬 보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진행자 : 일단 아까 바우처 얘기 했지만 바우처 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 다음에 장애인 할인 부분 문제도 있고요.

김○○ : CGV 같은 경우 할인제도를 도입을 하든지

황○○ : 아, 그리고 접근이 우선시 되어야 해요.

진행자 : 맞아요. 접근이 제일 어려우니까요. 현행법 맹점이 장애인좌석을 그냥 한두 좌석 만들면 그만이잖아요.

황○○ : 공연장 같은 경우는 좌석이 맨 뒤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진행자 : 그렇죠. 그 좌석을 선택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법에는 그냥 장애인좌석을 한두 좌석 만들면 된다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앉지 않는 자리에 맨 앞이나 맨 뒤에 만들죠.

박○○ : 미국은 미리 장애인좌석을 설계까지 해놓고 하는데요.

진행자 : 그게 거저 생긴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 그런 문제 때문에 장애인들이 소송을 많이 했어요. 미국도 초기에는 장애인좌석을 앞이나 뒤에 만들었거든요. 장애인들이 소송을 한 거예요. 앉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다고

황○○ : 차라리 영화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아요. 공연장에는 좌석이 맨 뒤니까 접근이 어려워서요.

이○○ : 전 놀이기구 탈 때요.

진행자 : 진짜 어떻게 타세요?

이○○ : 내가 놀이기구 타본지 한 15년 됐어요.

진행자 : 놀이기구 타면 아이들도 키가 작으면 못 타게 하잖아요.

이○○ : 학교 다닐 때 타봤거든요.

진행자 : 못 타게 해서 못타는 거죠. 들어가기도 어렵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 : 네

황○○ : 아니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진행자 : 접근하기도 어렵고 접근하더라도 힘들지요.

이○○ : 그 때는 보호자가 안고 탔어요.

진행자 : 보호자가 안고, 성인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못하죠. 어린애 같으면 그렇게 안고 타는데요.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수영이나 헬스나 이런 운동 하세요?

김○○ : 예 운동해요.

진행자 : 다른 분들은 안하세요?

박○○ : 저도 헬스는 합니다.

진행자 : 시설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황○○ : 일단 염두가 안나요.

진행자 : 그래요. 장애특성에 맞게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없고 그럴 거예요. 혹시 다른 거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접근 문제, 놀이기구, 놀이공원 문제도 그렇고 공원도 마찬가지죠.

송○○ : 계단이 많아요.

진행자 : 공원에 계단 많고 멋있게 보이려고 돌을 해놓잖아요. 매끈하게 안하고 울퉁불퉁하게 해서 놀잖아요. 휠체어 못 다니고요.

박○○ : 경사로도 너무 높아요.

진행자 : 고궁이나 공원에는 거의 밑에 돌로 해놔서요.

송○○ : 그리고 저는 문화예술 쪽에 장애인들이 주체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행자 : 어떤 주체를 말씀하세요?

송○○ : 공연을 직접 한다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애인들의 자리가 확보되지 않을까 해요.

진행자 : 장애인들이 공원이든 어디든 자꾸 가고 아니면 운영하는 데 관여하고 해야죠.

이○○ : 저 같은 경우는 도자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진행자 : 문화관련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는 거네요.

김○○ : 일반인들 운동시설이 많잖아요. 제가 만약 일반인들 시설에 문의를 했을 때 회원으로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거든요.

진행자 : 그런 얘기를 해요?

김○○ : 휠체어를 탔기 때문예요.

진행자 : 공공기관, 복지기관에서 그래요?

김○○ : 복지기관 아니구요. 제가 원하는 건 일반시설에서 하고 싶어요.

진행자 : 예 맞아요.

김○○ :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진행자 :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주민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주민센터에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에어로빅부터 시작해서 단전, 요가, 탁구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가 볼 때 장애인들은 전혀 못 할 거 같아요.

김○○ : 예 장애인들은 안돼요.

진행자 :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하게끔 되어있는 거 같아요. 시설자체도 그렇고 접근도 그렇고 이것도 크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예요.

박○○ : 엘리베이터가 부족해요. 5층 이하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진행자 : 편의증진법에 5층 이하의 건물엔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승강기 안 넣어도 되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어도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죠.

이○○ : 여가문화가 없어서 술자리가 많아요.

진행자 : 예, 그것도 좋은 문화네요.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들은 고스톱을 많이 치거든요. 여가 문화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릴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디가 도 말이 안통하고 그래서 고스톱을 많이 쳐요. 참, 답답하네요. 저희가 도움이 되어 드릴게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박○○ : 제일 중요한 게 승강기 설치하고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진행자 : 5층 이하 건물 규제, 건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이용하는 데 그렇잖아요. 맞아요. 고쳐야 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반 동네 슈퍼 24시 편의점 들어갈 때 걸리지 않아요?

황○○ : 걸려요.

진행자 : 들어간다고 해도 진열대 사이를 다닐 수 없고

김○○ : 들어가가지지가 않아요.

황○○ : 일상생활 할 때 불편해요.

진행자 : 맞아요. 일상생활 할 때 불편해요. 5층 건물도 있지만 식당도 그렇고요.

황○○ : 그래서 대형마트에 가요. 그나마 대형 할인점은 나아요.

진행자 : 그런데 대형 할인점에 가면 많이 사야 되잖아요.

김○○ : 뭐 많이 살 필요 없는데요.

진행자 : 그런데 눈에 띄면 사게 되잖아요. 원래 대형 할인점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가게는 하나만 사러 가는데 마트에선 한바구니 사고요.

박○○ :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면 비싸잖아요.

진행자 : 국가가 5층 이하 건물 해주면 좋은데요.

박○○ : 국가가 좀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진행자 : 그렇게 하려면 지금 4대강 포기하고 국방부 예산 일부 줄이고 그래야 되요. 우리
연금까지 다 깎고 그러는데 우리 연금도 안하겠다고 하는 판에 승강기 지원하라고 하면
아마 까무러칠 거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하실 말씀 없으시죠.

황○○ : 네

진행자 :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4) 지적장애인 면접 결과

진행자 : 텔레비전 1박 2일 재미있죠?

아~ 잘 안들려요?

보통 대화는 크게 하면 되요? 크게 하면 들려요?

이○○ : 네.

진행자 : 크게 얘기하면 불편 없어요?

이○○ : 네

진행자 : 텔레비전 1박 2일 재미있잖아요.

그러데 이거 텔레비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이 안보이면 안보이잖아요

이○○씨처럼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조금 들리면 괜찮은데 완전히 안 들리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텔레비전 보거나 그럴 때 불편한 거 없으세요?

1박 2일 재미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재미없거나 그런 거 느낀 적은 없어요?

박○○ : 전혀 없어요.

진행자 : 불편함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럼 영화는 보러 간적 있어요? 영화?

황○○ : 네

진행자 : 어떤 영화? 어떤 영화 본 적 있어요?

이○○ : 멜로영화를 잘 봐요.

진행자 : 언제 갔다 왔어요?

이○○ : 자주 가지 못해요.

진행자 : 멜로 좋아하는데 자주 가진 못하고...

이○○ : 네

진행자 : 최근에 영화본 적 있어요?

선생님 : 황○○는 무슨 영화를 봤어요?

황○○ : 며칠 전에 '애자' 봤어요.

진행자 : 그거 감동적이죠.

남자분들은 잘....하하 여자분들이 봐야하는데...

황○○ : 심심해서 봤어요.

진행자 :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갔어요?

황○○ : 아, 혼자 갔어요.

진행자 : 어땠어요? 애자, 이름도 특이한데... 옛날 이름 애자.

황○○ : 시작할 때는 엄마하고 애하고 대화하고, 엄마가 병들어서요.

엄마가 아파서요. 애자가 갑자기 철이 들었어요. 마지막에 죽더라구요.

진행자 : 소개 좀 해주실래요? 아까 이○○이라고..

이○○ : 이○○. 서른살입니다.

황○○ : 황○○. 스물일곱입니다.

박○○ : 전 박○○입니다. 스물두살.

김○○ : 김○○입니다. 서른살입니다.

송○○ : 전 송○○ 이구요. 오십한살입니다. 하하

변○○ : 여자나이는 밝히는 거 아닌데.. 하하

진행자 : 따로 물어볼 걸 그랬네요. 저 안 들은 것으로 할게요. 하하

선생님 : 박○○는 무슨 영화가 좋아요? 어떤 영화가 좋아요?

박○○ : 저는 싸우는 영화를 좋아하구요. 두사부 일체

진행자 : 싸우는 영화면.... 두사부일체 이런 거.. SF같은 무술영화

박○○ : 예 저는 주로 싸우는 영화를 잘 봐서요.

진행자 : 액션영화를 좋아하는구나

선생님 : 김○○는 무슨 영화가 좋아요? 김○○는 무서운 거 좋아해요.

진행자 : 아~ 공포영화 좋아해요?

근데 공포 영화는 통상적으로 여름에 많이 하는데...

선생님 : 김○○는 스릴 있고 이런 걸 좋아해서 다른 거는 심심해서 영화구경 가면 자요.

진행자 : 아~ 텔레비전에도 공포 드라마가 별로 없네.

아, 그 일요일날 하는 서프라이즈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싫어해요?

선생님 : 저희 집 애들은 저녁에 10시면 다 자요.

진행자 : 아니, 일요일 낮에.. 안봐요?

선생님 : 안봐요. 잘.

진행자 : 그것도 공포 영화예요. 재미있어요.

선생님 : 일요일날 주로 뭐해요? 일요일에 집에 안 갈 때는 주로 뭐해요?

김○○ : 돌아다녀요.

선생님 : 어디로 돌아다녀요?

오늘은 어디로 돌아다녔어요?

김○○ : 종로3가에 다녀왔어요.

진행자 : 연극도 본 적 있어요? 연극. 연극은 안 봐요?

황○○ : 선생님하고 갈 때는 보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영화를 봐요.

진행자 : 아, 영화를. 연극은 재미가 없죠? 하하

재미없어서 잘 안보죠? 맞아요. 연극은 또 비싸잖아요. 그죠?

영화보다 옛날에는 연극이 썼는데 지금은 연극이 비싸잖아요.

축구 이런 거 좋아하세요? 운동 좋아하세요?

박○○ : 보는 게 재미있어요.

진행자 : 그럼 보러 간적 있어요?

박○○ : 네

진행자 : 그럼 자주 가요 ?

박○○ : 가끔씩.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축구 보러 갔을 때 친구들과하고 같이 주로 경기장으로 가서 보는 게 재미있어요.

진행자 : 원래 부산이에요?

박○○ : 네 고향이 부산이에요.

진행자 : 아, 말투가 경상도 말투를 좀 써서.

진행자 : 영화 보러 갈 기회 있어요?

송○○ : 전 별로 없는데, 올해 설날에 한번 간 기억이 나는데... 지금 기억이 안나요.

진행자 : 연극도 거의 보러가지 못하세요?

송○○ : 네. 그럴죠.

진행자 : 축구 좋아하세요? 축구? 싫어요?

운동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김○○ : 네?

진행자 : 축구나 배구나 야구, 아까 우리 이 분은 축구구경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김○○ : 어려워서...

진행자 : 혹시 좋아하는 운동 있으세요 ?

황○○ : 농구 좋아하구요. 운동은 좋아하는데 잘 못해요

진행자 : 나도 못해요. 하하하. 그 농구 그러면 누구랑 해요?

황○○ : 지금은 할 사람 없어서... 그냥 놀아요.

진행자 : 농구는 구경 하러 가기도 힘든데 축구나 야구는 가끔 이렇게 잠실 경기도 하고 그러는데

황○○ : 선생님하고 농구장가고 그러는데

진행자 : 농구장 어디 있어요?

황○○ : 경기장에 있겠지요. 농구골대는 A대학교 농구 골대 있는 곳에 가서 하지는 못하고요.

진행자 : 경기장 가서 구경할 때 불편한 점 없으세요? 농구장이나 축구장에

박○○ : 친구들과하고 같이 가니까 불편한 거 없어요. 재미있으니까.

진행자 : 만화책 이런 거 보세요?

박○○ : 요즘 안 봐요. 왜냐하면 이제 다 성인이니까.

(모두 웃음)

진행자 : 어른스럽네요. 난 만화책 좋아하는데, 난 아직도 어린애가...

혹시 만화책 봐 본적 있어요?

김○○ : 네

진행자 : 만화책 재미있어요? 어떤 거 본 적 있어요?

김○○ : 무대리

진행자 : 아, 무대리, 그 유명한 만화 무대리

텔레비전 프로그램 좋아하는 프로그램 뭐예요?

그냥 아무거나 보세요?

이○○ : 1박 2일

진행자 : 강호동 나오는 거? 강호동 팬이겠네. 강호동 좋아해요?

이○○ : 네

진행자 : 다른 좋아하는 연예인 없으세요?

변○○ : 이○○~ 지갑을 보여드려

진행자 : 아, 여자 연예인. 좀 봐도 되요? 보여주세요. 비밀은 아니죠?

이○○ : 네, 괜찮습니다.

진행자 : (연예인 사진보며)와~ 부럽다.

아~ 이건 누구야? 누구예요? 기억이 안 나네.

아나운서인가? 텔런트예요? 예쁘다.

텔런트 같다. 맞아요. 이거 언제 다 모았어요?

아~ 소녀시대 아닌가? 소녀시대죠? 소녀시대 좋아해요?

이○○ : 네

진행자 : 아주 많이 모았네요.

진행자 :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김○○ : 네

진행자 :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누구예요? 없어요? 밝히기 싫어서...

김○○ : 네

진행자 : 이거 내가 한 장 가져가면 안 돼요?

이○○ : 네. 안돼요.

진행자 : 아~ 부럽다. 뭐 체육 할 기회가 별로 없겠네요?

직접 운동을 하거나, 농구 좋아하는데 농구골대가 없어서,

할 사람도 없고.

황○○ : 있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진행자 :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하면 좋는데.... 이 근처에 공간이 별로 없죠?

A대학교, 아 A대학교에는 농구 골대밖에 없겠구나,

황○○ : 아~ 이 근처에 있어요. A대 병원에서 쪽 올라가면 축구장, 운동장 있어요. 가끔 뛰긴 뛰는데.. 그게 잘 안돼서.

진행자 : 혹시 오락이나 게임 같은 거 하세요?
게임할 기회가... 아~ 게임기 있어요?
어떤 게임 좋아해요?

황○○ : 액션게임이랑

진행자 : 컴퓨터로 게임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안 해봤죠?

황○○ : 그건 잘 몰라서

진행자 : 다운 받는 거 불편해서...
그리고 컴퓨터 오래하면 안 좋아요.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게임 해본 적 있어요?

박○○ : 어릴 때,

진행자 : 어릴 때 어떤 게임했어요?
그 때 게임이 어떤 게임 있었어요? 어릴 때? 무슨 게임?
옛날에 어떤 게임 있었어요?

황○○ : 꼬마 때는요 슈퍼마리오, 스트리트 파이터인가..

진행자 : 아~ 네

황○○ : 지나가면서 나오는 벽돌깨기요. 테트리스

진행자 : 테트리스 그런거...

황○○ : 오락실에서 많이 했어요.

진행자 : 극장이나 아니면 불편한 거 없으세요?

송○○ : 저요? 저는 지금 불교TV로 하는 거 요가하는 거 좀 하고 있구요.

진행자 : 요가~ 그런데 혼자 하기 어렵죠?

송○○ : 그래도 허리가 아파서 해야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게 되어있어요. 따라서 혼자 하게 되어있어요.

진행자 : 요가 좋죠. 전 단전호흡 하는데, 사실은 제가 불자인데요.
참선을 좀 하고 싶은데 혼자하면 안되니까 배울 기회가 없어서 대신 좀 하고 있는데
기회가 달으면 나도 좀 하고 싶은데 주변에 그런 데가 없더라구요.
아~ 혹시 종교 있어요?

이○○ : 없어요.

진행자 : 성당이나 교회나 절이나 다니는데 있어요? 없어요?

김○○ : 네.

진행자 : 종교 있으세요?

박○○ : 전 기독교

진행자 : 그럼 교회는 가세요?

박○○ : 제가 부산에 교회는 자주 갔었는데 요즘엔 잘 안다녀요.

진행자 : 왜 안다녀요?

박○○ : 오늘 근무가 잡혀서 많이 바빠서..

진행자 : 그러면 어떤 교회 다녔어요? 교회가 커요? 사람 많았나요?

박○○ : 그냥 보통교회

진행자 : 거기가면 청년부, 학생부 이런 모임에 활동도 하세요?

박○○ : 네

진행자 : 어떤 부에?

박○○ : 찬양도 한 적 있었고 행사도 같이 참여하고 가끔씩 수련회에 간 적도 있었어요.

진행자 : 아, 열심히 활동하시는구나..

혹시 종교 있으세요? 없어요?

황○○ : 절에는 할머니가 가니까 같이 다녔는데

진행자 : 어느 절에 할머니님이 다니세요?

황○○ :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다녔는데

진행자 : 그냥 따라 다니다가 할머니 안다니시니까.. 절에 다니시지 계속~

황○○ : 가면 가요.

진행자 : 혼자 가기 뭣해서 못 가는구나.

황○○ : 잘 안가는 편이에요.

진행자 : 관심이 별로 없어서 안가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가기가 쑥스러워서 안가는 거예요?

황○○ : 혼자 가면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진행자 : 음, 혼자 가면 쑥스럽고

선생님 : 전에는 조계사에도 자주 오고 그랬잖아요.

진행자 : 아, 조계사 다니셨구나.

변○○ : 전에는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해서 자주 갔었는데 요즘은 토요일 날 근무하니까 6시에 끝나서 잘 가지 못하죠.

진행자 : 아~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럴구나.

절에 다니고 계세요?

송○○ :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는 3~4년 다녔어요.

진행자 : 그럼 조계사에 다니신 거예요?

송○○ : 원심회에 다녔어요.

진행자 : 아~ 원심회.

송○○ : 몇 년 동안 꾸준히

진행자 : 어디서 뵈 분 같아서... 낯이 익어서.

예전엔 가끔 가뭄에 콩 나듯이 원심회 갔었어요.

송○○ : 저도 뵈 거 같기도 해요. 그럴구나..

진행자 : 공부하시느라고~

송○○ : 네

진행자 : 알았습니다. 오늘 바쁜데, 재미있게 1박2일 봐야 하는데, 보지도 못하고 미안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제가 장애인단체에서 일해요.
 옛날보다 장애인들 살기는 좋아졌지만 지금도 장애인들이 힘들어 요. 일해도 급료도 많지도 않고, 직장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영화나 연극이나 체육 이런 거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는데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좀 바꾸려고 오늘 얘기를 좀 나눈 거예요. 국회라든가 정부라든가 이런 문제를 시작해서 바뀌어야 된다. 장애인들이 좀 더 편하게 살려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있어요. 처음 얘기했듯이 듣지 못하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보이지 않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뇌성마비장애인 아시죠? 뇌병변 장애인 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도 만날 거예요. 운동을 한다든가 연극을 본다든가 영화를 볼 때
 아, 이런 거 불편하다. 이런 거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생각 특별히 안 해봤어요?

박○○ : 전 불편은 없었어요.

송○○ : 저는 요새 바우처같이 한 달에 영화를 두 편을 보라. 표를 두 개씩 나누어 준다거나 그런 거 있음 안될까요?

진행자 : 아, 바우처 제도 있어요. 지금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걸 자주 안보러 다니셔서 잘 모르신 건데요. 바우처제도가 있어요.

송○○ : 그걸 어떻게 받아요?

진행자 : 인터넷 잘 안 쓰시죠?
 요즘은 공고를 낼 때 인터넷을 모르면 정말 손해를 많이 받아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그룹홈에서 독립하게 되면 전세를 얻어야 될 때, 전세에 대한 장애인이라든가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의 임대주택 이런 거 공고도 거의 대부분 인터넷에 올려버려요.
 인터넷 하면 정보가 빠른 사람은 신청해서 되거든요.
 인터넷 안하게 되면 정보를 몰라요. 인터넷을 가끔씩 하셔야 되요.
 이런 문화 바우처도 인터넷으로 공고 띄우고...

송○○ : 어디로 들어가면 되요?

진행자 : 그냥 인터넷에다 문화바우처 한글로 치면 떠요.
 올해는 거의 다 끝났어요.

송○○ : 그럼 몇 명이나 아니면 몇 번이나...?

진행자 : 순서로 쭉 나와요. 문화바우처가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공연, 연극 이런 것도 가끔씩 세종문화회관에서 천원만 내고 들어가게 세종문화회관 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려고

보통 공연은 몇 만원이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못가잖아요.

싸게 이렇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송○○ : 그게 기회가 좀 제한이 되어있고 추첨의 형식이겠군요?

진행자 : 그렇죠. 순서별로 끝죠. 선착순으로 끝고 자격이 되어야 해요.

장애인이란가 돈이 많은 사람은 해당이 안되요.

앞으로 인터넷 많이 활용하세요. 인터넷 활용을 하시면

인터넷으로 영화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해보셨지요?

황○○ : 혼자서는 하기가 어렵고 선생님이 해주시면..

진행자 :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여기 PC가 많지 않은데 앞으로는 점점

PC가 많아지고 앞으로는 컴퓨터도 화면도 이만큼 커져요. 지금 DVD도 예전에는

비디오처럼 만들었지만 요즘은 컴퓨터와 연결해서 DVD 보잖아요. 그런 거 모르죠?

영화도 요즘 컴퓨터로 봐요. 요즘은 영화도 사람들이 화면도 커졌어요. 두 배 정도 큰

화면에서 영화도 보고 사무도 보고 많이 해요. 가끔씩 인터넷 좀 들어가면 유익한 정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 가끔 있어요. 가끔 들어가 보세요. 저희는 그런 거 많이

만들어요. 장애인들이 요즘은 정보 사회잖아요. 인터넷 세상이에요.

앞으로는 밖에서 여기 불이 켜져 있죠. 막 바쁘게 갔는데 아 참 내가 불을 켜고 왔지.

지금 같으면 다시 집에 와야 하잖아요.

앞으로는 핸드폰으로 똑 하면 집에 불이 딱 꺼져요.

그리고 도둑이 들어왔다 하면 핸드폰으로 도둑이 들어왔다고 알려줘요. 그런 세상이 와요.

그걸 어려운 말로 '유비쿼터스'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몇 년 안에 올거예요. 그 기초는

인터넷이거든요.

앞으로는 인터넷 많이 쓰세요.

오늘 바쁜 데 1박 2일 보는데 미안합니다.

오늘 상황은 좀 알겠구요.

말씀해 주시는 건 많지 않았지만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장애인들도 좀 더 편한 세상을 만드는데

제가 유익하게 좀 정리해서 쓸게요. 고맙습니다.

송○○ : 근데 교육바우처도 있나요?

진행자 : 네 교육바우처도 있을 거예요. 교육 종류에 따라.

자격증 제도도 보면 장애인이나 저소득 내지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보험 든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다시 되돌려 주는 제도가 있어요.

송○○ : 아니 그건 아니고...

진행자 : 교육바우처 어떤 교육?

송○○ : 아니 그냥 바우처 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한 달 권을 끊어주는 거. 뭐든지.

진행자 : 교육바우처, 그거는 제도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송○○ : 직장환급 하는 거 말구요. 장애인인들, 직장이 없잖아요. 실업자들인데, 영어 같은 거 배우는 거.

진행자 : 그거는 어디서 한번 실행을 했는데요. 정착이 안 되었을 거예요.

문화바우처는 한 4~5년 됐어요. 꽤 오래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인기가 많아서요.

초기에 연초에 시작하면 한 3, 4월 되면 딱 끊겨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진행자 : 저희가 3년 전에 저희가 한번 봤더니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그거는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건 문화만 하는 게 아니고 여행도 가능하거든요. 몇 시간 동안 여행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문화바우처가 공연만 보는 게 아니고 여행할 수 있는 경비지원이라든가.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줘요 3~4년 전에 인기가 좋아서 금방 신청자가 넘치고 그랬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변○○ : 이○○야, 황○○야, 불편한 게 왜 없니? 연극 볼 때도 그렇고 뮤지컬 볼 때도 그렇고 장애인지정석 정해준 데만 앉아야 하고 불편한 게 많은데 선생님이 따라가니까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진행자 :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알기에도 지적장애인들이 혼자 들어오면 중간에 제재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장애인지 정석이 맨 앞이나 맨 뒤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황○○ : 자리가 너무 뒤에 있어요.

진행자 : 예 맞아요.

변○○ : 농구장경기 보러 갈 때도 생각해봐. 맨 뒤에 장애인좌석이 있어서 볼 때마다 불편하다고 툭툭거린 게 다 불편한 거야.

황○○ : 농구장 정말 너무 멀어서 잘 안보이니까 불편했어요.

진행자 : 맞아요. 장애인 좌석이 그래요. 휠체어장애인의 경우도 휠체어 보호대가 없어서 굴러 떨어지고 그래요.

황○○ : 농구장에서 정말 사람 너무 작게 보여요.

선생님 : 전에는 그림도 많이 그린 걸로 아는데 지금도 그림 그리나요?

황○○ : 지금은 그림도 잘 안 그리고 그냥 일만 다녀요. 하하

진행자 : 예 그림도 그리셨군요. 나중에 기회 닿으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더 말씀 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송○○ : 예, 극장 같은 데 간다든가 연극을 본다든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간담회 형식을 가져서 소감이 어떤지, 감상이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럼 친구가 생겨서 좋다는 이야기죠. 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없어서 힘든데, 그런 사회담당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미리 간담회 형식을 미리 개최를 해줘서 서로 만나게 해줘서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를 문화를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변○○ : 이○○도 헬스클럽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혼자라고 안 된다고 거부 당했어요.

진행자 : 언제요?

변○○ : 재, 실직했을 때 살 빼줄려고 선생님이 해주려고 했는데 위험하다고 혼자 오면 헬스클럽 같은 데는 혼자 오면 안받아줘요. 시에서 하는 데는 해주는데 개인으로 하는 데는 안 해줘요.

진행자 : 개인이 하는 데는 그럴죠.

변○○ : 개인이 하는 데는 위험 부담 때문에 안 해줘서 그래서 멀어도 시에서 하거나 공단에서 하는 곳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진행자 : 공립체육생활시설에는 그 안에서 안내해주는 분들이 있나요?

변○○ : 특별히 가서 부탁을 해야 돼요. 그 트레이너한테 이 아이가 이런 장애가 있으니 봐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특별히 봐달라고 부탁을 하면 한 두 번은 봐주시는데, 안 그럴 경우엔 기계조작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해야 돼요.

진행자 : 그러면 꾸준히 옆에서 지켜봐주는 건 아니고요?

변○○ : 아니에요. 그건 일대일로 바로 해서 우리가 해줘야 하는데 가서 이걸 하지 말아라 식으로 그저 조심시켜 주는 식으로 하고, 가서 유산소 운동을 하더라도 기계를 만져야 되니까 그저 정말 시간 때우러 왔다갔다 하는 거 밖엔 안 되는 거지요.

진행자 : 새해부터는 장애인이 가면 장애인전문 체육교사라든가 그런 사람을 배치해야하거든요. 법 만들어진 후에, 서울 같은 경우엔 이게 인구 단위로 나누는데, 서울은 2010년부터이니까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도를 해줘야 돼요. 내년부터는 불편사항이 있을 때 시정하도록 얘기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할게요.

변○○ : 운동 센터 이용할 때 사고가 날 위험이 많아서요.

진행자 : 그럼요. 시각이나 지체장애인들이 사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새해부터는 일반 체육교사들은 장애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니까, 공공기관의 체육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 : 수영장 같은 곳에서도 저희가 예전에 발달장애학생들과 조인하려다 못했는데 발달장애학생들은 수영장에서 사고가 있잖아요. 물 안에서 실례를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수영장시설을 이용을 하지 못하고 거부당한 적이 많이 있어요. 장애특성에 따라서 거부당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지적장애 아이들이나 발달장애 애들 같은 경우는 운동시설 이용할 때 거부당하는 일이 많아요.

진행자 :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다른 장애유형에서도 거부당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의사표현이 제대로 안되니까 상대방이 오해를 한다거나 무조건 거부를 하는 경우들, 그래서 사실 문화영역은 아니지만 민법 개정이 되고 있어요. 민법개정이 되면서 장애인들이 형사사건이나 이런 때 연루되게 되면 무조건 변호인이 붙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불이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Ⅲ. 결론

1. 한국 장애인 문화의 과제와 전망

한국에서는 장애인들의 문화에 대해 아직 자세히 조사되고 논의된 바가 없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들을 독립된 문화를 가진 존재들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에 대한 설명은 주로 그들의 결함에 집중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긍정적인 삶의 모습들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공동체와 문화 집단의 일원인데도 말이다. 한국에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호작용하고 함께 노력하는 장애인들의 모임이 존재한다. 물론 다양한 문제들에 관해 장애인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가치와 신념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기도 한다.

장애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선택한 신념과 삶의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의 가치는 흔히 주류 문화와 다른 측면이 있고, 비장애인들 속에서 자라난 장애인들이 동의하고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이기도 하다.

농 문화에서는 농인들을 비정상적이고 병리학적인 상태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가진 존재들임을 강조한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장애인이 주류사회 비장애인들과 다름을, 장애인들간에도 다름이 존재함을 인정할 것(전문 (i), 3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살지, 비장애인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사회 참여하는 장애인으로 살아갈지를 선택할 자유와, 비장애인이 되지 못한 결함이 있는 존재로서가 아닌 남과 다른 언어와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전문 (n)).

또한 수화(sign language)가 주류사회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음성언어나 문자 언어처럼 ‘언어’임을 확인하면서(2조 언어의 정의), 다른 비장애인들처럼 장애인이 선택한 의사소통 방법 및 형태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정보와 사상을 탐구하고, 타인과 주고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21조). 그리고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에게 가장 적절한 언어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24조).

마지막으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은 수화와 농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 특유의 문화적·언어적 주체성을 인정·지원받을 자격이 있음도 분명히 천명하고 있다(30조).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안하고 있는 장애인 문화 혹은 장애인의 언어적·문화적 주체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 법률 등이 시급히 개정·제정 되어야 할 것이다.

- 청각장애인, 특히 어린 아동들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방법으로 수화와 농 문화가 주류 사회의 음성언어나 문자언어와 동등한 수준으로 그 습득과 사용이 인정·촉진되어야 한다
- 장애인의 언어와 문화를 장애인들이 연구하고, 교육하고, 보급할 수 있는 언어적/문화적 주체성·결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 학교, 경찰서, 법원, 병원 등 공공기관 및 프로그램 등에서 수화와 문자, 음성언어 등 장애인이 선택

한 언어와 의사소통 방법, 접근 및 이용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하고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장애학생과 정확하고 풍부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교사가 장애학생 담당 및 지원 교사로 특수학교 및 일반 초중등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
- 장애인이 더 잘 의사소통하고, 더 잘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 생활하고, 양육 생활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언어와 의사소통 방법, 문제해결 방식을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장애인들의 삶의 경험이 담긴 장애인 문화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통합·참여하도록 촉진하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고립·격리되지 않도록 개별지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반영되어야 한다.

주류 비장애인 문화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구분하고, 규정하곤 한다. 난청(hard of hearing)은 보다 유능하며, 다른 건청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보다 월등함을 의미하고, ‘농(deaf) 수준의 청력 손실’은 나쁜 것이며 의사소통할 수 없으며, 특히 말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농인들은 자신이 ‘청각장애 혹은 농’이라고 불리는 것을 싫어한다. 농 문화를 지지하는 농인들은 청력 손실 정도에 따른 구분은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이들에게 농(Deaf)은 청력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농(Deaf)의 문화적 의미이다. 이런 의미에서 농인들은 청각학적으로 난청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도 한다.

만약 한국 사회가 장애인 문화를 존중하고, 장애인들이 원하는 대안 사회와 대안 문화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용인 가능한 생활방식, 만남의 방식, 공존의 방식으로 인정한다면, 한국 사회는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함으로써 차별 철폐하는 방법에 익숙해 질 것이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 바람,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정보들을 청각 채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시각 채널을 통해서도 전달하는 법에도 능통한 사회가 될 것이다. 더욱이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아닌 상대방이 보다 잘 의사소통할 수 있고, 더 잘 공부하고, 보다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실천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무한 경쟁 사회라는 기치 아래, 타인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는가와 더 많은 재산과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사회, 무한 욕심이 찬양 받는 사회가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의 요청에 민감한 나눔의 사회, 타인과 나의 관계의 성장 속에서 기쁨을 찾는 비움의 사회, 남을 위한 삶이 높이 평가 받는 섬김의 사회가 구현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들은 지금까지 비장애인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같이 잘 살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문화는 그들끼리만 모여 사는 영토(ghetto)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며, 한국 사회 일부 구성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잘 공존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자리 잡은 삶의 방식이고 신념 체계를 말한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결함, 무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잘 의사소통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회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민감해지는 노력의 결과물이 장애인 문화인 것이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인정·존중·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문화는 인간의 다양성과 장애인

의 다양성 속에서 인식되어야 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한국 사회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본 원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장애인용 문화 or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가능한 문화

1997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4조 (접근권)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들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법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로 및 공원,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차 많은 편의시설(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이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편의시설 설치 증진법’이라 불린 정도로, 지체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청각장애인 등이 간절히 원하는 정보 접근권 및 시설·설비 이용권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더욱이 이 법을 통해 설치되고 있는 편의시설 등도 접근권 보장의 근거 및 실천 원리인 Universal Design 에 걸맞는 시설과 설비가 아니라, 즉 장애인 등도 이용가능한 시설과 설비가 아니라 ‘장애인용 시설과 설비’가 설치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한국에는 화장실 측면에서 세 가지 성이 존재하게 되고 말았다(남자, 여자, 장애인).

청각장애인들도 여느 장애인들처럼 청각장애인용 화장실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원하고 요구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라 함은, 안에서 사람이 볼 일을 보고 있음이 문에 표시되거나 불빛을 통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청각장애인들은 밖에서 푹푹하는 소리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볼 일을 보아야 한다.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현실적인 해결방법으로는 문에 손을 대고 볼 일을 보거나 신발을 벗어 문아래 틈에 밀어 넣고 볼 일을 보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이 법은 통신시설과 관련하여서도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관한 내용이 없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이행 강제금의 부과도 근거 조항이 없어 불가능한 현실이다. 더욱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관련하여 법 밖의 현실도 청각장애인용 청취보조기 및 정보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인공와우장치, FM 보청기의 수입 및 보급, 청각장애인을 위한 팩스, 문자전화기, 영상전화기의 보급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해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청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영상매체, 원거리 정보통신, 학교 수업, 병원, 공공기관(시청,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경찰서, 법원 등)에 관한 논의 및 해결

책 제시가 미흡한 게 현실이다.

미국의 청각장애인들이 한국의 청각장애인들보다 보다 자신감 있게, 뭐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고, 가정생활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팩스와 문자 전화기, 더 좋은 청취보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팩스 및 청각장애인용 문자 전화기(TDD의 일종)를 청각장애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모든 관공서, 학교, 연방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는 대중 이용시설에 모두 설치하고 TDD 번호와 팩스 번호를 음성 전화번호와 함께 병기하여 청각장애인도 원거리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전역에 공중전화 3대 중 한 대는 TDD를 설치하여 미국 어디서나 청각장애인이 원거리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1989년부터 전화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를 실시하여 음성전화 사용자와 TDD(Telecommunication Device for the Deaf) 사용자 간의 전화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는 수화 사용 청각장애인과 음성 전화 사용자 간의 전화 중계 서비스인 VRS(Video Relay Service)를 제공하기 시작했다(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12월부터 문자 기반 TRS와 VRS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동시에 시험 서비스(오전 9시~오후 10시)하고 있으며 [<http://www.relaycall.or.kr>] 경기도 농아인협회에서는 2007년 4월부터 하루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ttp://www.trs.or.kr>]). 즉, 청각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나 청취보조기기 보다는 청각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전화, 공공이용시설, 관공서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 사회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혹은 보편적 설계 및 재설계(Universal Design or Redesign)했기 때문에 농인 의사, 물리학자, 교육학자, 전문가 등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청각장애인용 청취보조기기나 정보통신기기만이 청각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좁은 논의에서 벗어나 청각장애인이 접근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의 문제를 청각기관의 손상과 기능 저하라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CI 수술이나 보청기 등의 청취보조기기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 개인을 유능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에서 벗어나, 청각장애인들이 노력하는 만큼이나 이들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지역사회, 한국 사회 모두 함께 노력하고, 유능해져야 함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 접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한국 사회에 관한 논의를 위해 장애인들의 장애가 왜 발생하며, 그들이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공부하고, 사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1997년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한국농아인협회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2003년 12월 31일 이 법 4조 접근권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개정 되었다

제4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3.12.31>

개정되기 전과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97년 이 법의 제정 당시 지체장애인들을 중심으로 다른 비장애인들처럼 장애인도 다른 비지체장애인들처럼 ‘남의 도움 없이’ 해당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갖추기를 요구하였기에 이렇게 정의 내려진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체장애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버스 타고 싶고, 지하철 타고 싶고, 2층 이상의 건물에 접근하고 싶었고, 더욱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남의 도움 없이 이러한 교통접근 및 시설접근에의 요구가 권리로서 인정되기를 원했기에 만들어진 조항이었다. 이를 통해 지하철역 등에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많은 건물 등에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등 부족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청각장애인들을 대표해서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이 ‘남의 도움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나 기술이 없고(기술 개발이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수화통역사나 속기사 등의 도움을 받아 왕성하게 공부하고 사회참여하고 있음에도 접근권의 구현 방식이 ‘남의 도움 없이’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나 시설에 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은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지원 받지 못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접근권의 정의가 되도록 한 것이다. 즉 보다 보편적인(Universal) 법 내용이 된 것이다.

4조 접근권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16조 2항이 신설된 이유도 같은 이유다.

제16조의2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 ①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상의 한계만으로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장애인들의 장애가 왜 발생하며, 그들의 보다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 어떤 접근이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많은 장애인들과 그들의 가족, 장애 전문가들은 장애는 한 개인의 신체기관의 손상과 기능 저하에 의해 발생하며[A≠B], 따라서 이러한 손상과 기능 저하를 제거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장애가 극복될 수 있다고 믿고, 가능한 한 비장애인 혹은 평균적인 사람과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A=B]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남과 다르게 대하고, 남과 다르게 살라고 하는 것[A≠B]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장애인을 남과 똑같이 대하고, 남과 똑같이 버스타고, 지하철 탈 수 있도록 하는 것[A=B]이 차별 철폐라고 이해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장애 인식과 차별 인식은 장애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커다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비장애인 관점에서 장애인을 무능하다고 바라본 결과, 얻어진 인식으로서, 최근 청각장애인들과 관련해서 병리학적 관점이 거부되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화적 관점과 대치되는

인식이다.

최근 청각장애인들은 자신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deaf person), 무능한 사람(disable)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사람(seeing person), 유능한 사람(able)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신들이 수화를 사용하는 이유는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볼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정보를 청각화 했을 때(A)보다 정보를 시각화했을 때(B) 더 잘 의사소통하고, 학습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 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신들은 A 방법보다 B방법으로 더 잘 의사소통하고, 학습하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데, 기존의 A 방법에 익숙한 대부분의 건청인들 혹은 주류사회 구성원들이 A 방법만으로 의사소통하고, 학습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참여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장애(Social Participation Restriction 혹은 Activity Limitation)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에 의하면, 오히려 남과 똑같이 의사소통하고, 공부하라는 것[A=B]은 오히려 차별이며, 장애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다. 남과 다른 방법, 장애인이 더 잘 의사소통하고 공부할 수 있는 B 방법이 허락되는 사회일 때[A<B], 장애인들의 장애가 제거되고,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철폐된다고 본다.

1997년 제정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이유는 단순히 청각장애인 관련 공학 기기 및 기술의 개발 미비나 지지분함 때문은 아니며,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한국 사회가 어떠한지 함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2007년 3월 6일 통과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도 담겨 있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와 공존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중요 내용]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해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들에게 있어 차별은 ‘남과 다르게’가 아니라 ‘남과 똑같이’ 장애인을 대하고, 남과 똑같이 의사소통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 생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았다. 장애인들은 지난 몇 백 년 동안 비장애인들에게 익숙한 의사소통 및 삶의 방식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 왔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비장애인들도 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선호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일해야 하지 않을까? 미국 오하이오 주립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농인 피터 폴 교수의 수업에서는, 농인 교수는 청인 학생에게 음성 언어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교수에게 질문할 때 수화를 사용하거나 수화통역사가 수화통역한다고 한다.

청각장애인들은 정보의 시각화에 의해서도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래야 보다 많은 청각장애인들과 청인들이 함께 더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사회는 그들의 유능함(Disability Power)에 근거하여야 하고,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대한 통제 권한을 돌려주는(Disability Empowerment) 방향으로 방향 매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장애인의 무능력(disability)이 아니라 그들의 유능함(ability),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바램(want)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한 개인 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한 개인의 노력과 능력 향상만으론 해결될 수 없으며, 이 사회, 특히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이 생활방식, 문제해결방식, 공존방식에 대한 협상과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가로 막고 있는 비장애인 중심의 정보접근 방식, 생활방식, 업무 처리 방식만을 고집하는 경직성과 하나만 아는 무능력,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아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는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Andrews, J. F., Leigh, I. W., & Weiner, M. T. (2004). *Deaf people*. NY: Allyn & Bacon.
- Bahan, B. (1989). Seeing person. In Sherman Wilcon(Ed.), *American deaf culture: An anthology*. Burtonsville, maryland: Linstok Press.
- Bauman, H-D. L.(Ed.) (2008). *Open Your Eyes: Deaf Studies Talking*.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rueggemann, B. J. (Ed.). (2004). *Literacy and deaf people: Cultural and contextual perspectives*.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Christie, K., Wilkins, D. M., McDonald, B. H., & Neuroth-Gimbrone, C. (1999). GET-TO-POINT: Academic bilingualism and discourse in American sign language and written English. In Elizabeth Winston(Ed.), *Storytelling & conversation: Discourse in Deaf communities*.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Cokely, Dennis (1992). *Interpretation: A sociolinguistic model*. Burtonsville, Maryland: Linstok.
- Dahl, C., & Wilcox, S. (1990). Preparing the educational interpreter: A survey of sign language interpreter training program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35, 275-279.
- Davis, J. (1989). Distinguishing language contact phenomena in ASL. In C. Lucas(Ed.), *The sociolinguistics of the Deaf community*(pp.85-102).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Davis, J. (1990). Linguistic transference and interference: Interpreting between English and ASL. In C. Lucas(Ed.), *Sign Language research: Theoretical issues*(pp.308-321).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Davis, L. J. (1997).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New York: Routledge.
- Dean, R. K., & Pollard, Jr. R. Q. (2001). Application of demand-control theory to sign language interpreting: Implication for stress and interpreter training.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6(1), 1-14.
- DeCaro, J., Feurerstein, M., & Hurwitz, T. A. (1992). Cumulative trauma disorders among educational interpreters: Contributing factors and intervention.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37(3), 288-292.
- Fontana, S. (1999). Italian sign language and spoken Italian in contact: An analysis of interactions between Deaf parents and hearing children. In E. Winston(Ed.), *Storytelling and conversation: Discourse in Deaf communities*(pp.149-161).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Frishberg, N. (1990). *Interpreting: An introduction*(revised ed.). Silver Spring, MD: Registry of Interpreters for the Deaf.
- Gannon, J. R. (1981). *Deaf Heritage: A narrative history of deaf America*. Silver Spring, MA: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 Greeno, J. G. (1993). From research to reform education and cognitive science. In L. A. Penner, G. M. Batsche, H. M. Knoff, & D. L. Stone(Eds.), *The challenges in mathematics and science education: Psychology's response*(pp.153-192). NY: Oxford University Press.

- Heward, William L. (1996). *Exceptional children: A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Kelly, J. E. (2001). *Transliterating: Show me the English*. Alexandria, VA: RID Press.
- King, J. F. (2001). *Introduction to deaf education: A Deaf perspective*. Hillsboro, OR: Butte.
- Ladd, P. (2003). *Understanding Deaf culture: In search of Deafhood*. Buffalo, NY: Multilingual Matters.
- Lane, H. L.(1999). *The Mask of Benevolence : Disabling the Deaf community*. New York : Dawn Sign Press.
- Lucas, C., & Valli, C. (1989). *Language contact in the American Deaf community*. In C. Lucas(Ed.), *The sociolinguistics of the Deaf community*(pp.11-40).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Lucas, C., & Valli, C. (1990). ASL, English, and Contact signing. In C. Lucas(Ed.), *Sign language research: Theoretical issues*(pp.288-307).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Metzger, M. (1999). Footing shifts in an interpreted mock interview. In Elizabeth Winston(Ed.), *Storytelling & conversation: Discourse in Deaf communities*.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Napier, J. (2002). University interpreting: Linguistic issues for consideration.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7(4), 281-301.
- Padden, C. (1989). The deaf community and culture of deaf people. In Sherman Wilcox(Ed.), *American Deaf culture*(pp.1-16). Maryland, USA: Linstok Press.
- Padden, C. (1998). From the cultural to the bicultural: Modern deaf community. In I. Parasnis(Ed.), *Cultural and language diversity and the deaf experience*(pp.79-98).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agan, T. (1989). Nineteenth-century conceptions of deafness: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educational practice. *Educational Theory*, 39(1), 39-46.
- Stewart, D. A., Schein, J. D., & Cartwright, B. E. (1998). *Sign language interpreting: Exploring its art and science*.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Swartz, D. B. (1999). *Job satisfaction of interpreters for the dea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nneapolis, Capella University.
- Theorell, T., & Karasek, R. A. (1996). Current issues relating to psychosocial job strain and cardiovascular disease research.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1), 9-26.
- Tony, C. (1997). Educating for bilingualism in different contexts: Teaching the deaf and teaching children with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Educational Review*, 49(2), 151-158.
- Tucker, J. E. (1997). Language: The Issue in deaf education. *Perspectives in Education and Deafness*, 16(1), 2-15.
- Van Cleve, J. V., and Crouch, B. A. (1989). *A Place of Their Own: Creating the Deaf Community in America*.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 Watson, J. (1987). Interpreter burnout. *Journal of Interpretation*, 4, 79-85.
- WHO (200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WHO.

- Wilbur, R. (2000). The use of ASL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English and literacy.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5(1), 81-104.
- Zimmer, J. (1989). *ASL/English interpreting in an interactive setting*. In Proceedings of the 30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 Medford, NJ: Learned Information.